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명예회장 :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8월 21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최근 들어 치안 상태가 몹시 불안하다. 공권력을 바로 세우는 여러 대책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의 하나로 국민들이 솔선해서 협조하는 일을 들 수있다. 그것이 바로 시민정신이다. 사회의 질서를 세우고 공권력을 돕는 이런 의로운 일에 선뜻 나서는 사람은 좋은 본보기가 된다. 성폭행범을 잡다 목숨을 앗긴 최성규씨, 뺑소니 차에 치인 사람을 구하다 중태에 빠진 임종호씨등……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며 이웃과 사회의 정의를 위해 뛰어든 이들의 선행은 길이길이 사회를 밝히는 등불이 된다. 자기 희생을 통한 선행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다. 〈편집자 주〉

목숨 버리며 「이웃 구제」

보살행을 닦는 사람은 온갖 선법의 씨를 뿌려 하나하나 익히게 된다. 그리고 그것들이 익고 나면 거기로부터 온갖 선법이 생겨나고, 선법이 생겨나면 큰 환희가 일어나 불법(佛法)을 구하기에 이른다. 저 선법의 씨앗은 다겁이 지난대도 파괴되는 일이 없다.
〈대집회정법경〉

온갖 선법을 실천하면 곧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는다.〈반야경〉

깊이 선인지 악인지를 살펴, 마음에 꺼림을 알아야 한다. 그리하여 악을 두려워해 범하지 않는다면, 종내 행복하여 근심이 없으리라.〈법구경〉

작은 선행은 복보가 없다 하여 가벼이 알아서는 안된다. 물방울은 아주 작지만 차츰 큰 그릇까지도 채우는 것처럼, 선행도 점점 늘어가면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게 되는 까닭이다. 〈법집요송경〉

마음 속으로 늘 선을 염하여,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즐거움이 스스로 다르기를 그림자가 형태를 따르는 것 같으니라.
〈법구경〉

보살은 선법으로 자신을 아리땁게 하며, 또 중생으로 하여금 선법 속에 머물게 한다.
〈수호국계주경〉

중생들이 행위로서의 선행을 완성하며, 말로서의 선행을 완성하며, 마음으로서의 선행을 완성하면, 성자를 비방하지 않고 정견과 선행의 인연을 완성하는 까닭에, 죽으면 반드시 선도에 태어난다. 〈화엄경〉

능히 뛰어난 선을 닦는다면, 그 사람은 큰 인력(因力)을 성취할 것이다.
〈화엄경〉

한가지 선심을 닦으면 백가지 악을 깨는 결과가 된다. 마치 작은 금강석이 수미산을 무너뜨리는 것 같고, 적은 불이 온갖 것을 태우는 것 같고, 소량의 독약이 중생을 해치는 것과 같다. 적은 선도 마찬가지여서 이를은 적은 선이지만 그 실제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큰 악도 깨는 까닭이다.
〈열반경〉

"종교연대 사회운동 필요"

'불교-기독교 국제학회' 시카고회의서 협력방안 모색

"사찰방화 · 불상훼손등 한국상황 우려" 성명서 채택

세계종교의 흐름은 사회평화를 위해 종교간 연대운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난 7월27일부터 8월3일까지 미국 시카고 드폴대학에서 열린 '불교-기독교학회 국제회의'와 이에 앞서 7월22부터 27일까지 미국 캔터키 게세마니 수도원에서 열린 '수도자들의 종교간 대화' 모임에 잇달아 참가한 한국대표단에 의해 확인됐다. 이들은 "종교간의 의식공유와 책임감 확산 및 대화, 협력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특히 '불교-기독교학회' 시카고회의에서 각국 종교 지도자 학자등 8백여명은 최근 한국사찰 방화, 불상훼손 등 훼불행위와 관련해 "타종교사회에서 자기 종교를 위해 타종교를 무시하고 성물을 파괴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장에서 낭독했다.

'불교와 기독교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열린 불교-기독교학회 시카고회의는 도덕 · 여성 · 환경 · 폭력 · 분쟁 · AIDS 등의 9개 소주제를 놓고 토론을 펼쳤다.

특히 지난 2일 드폴대 강당에서 열린 '한국에서의 불교와 기독교 연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대외적으로 한국종교인협의회 등 종교협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남북통일 원드컵 유치기원대회등 사안별로 종교계가 모이고 있으나 내적으로는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기독교의 급속한 팽창과정에서 몰지각한 일부 맹신도들에 의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종교지도자들의 노력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타스님은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대신해 '한국불교와 조계종'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렸다. 또 '예술을 통한 초의선사의 사회 교류'라는 주제를 발표한 진월스님은 초의선사가 당시 다산 · 추사 등과 친분을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어떻게 실천했는가를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성출(바셀대학) 교수는 '만해스님에 나타난 참여불교운동'을 통해 불교와 기독교 간의 밀접한 사회적 상호관계를 모색했다.

이번 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유정길국장(불교환경교육원)은 대회 분위기에 대해 "기독교 천주교 불교학자들이 모였으나 대체적인 흐름은 불교적 사상과 수행으로 초점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준엽 · 오종욱 기자〉

중앙종무기관 첫 재무감사

조계종 총무원 내년예산 편성근거 마련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이 개원이래 처음으로 중앙종무기관에 대한 재무감사를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다.

감사 대상기관은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의 각 부서와 파라미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등이며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의 자문을 받아 96년 1월부터 7월까지 집행한 예산을 집중감사한다.

감사방법으로는 수검자료를 토대로 서면과 면접감사를 혼용하고 재무감사와 관련한 사업예산계획과 집행의 타당성 여부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전문적인 내용은 자문감사반원의 도움을 받고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의뢰도 병행한다.



◇불교-기독교학회 국제회의가 시카고 드폴대학에서 열렸다. 달라이라마를 비롯한 전 세계 종교지도자, 학자 8백여명이 참석했다. 법타(오른쪽 세번째) 고사난다(왼쪽 세번째)스님.

복지시설 설립 쉬워진다

보건복지부 98년부터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일 "98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종교단체 기업 개인의 참여를 가능토록 한 '사회복지시설 운영내실화 방안 시안'을 발표함에 따라 불교계의 사회복지시설설립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내실화방안 시안'은 노인 · 아동 · 장애인 · 부랑인 · 정신질환자 등 복지시설 수용자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불교계가 사회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의지만 있다면 합법적으로 세워 운영할 수 있게된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비영리 사회복지법인만이 양로원 고아원 등의 운영이 가능했다. 이는 법인이 재정능력 부족으로 급식 위생상태가 나쁜데다 20년 이상된 낡은 건물도 전체의 14%나 되는 등 복지시설 수준이 형편없는 부작용을 낳았다. 개인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은 현재 2백93곳(5천7백여명 수용)에 달하고 있으나 모두 무허가로 남아있다. 소록새마을 연꽃마을 등 법인으로 등록된 복지시설외의 불교사회복지시설 또한 마찬가지인 실정이다.

이 개선안은 내년 관계법 개정후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재가불자연합 재창립 추진

결성난항 중앙신도회에 영향 미칠듯

지난해 9월 조계종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사실상 해체상태에 놓여있던 한국재가불자연합(당시 공동대표 안동일 외 3인)이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재가불자연합 집행위원장으로 참여했던 김재일 동산반야회장은 이와관련 "중앙신도회 창립이 여러 차례 연기되는데도 총무원은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창립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가불자의 독자적인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재가불자연합의 재가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그동안 결성에 난항을 겪어온 중앙신도회 준비위원회의 위상이 크게 떨어짐은 물론 당분간 중앙신도회 창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준비위원회의 해체, 재구성도 예상된다. 준비위원회는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 이후 지금까지 한 차례의 공식회의도 갖지 못했으며, 주무부서인 총무원 총무부도 담당직원 조차 배치하지 않는 등 중앙신도회 구성에 의지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김재일씨는 중앙신도회 창립준비위를 탈퇴하지는 않을 것이며, 중앙신도회가 창립되더라도 재가불자연합은 조계종을 비롯한 여타 종단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독자적인 재가불교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생용 미륵반가상 중·고교에 보냅시다

동참해주신 분

△원도 합천 청량사스님: 서울 중앙중 · 고 서울공고 강남중 중대부속중 · 고 중대부속여중 · 고 동양고 남강중 · 고교(11구좌) △지암 도림사 포교당주지: 하동여고(1구좌) △대전 송광사스님: 전곡고(1구좌) △이대영: 중원 동작초등학교(1구좌) 〈8월14일 현재 총 424구좌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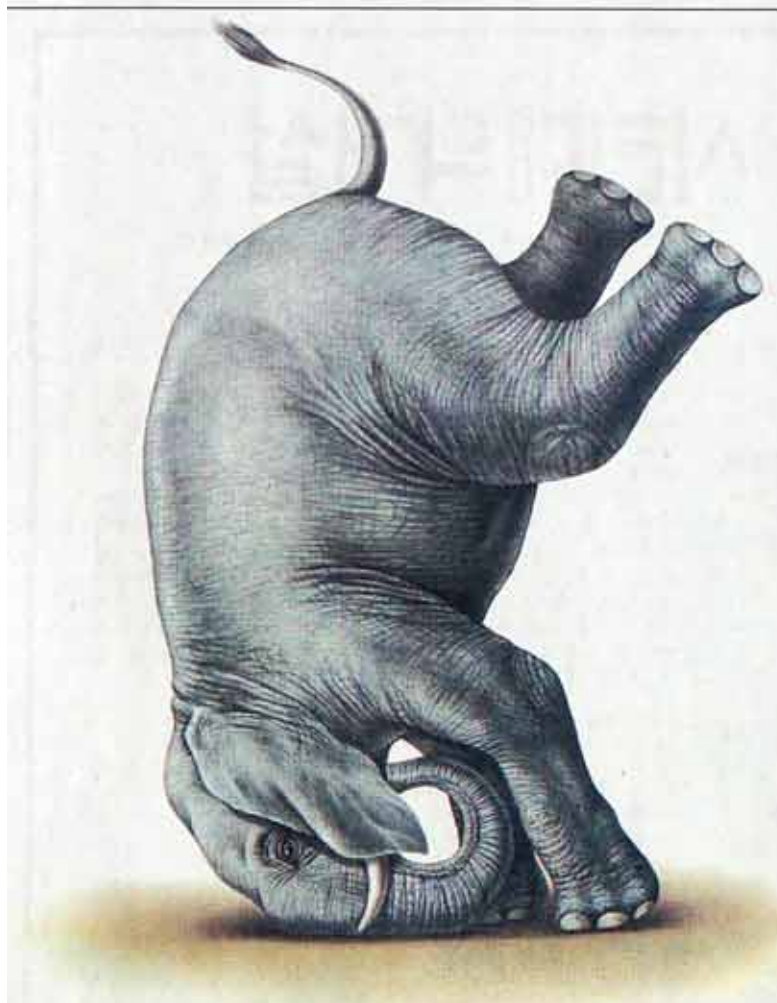
어떻게 참여하나

◇보급기간: 1996년 12월 31일까지
◇보급대상: 전국 중 · 고등학교 각 1점씩 총 4,568점
◇구좌단위로 참여(1구좌 10만원)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누구나 가능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다(지역 학교 · 출신모교 · 자녀가 다니는 학교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 온라인 계좌
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입금후 반드시 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타블로이드 4면 법보전양판 발행
정신문화불사 '새바람' 15면
8 · 15 건국훈장 받은 봉륜스님 14면
여름사찰수련 동참 기재방담 2면
교계 문화재 전담부서 절실 6면



지난 34년간 국가 기간산업을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끊임없는 기술창조로 21세기 초일류 중공업회사로 도약하겠습니다.
근본이 강해야 무엇이든지 제대로 서는 법 -
중공업은 모든 산업발전의 근본입니다.
지난 34년간 국내 중공업계를 선도해 온 효성중공업 -
첨단기술로 실현하는 풍요로운 21세기를 위해
효성의 도전과 창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근본이 강해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력사업부문
산업에너지의 핵을 이루는 각종 중전기기 및 송변전설비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전력의 고효율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변압기, 차단기, 전정류, 계전器, 용접기, 철탑설비


기전사업부문
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전동기를 비롯하여 각종 플랜트는 물론 발전소용에 이르는 다양한 산업기계 및 설비개발로 산업 전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동기, 발전기, 감속기, 주차설비, 환경보전설비, 화학장치, 식도설비


자동화사업부문
최첨단 Mechatronics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고기능 단위 요소기기에서 분산, 집중제어 System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실현한 Total FA Solution을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계장설비, UPS, PLC 등 전력전자, 물류SYSTEM, SERVO SYSTEM, FA SYSTEM, 신호제어 SYSTEM


건설사업부문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세심한 설계와 시공으로 안락하고 관리한 생활환경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오피스빌딩등 각종 건축공사, 도로, 항만건설등 토목공사, 포장공사, 주설공사

효성중공업주식회사

사 설

정당 불자회가 할 일

각 정당마다 불교신행단체의 결성에 분주하다. 이미 '자민련 불자회'가 발족하여 활동을 개시하였다. 이어서 새정치국민회의가 '새연등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이달 안으로 창립법회를 갖고 공식적인 출범을 할 예정이다. 추진중에 있는 신한국당은 늦어도 9월경에는 창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각 정당들이 앞을 다투어 불교 신행단체를 만드는 것은 그동안 불자정치인들의 행태를 볼 때 분명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야당에서 먼저 발벗고 나서는데 눈길을 끈다. 혹시 내년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선거의 전술 전략적 차원에서 이런 불교인모임이 탄생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각 정당의 불자결성에 대하여 우선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자 한다. 불자정치인들의 자각과 의지를 토대로 새로운 신행행태를 추구하는 참된 모습이라고 여겨진다. 지금 불교계가 추진하고 있는 불교개혁과 불교중흥을 이루어 민주통일정토를 건설하는 데 적극 동참하려는 대승보살의 서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에 결성되는 새로운 정당불교단체의 활동과 관련하여 불교정치인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길 바란다.

첫째, 불교신행단체의 성격이 퇴색되지 않도록 조직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아무리 정당과 정치인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정치단체'가 아니라 '불교단체'이다. 불자로서 불·법·승 삼보를 믿고 공경하며, 부처님의 사상과 정신을 바탕으로 올바른 신행관을 정립하는 보살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불자로서의 수행과 용맹정진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정기적인 법회와 수련대회를 통해 신앙심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아울러 불교사상이 현실정치와 정치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함께 공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올바른 정치풍토·정치윤리의 확립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의 정치현실은 밝은 햇살보다는 어두운 그림자가 많다. 그동안 크고 작은 선거를 치르면서 우리는 부정·타락 선거가 판을 치는 모습을 보아오고 있다. 각종 부정부패, 불법폭력, 금권·관권의 개입 등으로 얼룩진 우리의 정치풍토가 개선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사성계급을 타파하고 민주적 공화제를 주창하였으며, 화합된 승가공동체를 운영하셨다. 보살에게는 자기의 이익과 타인의 이익이 따로 있지 않음을 강조하셨다.

셋째, 정당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불교신행단체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정당은 민주정치제도에 있어 가장 큰 정치적 조직체이며, 의회정치의 밑거름이다. 정당의 본래 기능은 국민의 여론을 집약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정치현실 속에서 정당의 구조와 활동을 살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연기와 중도사상에 입각하여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는 정당인·정치인이 되어야 한다.

넷째, 각 정당의 불교단체는 한국불교중흥을 위해 연대협력하여 활동해야 한다. 같은 불자로서 대립과 갈등을 버리고 화합 자비의 실천으로 돌아가야 한다. 종단을 지원하고 다른 불교단체와 협력하여 국가사회를 계도하며, 불교계가 펼치고 있는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에도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현대만평

박구원



딴생각 하면…



◇"이 음식은 어디서 왔는고…." 공양에 앞서 음식을 수행의 도움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발우를 높이들고 공양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송광사 수련생들.

여름사찰 '단기출가' 수련대회가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까지 널리 인식되면서 대사회기여와 새로운 포교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7월초부터 8월말까지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등 삼보사찰을 중심으로 10여개 사찰에서는 일반인 2천5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제히 2박3일내지 4박5일 기간으로 단기출가 수련대회가 열렸다. '현대불교'에서도 9명의 취재기자가 삼보사찰 수련대회에 참가해 신심을 더욱 고취시켰다. 이를 계기로 각 사찰의 단기출가 수련대회 의의와 열기 및 개선해야할 점 등을 기자방담을 통해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일상찌든 '나' 되돌아본 '단기출가'

"묵언·백팔참회 통해 마음공부 소중함 배워"

가족·부부참여 '눈길'…지원자 전원수용 과제

72세 보살 모범…'부모은중경' 독송하다 통곡하는 거사도

여름 사찰수련 동참 기자방담

김원우기자 한명우기자 김중근기자
김재경기자 이은자기자 도필선기자
이윤호기자 오종욱기자 고영배기자

-여름수련대회 참가열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몇년새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는 신청자가 6천여명이나 돼 수련대회 참가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였습니다. 신청이 마감된 이후에도 해당사찰에 전화가 폭주하여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특히 본사급사찰을 중심으로한 여름산사 생활을 체험하려는 일반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돼 포교의 새로운 장으로 자리매김하는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찰에서의 '단기출가' 수련대회에 참여율이 급증하는 것은 일상의 단조로운 생활을 벗어나 평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일상에 찌든 세속을 벗어나 출가스님들과 똑같은 탈속한 생활의 경험은 삶의 활력소가 되기에 충분하지요.

-송광사 1차 수련대회에 동참한 72세의 노보살님의 경우 지난해도 참가했기 때문에 신청 접수하면서 바로 탈락됐는데 끝까지 우겨 참가했다더군요. 이 보살님은 시종일관 타의 모범을 보여 수련생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불교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발원한 가족단위와 부부간 참석이 많아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신청자 폭주 '업무 애로'

-통도사 전문가반은 특성에 맞게 실시돼 특수계층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령층도 고르고 나름대로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동질성을 갖게해 성과도 컸습니다. 공통된 화제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의미부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만큼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교와 연관한 신행의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보았습니다.

-해인사 유경험자반은 엄격한 사중의 가풍이 그대로 반영된 수련대회였다고 봅니다. '절제와 깨어있음의 미학'이랄 수 있는 발우공양에서는 퇴숫물을 여러번 마셨는데요. 규칙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여지없이 108참회와 운력을 시켜 견디다 못해 하산한 사람도 여러명이 될 정도였습니다. 힘든만큼 신심이 성숙해지는 곳이 해인사 수련대회라고 할까요.

-해인사는 절수련을 많이 했습니다. 반야심경 사경시에는 1자1례(一字一禮)를 하도록 했습니다. 팔만대장경 새길때 1자3례를 했던 전통을 이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또 〈부모은중경〉 독송시간이 있었는데 어찌나 감동적이었던지 한 거사님은 통곡을 하시더군요.

-통도사는 율도량이라서인지 예불등 의식에 치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시반이면 어김없이 기상했는데 잠을 자지않고 수행하는 스님들의 모습은 존경심으로 다가와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산사수련이 스님들의 올곧은 수행을 보는 것 만으로도 값진 경험을 얻은 것이지요.

-특히 발우공양과 묵언수행은 불편하기로 치면 첫째로 꼽으면서도 반응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생각 맛과 향기에 팔리지 않는 수행법인 발우공양은 요즘 관심이 높아지는 환경운동과 연결돼 반응이 컸습니다.

행자교육式 운영 문제

-보통 스쳐지나가는 사찰에 깃든 의미와 아름답고 오묘한 진리가 스며있는 사찰의 조형예술에 대한 설명은 불교의 가르침과 접목된 교리공부시간이었습니다. 송광사에서는 주지 현고스님이 직접 일주문에서 경내까지 거슬러 올라오며 불교의 진리를 바탕으로 표현된 사찰의 조형을 설명해 주었지요. 돌 한개 풀 한포기 그냥 있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어 일체만유에 존재하는 생명의 존엄성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해인사는 산내암자순례를 가졌는데 용성스님이 주석했던 용탑선원을 비롯해 원당암 지족암 삼선암 등 큰스님들의 체취가 스며있는 유서깊은 도량참배의 시간이었지요. 정말 일상의 찌든 때를 말끔히 씻어주는 소중한 공부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참회시간은 불자의 모습을 찾아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고통스럽고 땀이 나는 것이 내 자신의 업장을 녹이는 것이라 생각하며 매일 새벽 도량석 목탁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108배 정진에는 모두 열심이었습니다. 절을 하는 횟수가 많아질 수록 몸이 가벼워 지더군요.

-수련대회 참석자들의 근기에 맞는 프로그램과 방안이 실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수련대회를 행자교육원처럼 이끌어가려고 하다보니 자칫 엄격함만 강조할 뿐 프로그램이 단조로워 더 많은 것을 안겨주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사찰에서 평상시에도 주말을 이용한 다양한 수련대회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면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되는 지적이기도 합니다만 수련공간의 미비를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공간의 부족과 시설의 미비로 참여를 바라는 많은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지원자가 워낙 많아 탈락된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찾아오면서 사찰측이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어 난처해 하는 모습은 보기가 민망했다고나 할까요. 대중들을 적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을 늘려나가야 겠습니다.

-사바세계는 참는세계라는 스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다는 한 거사님은 항상 하심하고 참는 마음을 간직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발원했습니다. 몸소 산사체험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좋았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수계를 받으면 못 지킬 것 같아서 받기가 두려웠다는 사람들은 계를 받고나서는 수행의 출발점인 계를 잘 지키겠다는 굳은 서원을 나타내기도 했지요.

美교포 "민족 뿌리 확인"

-송광사에 온 지용(미국 샌프란시스코 교민)씨는 미국에서 자라서 고국에 대해 알고 싶어해 부모가 본사에 전화를 걸어 참가한 경우입니다. 지용씨는 민족의식의 뿌리인 불교에 대해 뭔가 느끼는 공간이 돼 한민족으로서 자랑스럽다고 더듬더듬 말해 참가자들에게 박수를 받았습니다.

-수련대회 참가자들은 수련대회를 회향하고 산사를 내려오며 이제는 자신들도 마음닦는 비결을 알게된 불자라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에서 한 소식 한것처럼 보였어요. 이번 수련대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각 사찰의 모든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리=김원우 기자



◇삼보사찰 수련대회에 참가한 본사 기자들은 수련대회의 의의와 향후방향에 대한 방담을 나눴다.

사랑넘치는 환한세상 만들기

96년 가을 학기 제4회 자원봉사 시민대학개설

전문봉사시대를 준비하는 자원봉사 교육

만법이 귀일하는 곳으로 함께 떠나는 불교기본교육	죽음도 삶의 한 과정임을 장중하게 일깨우는 바하라(불교호스피스)교육	가족과 이웃위해 사랑의 악손되는 자비수지침교육(초급반)
부처님 일대기, 예불문, 섬귀의, 사홍서원, 십대제자 삼법인 12처 오온설, 연기의 진리, 업설 윤회설 사성제 열반 해탈설 불상 보살상 주불전사찰내건물 범구, 사찰내예법, 불자수도행 불자의 실천덕목, 불교상식 교육후:신도5계 수계 법화경 사경 병행	• Hospice의 • 암환자의 말기현상과 Hospice • 환자와 가족의 심리간호 • Hospice자원봉사자의 역할 • 한국인의 전통적인 죽음관 • 특수 간호학 실제 • 열반후 염습방법과 실제 • 21세기와 불교사회복지의 과제 • 삶과 죽음에 대한 종교적 이해 *응급처리 교육후 수료증 취득	• 수지침이란? • 수지침 기본용어 • 전통 침과의 관계 • 탈의 원인과 범위 • 상응요법/임상요법 • 구급법/침구술 역시 • 수지침 치료의 한계 • 초급과정 총정리 중급반/고급반(덕전반) *응급처치 교육후 수료증 취득
9. 11~12. 16(3개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반~11시	9. 12~12. 16(3개월) 매주 목요일 오후 2~5시	9. 2~12. 16(3개월)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
방송 그 엄청난 영향력에 함께 선응하고 하는 방송모니터교육	나와 이웃과 자연은 하나 그 녹색평화를 실천하는 환경교육(여성지도자과정)	삶과 열반의 불이법문 불교장례봉사를 위한 원왕생교육(1단계)
• 방송과 시청자 • 방송과 가정 • 시청자 운동과 방송모니터 • 방송모니터 실무 (보고서 작성요령) • 광고제작론·대중문화론 • 방송비평론·방송마케팅 • 비판커뮤니케이션 • 방송매체론 • 광고 캠페인론	〈총 론〉불교의 환경문제 〈수질오염〉썩어가는 하천/맑은물 지키기 〈대 기〉대기오염현황과 관리대책 〈쓰 레 기〉풍요의 그림자 쓰레기문제 〈식 품〉밥상의 위기 식품공해 〈운 명〉현대문명위기를 극복하는 열쇠 〈지구환경〉전지구적 살림과괴와 민간운동 〈재 활 용〉재활용산업 활성화방안 *명예환경감시원 자격증취득(전원) *명예환경 감시원 중앙회와 연대하여 3개월 여성지도자 교육을 받습니다. *한국여성 환경네트워크에 가입하여 활동	통일왕생의례전반 가정의례준칙에 의한 장례식 일반장례의 축문서식 염습의, 성복의, 영결의, 화장의, 매장의, 발인작법, 한국인의 제례의식, 시후의식, 일반후 염습 실제, 수시실습, 원왕생 독경실습, 장엄염불 1단계 원왕생 염불교육 2단계 원왕생 염사교육 3단계 원왕생 강사교육 ◉작법귀감(원왕생 강사반) 매주 토요일(오후 3시) 강사:심만춘 동방불교대학교수
9. 10~12. 16(3개월) 매주 화 오전 10시30분~12시반	9. 16~12. 16(3개월) 매주 월요일 오후1시~3시	9. 14~12. 16(3개월) 매주 토요일 오후 12시30분-3시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수록 자원봉사경험은 업무 경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 봉사고유번호를 받은 후 저축된 봉사실적에 따라 봉사기록메달 및 적합한 예우를 받습니다.
- 본회 주관 홍익인간사업에 우선적 혜택을 받습니다.
  1. 원왕생 염불봉사 신청시 우선권이 있습니다.
  2. 녹색살림 연락망을 통해 생활에 유용한 환경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물물 교환및 구입시 혜택이 있습니다.
- 명상으로 이어지는 교육을 통해 인생의 최고가치를 실현하게 됩니다.

▣ 교육일시 : 1996. 9. 2~12. 16(3개월)
▣ 교육장소 :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서울종로사무실
▣ 접수기간 : 1996. 8. 1~9. 5
▣ 접수장소 :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서울종로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96-21 최안과3층 종로경찰서 부근)
▣ 교 육 비 : 무료
▣ 법화경 사경경전은 각자 구입
▣ 접수문의 : ☎ 723-6258, 723-6259 FAX 723-6257

※교육후 상담을 통하여 전원 자원봉사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 차량안내
〈일반버스〉 2, 8, 20, 84, 205, 331, 543 (종로경찰서 하차)
〈좌석버스〉 8. 84, 205-1, 543 (종로경찰서 하차)
〈지 하 철〉 3호선 안국역 하차 (종로경찰서 출구)

녹색살림(가칭)창단을 알립니다.
(풀뿌리 가정환경 운동)

하늘과 땅이 열린이래 만생명의 번영을 소망하며 지구는 행복했습니다.

「나와 만생명과 자연」은 하나라는 생각이 본래 지구의 생각이었으므로 아직 성숙치 못한 사람들 있어 자연을 해코지 할 때도 지구는 멀지 않은 날 그들에게 찾아올 찬란한 영적각성을 예견하며 신음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라는 지구의 가르침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선한 사람들의 후예들이 모여 묵묵히 녹색살림을 시작하려 합니다. 아득한 옛날부터 검소함 속에서 일상을 열고 닫은 선조님과 현대에 이르러 고군분투하는 환경단체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고마운 마음 가득담아 경례 올리며 자연을 사랑하는 우리 불자님들에게 풀뿌리 가정환경운동의 정착을 발원하며 녹색살림의 창단을 알립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녹색살림에서 하는 일」
1. 녹색 의식 개혁(풀뿌리 가정 환경 운동의 정착)
2. 우리 농촌 살리기(유기농 장려/도농 직거래/농촌 일손돕기)
3. 국토푸르게 가꾸기(국내외 나무심기, 보호하기)
4. 환경 의류은행(헌옷수집 국내외분배)
5. 알뜰 녹색가게(재활용 정보교류및 물물교환)
6. 환경지침수립실천 및 캠페인
7. 환경문화 가꾸기
8. 지역환경 정책참여(지역환경문제연대)

▣ 명 칭 : 녹색살림(가칭)
▣ 발족일시 : 1996년 10월 15일 오후1시(예정)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1층 불교회관

"종법 몰라 당하는 피해 예방"

"종도들의 억울한 문제, 호계원으로 가져오세요." 조계종 호계원(원장 고산)이 불교내부의 잘 잘못을 판결하는 사법기관으로서 위상을 찾기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 첫 작업으로 개원이후 모든 판결을 유형별로 정리하는 (가칭)호계원보 발간. 초심호계원장 월서스님은 "그동안 종도들이 호계원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호계원을 소개할 필요성을 느껴왔다"며 "판례를 사례, 유형별로 정리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칭)호계원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계종 호계원 첫 판례집 준비배경

징계사항·제소방법·사찰분쟁 유형 소개

교계문제 자체해결 위한 '사법권 찾기'

호계원이 준비중인 호계원보는 △호법부의 징계사항 △사찰간의 마찰 △상급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제소방법과 양식 등을 소개하고 자료수집,원고작성을 거쳐 내년 봄에 발간할 예정이다.

불교계내부의 문제를 종헌 종법으로 충분히 처리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사법기관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고 보면 호계원의 자기위상찾기는 획기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첫 불교판례집이 될 호계원보는 종헌종법을 모르고 있는데서 오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수있어 의의가 크다. 예를들어 종무원간에 일어난 사소한 폭행을 사회법에 제소할 경우 종법에서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제소자도 처벌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교계내부의 일은 내부에서 처리하기위한 것으로 종법에서는 호법부나 호계원에 제소토록 되어있다.

특히 주지스님들의 횡령(?)도 주의할 사항. 원주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하고있는 S사 H스님의 경우 불사를 하면서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 사찰의 보시금도 본의아니게 정리하지 않았다가 호법부에 지적되었다. 지역불자들이 스님은 악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종법으로는 횡령이되어 처벌을 받았다. 이처럼 주지스님들이 활동하면서 자신도 모르는사이 잘못을 저질러 처벌을 받는경우가 많다는 것이 호계원 관계자의 전언이다.

호계원 실무자에 따르면 "그동안 호계원에는 호법부가 제소한 징계사항만 접수되었다"며 "종무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는 사항이 있으면 누구나 제소할수 있다"고 귀띔한다.

이처럼 호계원이 자기위상 알리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있으나 홍보뿐 아니라 내부다듬기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호계원의 상근직 실무자는 주임 1명뿐. 민사소송의 경우 증거확보를 위해 조사를 해야하는데 인력부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또한 총무원과 별개의 독립된 원이지만 재정을 총무원이 관장하고 있어 제기능을 할 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요청이다.

한편 호계원은 일반사회의 지법이나 고법격인 초심호계원(원장 월서)과 대법원격인 재심호계원(원장 고산)으로 구성되어있다. 호계원은 지난 95년 1월 사무처를 구성한 이후 초심 32건 재심16건등 총 48건의 사안을 처리했으며 이가운데 재산처분과 승규위반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이준엽 기자



◇부산선암사는 부산지역의 시민환경권보호와 자연생태계 보존차원에서 백양산 살리기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사진은 대한주택공사 본사앞 시위장면.

선암사 주최 제1회 부산환경포럼

"백양산 훼손 도심황폐화 초래"

지식인 118명 선언문 채택…개발 취소 촉구

개발위주의 정부정책으로 인해 이땅의 산과 가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9일 부산 선암사(주지 덕륜)는 교수 99명과 시민단체대표등 1백18명의 부산지역 지식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부산환경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부산지역의 시민환경권 보호와 생태계보존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금정산 황령산 백양산을 보호하는데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유병근씨(시인)는 "우리의 산과 가람은 70%의 민족문화재를 보유한 문화적 종교적 의미가 있다"며 "산에 절이 안겨있는 형상이므로 산을 보호하지 않으면 불교도 미래를 기약 할 수 없다" 주장하고 선암사 녹지보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임호씨(부산환경연구소)도 "개발과 성장주의 정책은 녹지공간이 지속적으로 축소돼 도시를 황폐화하고 인성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말했다.

환경포럼에 참석한 1백18명의 지식인들은 10일 '부산지역 환경파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백양산의 훼손은 부산시민의 환경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라며 정부의 개발취소를 촉구했다.

한편 부산 선암사의 아파트건설은 정부가 경내지 2만3천여평을 택지개발지구로 공고하고 강제수용한 상태로 수용된 토지의 반환과 멸실위기의 백양산 천연풍치림 보호에 진력해오고 있다. 이런상황에서 열린 환경포럼은 지역사회의 지도계층인 부산지역의 교수 지식인 환경운동가와 함께 토론하고 '사찰에 피해가 있다, 없다'의 문제를 뛰어넘어 지역환경보호 차원에서 이해를 같이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특히 사찰이 환경위기에 직면하고 도시계획에서 소외되는 상황임을 인식한 선암사는 사찰환경권의 보호차원에서 관계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백양산보존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선암사 교무 법응스님은 "정부의 택지강제수용제도와 주택공사제도는 개발도상국가에서는 '필요 악'이지만 땅이 좁은 일본에서도 13년전에 폐지된 상태"라며 주택공사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그동안 정당불자회에 대한 교계의 시각은 긍적적이지만은 않았다. 대선을 몇달 앞두고 곁성됐다가는 선거가 끝나면 살그머니 자취를 감춰버리는 대선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구성되었던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선거를 1년6개월여 앞두고 활동에 들어갔다. 또 자민련과 국민회의가 불자모임을 조직해 활동에 들어간 반면, 여당인 신한국당은 아직 회장단 구성도 못하고 있다. 정당불자회만 놓고본다면 여야가 뒤바뀐 양상이다.

정당불자회 관계자들은 불자회가 대선용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도 소속정당을 위한 모임이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자민련불자회장 정상구의원은 "결코 대선용이 아니며, 당으로부터 그런 요구가 있다면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 새연등회 총무간사 조성준의원도 "의정활동과 관련해 불교계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창구로서 불교계에 비쳐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정책정당임을 표방하면서도 최대종단인 불교계의 목소리에 소홀했다는 자체반성이 새연등회 탄생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정치 이끄는 창구 되길"

여야 불자회 잇단 결성에 거는 기대

자민련불자회(회장 정상구의원)가 지난해 10월 결성, 현재까지 매월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구천서 권수창의원등 8명의 의원과 1백여명의 당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민회의도 채영석 추미애 한영애의원 등 소속 국회의원 11명과 40여명의 원외지구당위원장들을 중심으로 불고신행모임인 새연등회(회장 박상규의원)를 조직했다. 지난 7월 31일에는 김대중총재와 함께 해인사를 방문하고 혜암방장스님의 법문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신한국당 직능국의 한 관계자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9월쯤에야 불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한국당불자회 회장이었던 곽정출 전의원이 4.11총선 공천탈락 이후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정당불자회의 조직과 활발한 활동에 대해 정천구교수(인천대·정외과)는 "불교의 영향력이 신장된 결과이며, 각 정당들이 지자체 국회의원 대통령선거 등 잇따른 정치일정을 고려해 불교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하게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불교계에서도 정당불자회를 부정적으로만 보지말고 대승적 견지의 불교이익을 관철시키는 창구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당불교회가 정당의 시녀가 아니라 정당에 불교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끄는 불교계의 관심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성운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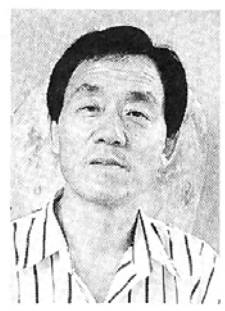
시론

이 가을 정신을 가다듬자

입추 말복이 지나면서 가을이 삐쭉 다가선듯하다. 절기의 위력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된다. 결실을 떠올리는 가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신을 가다듬게 된다.

'거품병' 어디서 왔나

"숲속을 걸어가면서 시냇물 소리를 듣고, 꽃향기를 맡고, 새소리를 듣고,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면서 나는 감사한다. 동태국에, 감자부침이나 호박전에 술 한잔을 곁들여 마시면서, '야아, 이 세상에서 나처럼 잘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하고 아내에게 묻는다. 아내는 이런 음식 정도에 그렇듯 감탄을 하는 것을 보면 당신의 먹을 복은 그저 그렇고 그런가 봐요, 하고 나를 깔볼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매번 맛있다고 말하고 잘 먹었다고 말하곤 한다. 물론 가식으로 하는 입에 바른 거짓말이 아니다. 가난과 어려운 전쟁 뒤끝의 물자 귀하던 시대를 살아온 나와 내 아내는 먹는 것 입는 것에 소박할 수밖에 없다. 나는 시내에 나가서 점심을 먹을 경우, 된장찌개, 순두부백반, 설렁탕, 곰탕을 잘 먹는다. 그것 한 그릇에다가 소주 한두 잔을 곁들여 마시면 배가 불룩해지고 느긋해진다. 남들이 불고기 백반이나 갈비나 몇만원하는 고급한 밥에 양주를 먹고 마시더라도 나는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내게 그러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게 하고, 그러한 밥에 그러한 술로 취할 수 있게 해준 그 어떤 존재에게 감사한다."



한 승 원
〈소설가〉

이것은 친구가 한 이야기이다. 나는 그 친구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쓰곤 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거품병이 들어 있다. 한사코 큰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기혼 부부들보다는 신혼 부부들 부터가 큰 것을 찾는다고 한다. 검약하고 소박한 사람은 작은 사람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그러한 바람을 잔뜩 넣은 것은 누구일까.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한껏 부풀어난 거품으로 만들어 놓은 자는 누구인가.

높은 물가, 치솟은 부동산 값, 선거에서 여당이 이기게 하려고 국민소득 만달러 시대가 왔다고 떠벌린 정부당국, 당신도 중산층이라고 부추긴 백화점이나 외국 물품 수입자들이 우리들 속에 거품을 가득 집어 넣었다. 지금 당신의 집은 몇 십억원짜리인가? 당신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얼마짜리인가? 외제인가 국산인가. 소형차를 타는 것은 체면 문제이니까 최소한 중형차 이상은 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수출품을 생산해내던, 국내의 이곳 저곳에 있는 공단들이 텅텅 비었다. 한국의 유수한 기업들은 우리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다른 임금 싼 나라로 옮기어 갔다. 그런데 당신이 걸치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 마시고 있는 술, 사용하고 있는 부엌 용품, 안방에 있는 침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쓰고 있는 볼펜, 아이들한테 사주고 있는 학용품은 어느 나라에서 생산한 것인가.

해마다 우리 경제는 백억 달러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주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외국 여행중에 값비싼 보석을 사오고, 골프채를 사오고, 양주를 사오고, 전자제품을 사온다.

빚더미에 앉아 있던 프랑스의 옷 공장, 이태리의 가방공장들이 한국 바이어들 때문에 가득 쌓여 있던 재고를 다 없애고 오히려 성수기를 맞았다고 한다.

우리들의 기업들은 허덕이는데, 쌓아놓은 돈도 없는데, 근대화의 부작용으로 강과 바다와 농토와 산과 강은 공해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 가장 든든하게 여겼던 반도체값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수출 수입에서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외제 좋아하는 국민

외채때문에 경제가 파탄되는 나라 이야기가 몰 건너 저쪽 어디의 남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 거라고 생각하고 바다 건너로 돈을 물쓰듯이 하려고 날아가고 또 날아가곤 한다.

다리가 무너지듯, 백화점이 무너지듯, 가스관이 폭발하듯, 비행기가 떨어지듯, 배가 가라앉듯이 언제인가 우리 경제가 그렇게 무너지고 터지고 가라앉게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진국 국민이라는 착각을 한 채 정신없이 과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은 휴가와 소비를 새겨놓고 훌러간다. 가을의 문턱에서 스스로 돌아보며 삶의 옷매무새를 다져잡아야 하겠다.

생활 속의 불교 ⑧⑤

다 주신 분께 더 달라고 손 내밀어?

우리들은 서로 돕고(相助) 서로 의지(相依)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렵다.

혼자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회적으로 자립하기까지 부모의 도움은 절대적이지만 자립 이후에도 주변의 도움이 없이는 산다는 것 자체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으레 그 해결책을 밖에서 구하려 한다. 누구 도움을 청할 곳은 없을까, 밖으로 기대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남이 주는 도움은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이다. 한 끼의 식사, 한 모금의 물이 될 수는 있어도 평생을 두고 구족할 양식이 되지는 못한다. 게다가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다. 채워도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게 욕망이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항상 더 있었으면 하는 갈증 속에서 산다. 은연중에 더 달라는 버릇에 젖어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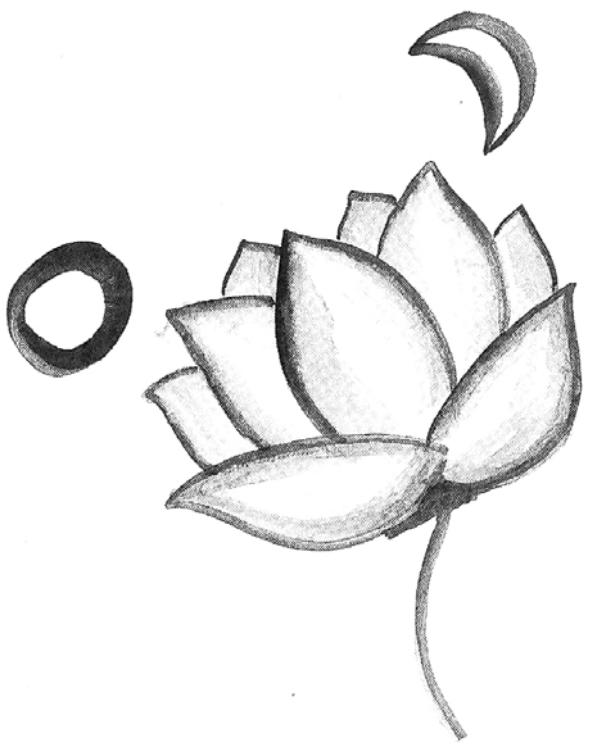
부처님 전에 가서 밥 해 놓고 빌고 떡 해 놓고 비는 버릇은 생활 속에서 몸에 밴 갈증 탓일 게다. 누군에겐가 도움을 청하고 늘 더 있었으면 하고 바라던 심정이 부처님 전에 엎드려 구복·기복하는 습을 낳았던 것이다.

부처님은 위대한 분이니 내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기복·구복의 행위는 더욱 강렬해진다.

병을 낫게 해 주시오, 자녀의 합격을 발원합니다, 승진할 수 있게…, 돈 좀 더 벌게…, 비는 내용도 끝이 없다.

부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부처님의 복 주는 능력을 믿는 것인가, 부처님의 무소부지의 해결 능력을 믿는 것인가?

부처님을 믿는 것은 부처님의 체험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는 것이지 부처님이기에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건 '전지전능한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런 하느님'을 넘어선 분이다. 복을 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받는 길을 일러 주신 분이다. 극락으로 들게 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극락으로 드는 문을 가리켜 주신 분이다.

부처님은 나를 내려다 보면서 착한 일에 상을 주고 악한 일에 벌을 주는 재판관이 아니다. 부처님은 나의 신심이 기특하다 하여 복을 한아름 안겨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부처님을 그런 분으로 안다면 그것은 부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요, 그런 믿음은 우상숭배와 다를 게 없다.

부처님은 나의 실상(實相), 우주의 실상을 일러 주신 분이다. 우리로 하여금 실상과 만나도록 가르침을 주고 몸소 체험을 통해 보여 주신 분이다.

부처님께서 보여 주신 소식 중에 가장 반가운 소식은 누구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면 그 욕심으로 구하던 모든 것이 다 제 속에 있고 절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다. 그대가 바로 보배 창고이니라, 나는 그대들에게 그 창고의 문을 여는 방법을 일러 주노니 그대로 따라 하면 누구나 제 품 속에 보배 창고의 열쇠가 있음을 알리라 하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배 창고의 문을 여는 방법을 일러 준 분께 가서 보배를 꺼내 달라고 졸라댄다. 제 창고의 보물을 제 손으로 꺼내려 하지 않고 부처님보고 꺼내 달라고 보챈다. 열쇠를 제 품에 감춰 놓고서 말이다.

부처님은 방법을 일러 주심으로써 다 가르쳐 주셨고 다 털어 놓으신 분이다. 그런 분에게 무엇을 더 달라고 할 것인가?

협찬 : 김 문 배

법회 안내

구룡사(02)575-7766

법화경 산림대법회
8월12일~9월1일 오전9시
능엄경 산림대법회
9월9일~9월29일 오전9시
원각경 산림대법회
10월6일~10월26일 오전9시
금강경 산림대법회
11월3일~11월9일 오전9시
보살계 산림대법회
11월10일~11월12일 오전9시

각명사(02)387-3510

신중기도 1~3일(음) 오전10시
정기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보문사(02)928-3797

보리회법회 매월 3일 오전10시
합창단법회 매주 목 오후2시
청년회법회 매주 토 오후6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연화어린이회 매주 일 오전10시

법운고교원(02)889-4003

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청년법회 매주 일 오후2시
거사림법회 첫·셋째 일 오후7시
가족법회 첫째 일 오전10시30분
학생동문회 첫째 일 오전10시30분
신중기도 매월 3일(음) 오전10시

덕원사(042)522-0647

정기법회 매월1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8일(음) 오전10시

선덕사(062)263-4660

기도법회 매월3·7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9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4시
청년부법회 매주 목 오후7시
화요법회 매주 화 오전10시30분
가족법회 첫째 일 오전10시30분
합창단 매주 금 오전10시
송원전문대 매월 1·3 금 오후5시

금륜회관(062)224-0175

정기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중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고등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5시
청년부법회 매주 일 오후6시

전북불교회관(0652)77-3497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청년회법회 매주 목 오후7시
대학부법회 첫째 월 오후6시30분
일반신도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무량사(032)575-388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토 오후5시
가족법회 매월 셋째 일 오후5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 이수성총리와 환담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은 지난 9일 주석하고 있는 통도사 정변전에서 이수성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나눴다.

이자리에서 월하스님은 경기·강원 북부지역 수해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마에 희생된 이재민들이 이시대 돌보아야할 중생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인간 생활의 기본이되는 소중한 물을 잘 관리하는 치수의 지혜가 바른 정치의 기본임도 일깨운 것으로 선해졌다.

한편 이총리는 국정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이총리는 종정스님 예방에 앞서 법당에서 삼배를 올렸으며, 종정스님에게 붓과 벼루를 선물했다.



"불법따라 정치하면 국민행복"

스리랑카 쿠마라퉁가 대통령 한갑진씨와 환담



◇ 한갑진씨

쿠마라퉁가 스리랑카대통령이 지난 12일부터 2박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한국방문기간동안 김영삼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기업체를 시찰하는등 바쁜일정중에 한갑진 주한스리랑카명예영사를 만나 한국불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한국과 스리랑카는 오랜 역사속에서 불교를 배경으로하는 문화를 가지고있으며 이러한 역사적사실은 양국간의 우호와 경제협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치철학에 대해서는 "언제나 부처님 가르침과 지혜로 국민들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양국의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불국토건설에 동참하자"고 강조했다.

쿠마라퉁가 대통령은 스리랑카 초대총리를 역임한 故 반다라나이케씨의 맏딸로 지난 94년 8월 야당연합인 인민연합(PA)를 이끌고 총선에 승리한 뒤 그해 11월 대통령에 당선됐다.

한편 스리랑카는 총인구의 74%가 불자인 불교국가로 매년 10월 페라헤라축제를 연다. 페라헤라축제는 4세기경 인도에서 모셔온 캔디에 있는 불치사의 부처님치아를 코끼리 등에 올려놓고 벌이는 순행제이며, 이축제에는 대통령을 비롯 전국민이 참석한다. 국민들은 국영방송국의 아침 예불방송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이준엽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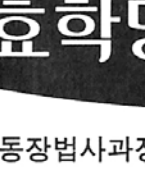
교차로

동국대 발전기금 1억 기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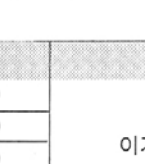
고산스님(쌍계사 조실)은 지난 12일 동국학원 이사장 녹원스님에게 동국대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

'법화경 요품강의' 출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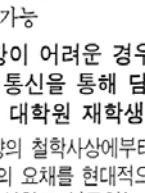
현해스님(월정사 주지)은 오는 30일 오후5시 세종문화회관에서 한암문도회와 함께 〈법화경 요품강의〉(민족사 刊) 출판기념법회를 갖는다.

조직개편·하반기 사업논의



지선스님(전국불교운동연합 상임의장)은 지난 7월 27일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갖고 전불련 조직개편 및 하반기 사업에 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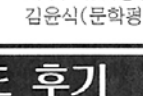
'선불교의 실천철학'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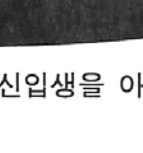
성본스님(동국대 교수)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파계사 영산율원에서 '선불교의 실천철학'에 대해 특별강연 했다.

워싱톤서 포교자료 수집

동성스님(마산 봉국사 주지)은 20여일간 미국 워싱톤소재 한국사(주지 고성)에 머물면서 지역교민과의 대화 및 포교자료를 수집하고 지난 13일 귀국했다. 달마도와 사군자로 알려진 스님은 워싱톤 근교 갤러리를 돌아보고 미주展을 기획하고 있다.



'차생활' 가을강좌 개강



감승희원장(한국차생활문화원)은 2학기 가을강좌를 마련, 오는 9일7일 개강한다. 개설과목은 행다법, 전통예절, 도자기 실습 등 다수. (02)722-9027

'역사의 이름' 출판기념회



김호석씨(한국화가)가 만해 한용운스님 전봉준 김구 신채호 여운형 임창순 문익환 등 우리나라 근현대 지조를 지킨 역사 인물화와 평전을 모은 〈역사의 이름〉을 펴내고 지난 13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화촉 김경숙씨(책방 여시아문 대리)가 오는 9월1일(일요일) 오후2시30분 마포의료보험조합회관에서 김주수씨(35)와 화촉을 밝힌다. (02)737-0695

양홍식PD(불교TV 제작1팀)가 오는 9월1일 오후2시 양재동 구룡사에서 김현주양과 화촉을 밝힌다.

인사

동국대 △경주캠퍼스 부총장 김병기 △경주캠퍼스 도서관장 김용택 △경주 정각원 교법사 정무환 △경주병원장 서정욱

게시판

▲선우도량 수련결사=선우도량은 오는 9월16일부터 18일까지 실상사에서 "미래사회와 사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수련결사를 실시한다. (02)742-6916

▲자원봉사자모집=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거동 불편한 노인수발 및 말벗상대가 되어줄 자원봉사를 모집한다. (02)203-3677

▲신입회원모집=대각불교청년회(회장 김향화) 부산지구는 35세 이하의 신입회원을 모집한다. 법회일은 매주 금요일 저녁7시30분. (051)254-2113

▲합창단원모집=선덕사(주지 행법)는 오는 9월6일까지 합창단원을 모집한다. 연령제한없이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가능. (062)263-4660

▲육조단경 연수생모집=조계사 불교대학 부설 경전연구강원에서는 오는 9월7일부터 육조단경을 연구할 연수생을 모집한다. 강의는 송찬우교수(중앙승가대). (02)720-1390

▲차량지원봉사자모집=개금사회복지관은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병원이송, 행정업무대행, 외출동행 등을 도와줄 차량지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051)893-5034

▲컴퓨터교실=법동종합사회복지관은 주부, 일반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초컴퓨터교육을 실시한다. 개강일은 오는 26일. (042)633-1141

▲불일교양대학 신입생 모집=법련사 불일교양대학은 3개월과정 어록반·기초반 신입생을 모집한다. 어록반은 선가귀감 육조단경 선학특강을, 기초반은 예불문 반야심경 부처님 생애와 사상 등을 강의하며 접수마감은 9월30일까지. (02)733-5322

▲도시락 후원자모집=구로종합사회복지관은 무의탁독거노인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도시락을 후원할 후원자를 모집한다. (02)852-0525

▲광명선원 불교대학 개강=봉선사 서울포교당 광명선원(원장 초격)은 3개월과정의 제10기 불교대학을 30일 개강한다. (02)584-1108

수마현장서 불상 구해낸 강명규 대위



"부처님 계실곳 마련해야죠"

지난7월27일 새벽 5시40분. 퍼붓듯 내리는 비를 감당하지 못한 연천 차탄천 제방이 무너져내리자 7백여M 근교에 있던 5사단 신병교육대가 순식간에 물에 잠겨버렸다.

신병교육대 법당 수국대광사 역시 수마를 피해가지 못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력은 위대했다. 법당이 부처님이 앉아 계신 좌대와 불상만을 남겨둔채 완전 붕괴위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순간 당직을 서고 있던 신병교육대 지원장교 강명규 대위가 강물이 범람해 허리까지 차오르는 물과 붕괴위험을 감수하고 몸을 던져 불상을 모셔내왔다.

"불자로서 그 상황에 직면했다면 누구나 몸을 던졌을 겁니다. 다만 부처님이 편안히 계실 곳이 유실돼 안타까울 뿐입니다."

독실한 불교신자인 강명규 대위는 이어 "법당을 찾는 매주 3백여명의 훈련병에게 의지와 용기가 되어온 신교대 법당 신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덧붙이고, 법당마련을 위한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신교대법당은 지난 67년 5월20일 준공된 사병막사를 개조한 것으로, 훈련병들에게 법음을 전해왔다.

도필선 기자

백담사 만해시인학교 성료

시와 시학사 주관 제1회 만해시인학교가 지난 6~9일 설악산 백담사(주지 마근)에서 열렸다. 오현스님(신흥사 회주) 김재홍(경희대 교수) 김윤식(문학평론가) 오세영(서울대 교수) 이성선(시인) 씨 등 문인과 일반참가자 1백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연과 창작워크샵, 시낭송대회, 만해시입체낭송, 백일장 등의 행사가 벌어졌다.



삼화사 약사전 복원 상량식

삼화사(주지 원행)는 지난 6일 약사전 신축 상량식을 봉행했다. 삼화사는 약사전을 문화재관리국과 동국대의 자문을 얻어 원형으로 복원할 계획으로 일광월광 협시불과 좌우로 약사천불을 조성봉안한다. 이날 상량식에는 원행 청우스님과 최연희국회의원, 김인기동해시장, 이성기시의회의장 등 사부대중 1천여명이 참석했다.



한일청년종교인 합동위령제

종교문화연구원(원장 최준식 이화여대대학원 한국학과장)과 오원스님(일본에서 포교중), 이화여대대학원 학생, 일본의 불교단체 입정교성회(立正佼成會) 청년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하는 한일청년종교인 문화교류대회에 참석한 종교인들은 지난 15일 광복절을 맞아 서울서대문 독립공원 순국선열추모탑 앞에서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1996년도 후기
원효학당 신입생 모집

'96년도 후기 동장법사과정<2년제> 신입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입학자격 : 불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
- 개강일시 : 1996년 9월 10일 (火) 10:30
- 모집과정 : 동장(銅章)법사과정 ○○명
- 전형방법/합격자통보 : 서류전형/개별통보
- 문 의 처 : 본 학당 사무국 (☎3411-6167~8)

- 개강과목/시간표

강 의 과 목	교 수	일 시
불 교 개 론 (Ⅱ)	이기영 박사(본원 원장)	매주 화요일 13:30~15:00
장 자 (Ⅱ)		매주 수요일 10:30~12:00
금강삼매경론 (Ⅱ)		매주 수요일 13:30~15:00
한 산 자 시 (Ⅱ)		매주 화요일 10:30~12:00
법집 별행록 사기	정병조 박사 (본원 부학장)	매주 금요일 10:30~12:00
논 어 (Ⅰ)	진성규 박사 (중앙대 교수)	매주 금요일 13:30~15:00
연 기 론	전재성 교수 (한국불교대학)	

※ 6개 과목 수강신청 가능

♣ 통신수강 : 출석수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강의테이프와 교재를 통해 가정에서 공부하며 수시로 통신을 통해 담당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음
♣ 특 전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인 경우 면접을 통해 선발된 자는 장학 혜택있음

동서양의 철학사상에부터 현대의 제반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접근을 통해
원효사상의 요체를 현대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신하고 심도있는 교과과정을 통해 하나의 앎을 소중히 여기며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지성인을 모집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원 효 학 당**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3동 186-1 개포빌딩 6층 3411-6167~8
(지하철 3호선 대치역 개포5단지 경기여고 앞)

중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 법음대학
96학년도
제3기 편입생 모집안내

1. 취 지 문

1969년 문화재급 스님들의 발기로 옥천 범음회를 조직하여 불교문화의 정수인 범음 범패의 전통적인 의식 전문 사찰로 맥을 이어받아 그간 많은 후학들을 양성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1973년 11월3일 무형문화재 제 50호(범패)로 지정되어 박송암, 장벽응 스님등이 보유자가 되었고 1987년도에는 명칭이 영산재로 바뀌면서 이일응, 정지광 스님등이 추가로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후, 김구해, 마일운 스님이 보유자 후보(전수교육보조사)로 등록되어 매년 강습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기철에 3개월 강습회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수없어 범패 전통의식 전문인을 양성 하고자 1994년에는 위 보존회 부설 옥천 범음대학으로 발족하여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불교문화 발전을 위하여 많은 학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2. 편입요강

1) 자 격 : 전통의식이 필요하신 각종단 스님
2) 모집인원 : 1학년 약간명
2학년 각배반 약간명
3학년 영산반 약간명
3) 교육기간 :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6시(2시간)
4) 강 사 : 전수교육보조자 (이수자, 전수생)
5) 교육장소 : 봉원사 염불당
6) 개 학 식 : 1996년 9월 2일(음7월20일) 월요일 오후4시
7) 접 수 처 : 서울 서대문구 봉원동 산 1번지 봉원사
전화 : 02) 392-3007~8 팩스 : 393-9450

3. 특 강 법무의식 - 바라춤 및 착복(나비춤) 매주화요일, 목요일, 주2회 오후4시

4. 제출서류 1) 입학원서 1통(본대학 소정양식) 2) 사진 2매 (3x4) 3) 인장

5. 특 전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영산재 보존회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전수생으로 5년간 전수교육 과정을 거쳐 이수자로 인정을 받고 나아가 전수교육보조자, 기능 보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편입생 모집을 안내 합니다. 1996년 8월 일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장 김대운
부설옥천범음대학장 박송암 합장

인과법 과학적증명 '연구 화두'

산문밖의 선禪

해부학자 서영석 교수



고려대 해부학교실 서영석(徐英錫.57)교수를 찾아가면서 얄궂은 상상의 나래를 폈다. '인체와 소우주, 그 비밀을 보았을까' '칼(메스) 한자루로 시체와 나누는 대화는 무엇일까' '해부하는 이와 해부당하는 이의 화두는 어디에 있는가'

의학에 대해 문외한임을 밝히고 분위기 파악용 질문을 하나 던졌다.

유전인자가 전생 정보

"해부학교실에서 어떤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세포내의 신호전달체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세포막에서 어떤물질이 변화하여 자극을 유전자까지 전달하는지를 찾고있지요."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칼'과 '시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고자 했건만 '동문서답'의 형상이 되고 말았다. 시체와 씨름하는 상상이 무참하게 무너지고 최첨단 분야를 연구하는 과학자를 단나게 되어 취재하고자 했던 의도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던 것이다.

해부학은 모든 의학의 기초로 크게 육안해부학과 미세해부학으로 나뉜다. 육안해부학은 인체의 여러 장기들의 구조와 작용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미 1백50년전 서구에서 정리가 되었다. 미세해부학은 쉽게 세포를 해부하는 최신 학문이다. 의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분야가 있다면 바로 신경파트이다. 이는 세포와 세포간의 물질이동을 뜻하는 것으로 아직 가설로만 남아있다. 이 가설이 풀리게 되면 신경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소식이 아닐수 없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체도 창조할 수 있게 된다.

"6근(眼耳鼻舌身意)으로 느끼는 자극(정보)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제 가설입니다. 이 자극은 세포와 세포 사이의 어떤 물질에 의해 뇌에 전달이 되고 전달된 정보는 뇌에 고스란히 남게 됩니다."

세포는 핵과 염색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염색체는 단백질복합체인 유전자가 수십만개 들어있고 이 유전자는 대대로 자손에게 전달된다. 여기에서 서교수로부터 충격적인 가설을 더 들어보자.

"우리는 뇌에 축적된 정보를 필요할 때 꺼내쓰지 못할 뿐입니다. 또한 이 정보는 유전자에 의해 고스란히 자손들에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생이란 아버지 어머니의 생애이고 조상의 생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미 부처님이 설하신 것으로 짐승 벌레등 미물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정보량이 많을 때 축약해 저장하듯이 유전자도 아버지의 아버지 또 그아버지의 아버지가 살았던 모든 생이 축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해하기 쉽게 최면요법으로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축약된 정보를 푸는 방법가운데 하나라고 하겠다.

세포내의 전달체계를 밝히는 서교수의 연구가 성공한다면 최종적으로 정보가 저장되어있는 유전자를 풀수 있게 된다. 이는 전생을 볼수 있게된다는 것을 뜻하고 부처님이 설한 '인과'에 대한 가르침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일이 된다.

서교수는 자신의 연구가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고 강조한다. 늦어도 다음 세대에는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등골이 송연해진다. 후손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부끄러운일을 들킨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교수는 다음 생에 앞선 현생을 어떻게 닦고있을까. 당연히 성인군자처럼 살겠지'라며 혼자서 단정하고 생활철학을 물었다.

"우리는 서로가 동반자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 자녀에게는 아빠, 학생에게는 교수라는 동반자입니다. 연구실이나 자동차등 무생물과도 동반자 관계입니다. 무엇이든 부속물로 삼는 것을 경계하면서 살려고 노력합니다."

나와 남은 동반자 관계

서교수는 특히 '겸손'을 강조한다. 의사를 지원하는 후배들에게 먼저 주문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절'을 든다. 항상 먼저 인사하고 고개를 숙였을 때 마음이 가지런해지고 편안해진다는 것이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마음이 고르지못했을 때의 폐해는 사회적으로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교수는 금년으로 의과대학을 졸업한지 30년이 됐다. 학창시절, 그림을 좋아했으나 가난과 대가족의 장남이라는 환경이 의과대학을 택하게 했다. 그 후 의사로서 사회적 명예와 부를 쌓을 수 있었지만 남이 알아주지 않는 기초의학 외길을 걸어왔다. 문득 고개들어 보니 후배들이 묵묵히 뒤따르고 있다. 험난한 길이기에 결코 따르지 않을것만 같았는데 뜻을 같이 하는 제자들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서교수에게 있어 가장 큰 보람이다.

"의학을 철학적으로 정의한다면 편안하고 오래 살기위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래 살기보다는 인간답게 살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서교수의 '화두'는 '가설'이다. 전생을 밝히는 가설. 가설을 밝히기 위해 또다른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증명하는 일은 피를 마르게 한다. 전자현미경을 통해 보이는 작은 우주는 황홀하기보다 의문덩어리만 더할 뿐이다. 그래도 포기하지않는 것은 인간답게 살고자하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준엽 기자

부·명예보다 '겸손' 신조로 기초의학 '외길 30년'

"세포내 전달체계 숙제 풀면 전생 볼 수 있어요"

사대·마음·삼독심의 관계는

문 현재 받고있는 업장은 '전생의 모습'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생의 최초 사대와 마음은 어떻게 해서 탄생했으며 그 관계는 무엇이며 삼독은 어떻게 해서 마음에 물을 들였습니까? 〈이기석·경남 창원시 귀곡동〉

답 늘 말씀드리지만 전자의 습이 채곡채곡 쟁여져 현재 의식 속에 낱낱이 입력이 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과거는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 없고 오직 지금 여기, 고정됨이 없이 찰나로 도는 그 자리 뿐입니다. 그것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할 수도 없으니 공!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공이 없는 자리입니다. 말하자면 그냥 공인데 태초는 어디 있으며 시작과 끝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갑니다.

처사님이 궁금해 하시는 최초란 시간상의 말인데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늘지도 줄지도 않는, 더럽다 깨끗하다도 없는 거기에 처음이 어디냐고 하신다면 그건 시공에 익숙해진 사량놀음이 됩니다. 놓고 관하라는 것은 알음알이에 빠지는 것을 막고 네가 죽어 너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대와 마음, 마음과 삼독심의 관계가 궁금하다 하시는데 마음이 있으므로 사대도 생겼고 삼독도 일어난 것입니다. 결코 서로 상대하는 별개의 것, 둘로 보아서는 안됩니다. 마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툼도 없고 사대도 없고 삼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있다는 생각, 궁금한 것까지 다 나온 곳에 되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놓고 또 놓고, 놓는다는 그것까지 놓고가다보면 발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사량으로 이해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지상의 어떤 이론을 갖다대어도 그것은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발원문갖고 공부하고 싶습니다

문 스님께서 항시 둘로 보지말라고 하신 말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첫째, 놓고 관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습 때문인지 제 나름대로 발원문을 지어 소리내서 하고싶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예를들면 '내가 알든 모르든 모두가 다 부처님 정법을 통해서 행복하소서'하는 글귀를 담아 우주 속 속들이 울려 퍼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취감도 생깁니다. 다른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지요?

둘째, 기계형편상 도저히 천도식을 올릴 수 없는 이웃에게 제가 책자에 나오는 법식대로 해도 되는지요? 법식중에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요? 〈이여래심·전남 나주시 대호동〉

답 남을 생각하는 마음씨가 가상합니다. 둘로보지 않는 공부를 한다니 정진하기 바랍니다. 발원문을 지어서 소리내어 하고 싶다하시면서 내면과 외면의 경쟁을 말씀하셨는데 외면 내면이 둘이 아닙니다. 바깥 경계나 보살님이 말씀하시는 과거의 습이나 혹은 내면의 소리나 다 거기서 나온 것이고 거기로 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드는 구멍 나는 구멍이 한 구멍이지요. 그러니 내면과 외면의 경쟁이란 애초부터 있지 않습니다. 내면에 놓고 관하라는 것이나 발원문을 지어 우주 속속들이 울려퍼지게 하고 싶다는 것이나 다 한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내면도 놓고 외면도 놓아야 외면 내면이 둘이 아니게 되지요. 또 소리를 내어 하고싶다 하셨는데 소리를 내든 안내든 발원문은 마음입니다.

소리를 내도 내가 하고 내가 듣는 것이고 소리를 안내도 내가 하고 내가 압니다. 내 마음이 알면 우주법계가 다 아는 것입니다. 보살님께서는 발원문이 우주에 울려퍼지는 것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다 하시는데 소리를 내면 우주가 다 듣도록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으로 통신이 되기때문에, 내 마음이 우주의 마음이고 부처님 마음이기에 울려퍼질 수 있는 것이지 소리가 커서 울려퍼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둘째는 천도식을 해주고 싶다 하셨는데 먹은 마음없이 한생각 일으킨 것이 중요하지 형식 때문에 천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가 어려워 스님께 부탁을 못할 형편이라면 내마음 네마음 조상마음 동글려서 떡하나 해놓고 지내도 됩니다. 절에서 천도재할때 보면 그냥 의식절차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고, 스님이 들아닌 도리를 알아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도리를 알아야 천도가 제대로 되겠지요. 꼭 상을 차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 한그릇 향 하나 올리고 둥근 떡 하나로 해도 됩니다.

주인공에 맡기면 다 잘되는지요

문 일체를 주인공에 맡기고 관하라 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또 맡기면 잘되는 쪽으로 알아서 해주는지요? 그래도 잘못된다면 왜 맡기라 하십니까? 〈이홍만·서울 노원구 상계동〉

답 이 공부는 무심공부입니다. 어떤 세속의 목적이나 이익을 도모하자는 공부가 아닙니다. 굳이 이익을 말하자면 진짜 이익,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대자유인이 되는 것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놓고 맡기라는 것은 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착을 버리는데 달리 무엇을 구하고자 함이 있어 잘되느니 못되느니를 논하겠습니까? 버리고 어떻게 사느냐, 놓고 어떻게 사느냐 하시겠지만 부처님께서는 다 놓으시고, 다 버리시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된다, 잘못된다는 생각까지 나온 자리에 되놓지 않으면 놓아도 놓는게 아닙니다. 맡겨도 맡긴게 아닙니다. 젖먹이가 잘못될까 걱정한다면 어찌 엄마를 믿고 몽땅 맡기겠습니까?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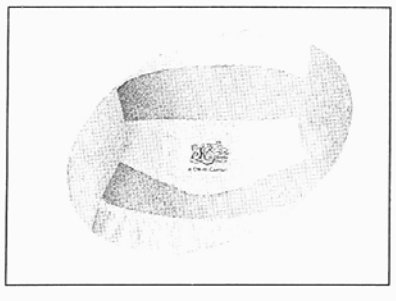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괴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지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로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 두통·생리 (송파구 이 남 숙)

저는 20년이 넘도록 두통으로 고생하였습니다.

하루도 아프지 않은 날이 없어서 여러가지 치료방법을 다써 보았지만 별효과를 보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던차 아는분을 통해서 향비라는 조그마한 팩을 배꼽에 차며는 모든것이 좋아질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착용했습니다. 3日이 지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기 시작하더니 정말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생리도 불순했는데 생리도 정상이고 색깔도 너무 맑고 깨끗해져서 나 자신이 놀랄정도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드셔서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부산불교교육대학

교리반 8기생 모집

본 대학은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사 양성 교육기관으로써 교계의 대덕스님, 교수, 법사님을 모시고 체계적이고 이해 하기 쉽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리반 8기생을 모집하오니 행복의 삶을 추구하는 불자님의 동참을 환영합니다.

1. **모집 마감일** : 8월 28일 (수)까지
2. **모 집 인 원** : 100명 선착순 마감
3. **교 육 기 간** : 6개월(96년 9월~97년 2월) 매주 금요일 14시~16시
4. **입 학 식** : 9월 6일(금요일) 14시 본대학 강당
5. **등 록 금** : 입학금 3만원(교과서 제공), 수업료 월 2만원
6. **특 전** : 교리반 수료자는 포교사과정에 우선 입학할 수 있음

불기 2540년 8월 일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대학 서무과로 문의바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390-34 성원주차빌딩 2층 화엄회관(부산진구청 뒤)

전화 : (051)818-8659, FAX 807-7351

부 산 불 교 교 육 대 학

교계 문화재 전담부서 설치 시급

불교문화재는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으나 불교계에는 이를 관리보존할 인력이 없다. 불교계 문화재 행정을 총괄하는 총무원 문화사회부에 문화재행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1명. 그나마 본사급 사찰을 포함한 8백50여개 전통사찰과 59개 문화재관람료 사찰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인력은 전무해 대부분 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불교문화재 보수와 보존 및 전통불교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담당할 전문연구단체 역시 극소수다. 따라서 연구인력 또한 제대로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 관리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전환과 지원은 요원한 일일까.

조계종 실무자 1명뿐 · 사찰엔 전무 상태

연구단체도 부족 … 조사 · 관리 체계화 필요

조계종 총무원의 경우 문화재 담당실무자는 문화사회부의 1명으로 문화재행정을 담당하기에는 태부족이다. 따라서 현장 확인과 점검을 수반한 불교문화재관리는 엄두도 내기 힘든 실정.

이러다보니 일부에서는 불교계가 문화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이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비난 앞에서도 속수무책이다. 다가오는 문화전쟁시대를 대비하고 미래사회에서의 포교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불교문화재만을 담당할 독립부서를 설치해 문화재를 보호, 관리, 재창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문명대 교수(동국대 불교문화재연구소장)는 지난 5월 불교문화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문화사회부를 문화부로 승격시키고 여기에 문화과와 문화재과로 나뉘 전문요원이 8명이상 되는 최소한의 기구라도 갖춰야 불교미술정책의 앞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사부 담당자는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확충은 분명 시급한 문제다. 어느 분야의 몇명의 인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전조사작업을 벌이고 이를 토대로 체계화된 조직속에서 가능한한 충분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때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교계에는 물교문화재 보수와 보존 및 전통불교문화를 연구할 전문 연구단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사진은 지난 4월 감은사지 발굴모습.

현재 불교문화재연구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실질적으로 통도사 성보문화재연구원 단 한 곳 뿐. 전문연구인력은 연구단체가 없다보니 자연히 극소수인 상태이며 교계는 이를 수용할만한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동국대 미술학과에서 해마다 배출되는 불교미술 전공자와 문화재 전공 석·박사가 모두 70여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고급 인력들을 불교계에 제대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박도하 연구원(동국대 박물관)은 "전문인력 보강이야말로 성보전시관을 짓는 것보다 더한 급선무이며, 이를 통해 바람직한 불교문화재관리를 위한 상호보완적인 행정업무 및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중앙과 지방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관심있는 스님을 문화재 전문가로 양성하거나 중앙승가대, 강원 등에 문화재 관련 과목을 확대,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명우 기자

백양사

우화루

江國春風吹不起
(강국춘풍취불기)
鷓鴣啼在深花裏
(자고제재심화리)
瓦級浪高魚化龍
(이급랑고어화룡)
痴人猶戴夜塘水
(치인유호야당수)
雨過雲凝曉半開
(우과운응효반개)
數蜂如鬪碧崔嵬
(수봉여화벽최외)
空生不解宴中唑
(공생불해연중서)
惹得天花動地來
(야득천화동지래)

강쪽 나라 봄바람에 파도 아직 일지 않고
자고새 울음소리 꽃밭 속에 갇혔으나
부처님 법 깨닫는 이 높은 파도 타넘어서 용 되는 고기 같고
어리석고 못난 이는 깊은 밤 연못 속 용 낚으려 하는구나
비 그친 구름 사이 새벽이 반쯤 열려
연이은 봉우리가 그림같이 높푸르구나
부질없이 사는 이는 그 도리 알지 못해 편히쉬다 앉았으나
하늘 꽃을 얻을 때는 땅조차 흔들릴세

해설 백양사 우화루는 각종 수련회나 회의를 하는 강당으로 사용되는 누각이다. 대개 사찰의 누각에 이 우화루란 이름이 부쳐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우화루란 직역하면 '꽃비가 내리는 누각'이란 뜻이다. 여기서 꽃비란 저 유명한 유마거사의 일화에 나오는 절대지혜의 표상 바로 그것이다.

아무튼 우화루는 절대 진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곳이란 숨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백양사 우화루의 주련 내용도 열심히 수행하여 진리를 깨달을 것을 권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대구 덕은불교대 교수〉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꽃비 내리는 누각」 절대진리 상징

무형문화재 '공개심사제' 도입

조사 · 심사자 분리

물의를 빚었던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과정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조사와 심의를 분리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등 무형문화재 지정절차 개선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2일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들이 무형문화재 보유·후보자를 상대로 조사활동을 벌이고 보유자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도 참여한 지금까지의 절차를 개선해 앞으로는 문화재위원회의 공신력있는 기구 또는 전문가들이 조사를 실시한 후 문화재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 심의를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조사자와 심사자를 철저히 분리시킨다고 발표했다.

문화재관리국은 또 무형문화재 예능계의 경우 후보자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실제로 기량을 펼쳐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도록 하는 공개심사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공예분야는 현지 제작과정의 비중을 고려 공개심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문화재 단신

독립운동사료 문화재 지정

문화재관리국은 독립운동사자료나 독립운동가의 유품 중 백범일지 등과 같은 중요자료를 국가문화재로 지정보존케 될 전망이다.

광복 51주년을 기하여 문화재관리국은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수석연구원 정제우)가 이와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가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있는 자료를 선정, 중요문화재로 지정 신청할 계획이라고 지난 9일 발표했다.

현재 독립운동가의 유품으로서 중요문화재로 기지정되어 있는 것은 보물 제568호 윤봉길의사 유품과 보물 제569호, 1084호, 1150호 안중근의사 유묵 등이 있다.

용천사 대웅전 道유형문화재

경북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1062 용천사 대웅전이 경북도 유형문화재 제 295호로, 청도읍 원리 981적천사 대웅전은 경북도 문화재자료 제 321호로 6일 각각 지정됐다. 용천사 대웅전은 임란이후 인조때 건립된 다포식 맞배지붕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어 중요문화재적 자료가치가 있다.

"개화기 불교, 사회구제 지향"

儒佛道와 한중일 근대윤리 국제학술대회

동양 전통사상의 중심이 되어왔던 유교 불교 도교 3교가 한·중·일 근현대 윤리에 미친 영향과 미래사회의 새로운 윤리 정립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탐색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국민윤리학회(회장 송재운) 주관으로 지난 19일~20일 동국대학교에서 개최된 '유불도 삼교와 한중일 현근대 윤리사상'을 주제로 한 제3회 한중일 국제학술대회가 그것. 이 학술대회는 제1분과 한 중 근대사회의 유교윤리와 도가 사상, 제2분과 불교와 한·중의 근대윤리, 제3분과 전통윤리사상과 그 변천, 제4분과 미래의 새로운 윤리적 좌표순으로 진행됐으며 '개화기 승려의 현실 구제와 내성 유신적 경향(전보삼)', '중국불교윤리연구(이서유)', '중국근대불교윤리화와 학술화(만원화)' 등 불교관련 논고가 발표됐다.



◇송재운회장



◇전보삼 교수

전보삼교수(신구전문대)는 '개화기 승려의 현실구제와 내성 유신적 경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개화기 승려의 현실구제 의식과 유신적 경향이 당시의 불교적 사회윤리의 근간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전교수는 개화기시대의 불교사상적 특성을 유흥기, 이동인, 김옥균 등의 활동을 통해 설명하면서 이들 개화당의 행동주의를, 조선시대 조사선의 정신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봉원사 이동인 스님의 활동은 개화당 성립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전통이 만해 한용운 스님의 불교유신론으로 이어져 사회참여의 불교와 구세주의의 불교로써 조선불교가 거듭나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불교가 현실과 적극적인 관계 속에 있어야 하고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에 투철한 불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 개화기 시대의 불교사상의 중요한 특징이었음을 밝혔다.

'중국 근대불교의 윤리화와 학술화'를 발표한 중국 강남문화연구훈련학원 만원화(萬元和)교수는 거사 양문회(楊文會)로부터 시작된 중국 근대불교의 윤리화와 학술화가 태허대사를 통해 결실을 이루고 있음을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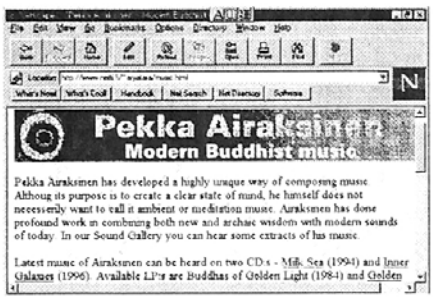
양문회의 각경사업을 통해 제작된 3천여권의 경전이 중국근대불교의 근간이 되었으며, 태허대사는 교리혁명, 제도혁명, 교산혁명등을 이론의 핵심으로 삼고 불교운동을 시작, 중국 근대불교의 윤리화와 학술화를 촉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원화씨는 현재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활불교, 인간불교의 바탕이 태허대사의 불교이론으로 부터 기인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은자 기자

중국불교 근대화 태허대사 교리·제도개혁 결실

부다피아 사이트여행



'현대불교음악'

「부처님 탄생」 등 페카작품 감상 기회

인터넷 사용방법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인터넷의 정보력에 매료당하게 하는 것은 월드와이드웹(이하, 웹)이다. 왜냐하면 웹에서는 단순한 문자 뿐만 아니라 그래픽, 음성, 동영상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페카(미국 작곡가·전위예술)의 '현대불교음악' 사이트는 음성서비스 기능을 최대한 활용한 불교관련 사이트. 여기에는 △사운드 갤러리 △작곡 배경 △앨범소개 등의 메뉴가 있다. 이중에서 사운드 갤러리에는 지난 80년대부터 불교음악을 작곡하기 시작한 페카의 작품 중에서 '부처님 탄생'을 비롯 12곡이 음성파일 형식으로 마련되어 있어 네티즌이 언제라도 이 곡들을 감상할 수 있다.

또 페카의 앨범 중에서 현재 미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Inner Galaxies (1995)와 평화롭고 아름다운 곡들로 구성된 Milk Sea(1994), 신화적 음색을 띄고 있는 Golden Age 등을 감상할 수 있다.

페카는 60년대부터 시지프스와 같은 신화에서 영감을 얻어 독창적인 음악세계를 이룩한 전위예술가로 널리 세상에 알려진 작곡가. 현재 다르마 센타(미국)에서 명상교육을 받고 있는 페카는 명상을 통해 현대서양음악의 모든 전자음향기기 등에 불교의 참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페카의 '현대불교음악' 사이트는 http://www.netti.fi/~aryatara/music.html로 방문하면 된다.

오종욱 기자

관절염, 류마티스

CELL-GUARD(셀가드)

관절염 근본적인 원인과 대책은 있다.

· 노령에 의한 관절염
· 신경정신 상태로 인한 관절염
· 체중이 무거워서 발생되는 관절염
· 유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관절염
· 퇴행성 골 관절염
· 류마티스성 관절염
· 통풍성 관절염

등에 대한 효능실험에서 멕시코 국립대학 임상연구결과 80명을 상대로 98% 이상의 완화(시카고 트리번지) 등에서 관절염, 관절통(통풍)등 기타 염증으로 인한 통증 및 부종과 유리기에 의한 신체조직의 파괴 및 관절염 노화 면역기능 악화에 탁월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수영양식품
국립보건원
자가기준 및 규격
제 893-606호



"미국수입완제품"

하루 딱 한번만 복용!!

2달분(정제형)₩270,000
은행카드 소지자 3~12개월 분할 혜택

사례문

김진길(56세) 세계참피온 류명우 스승

상기 본인은 셀가드가 관절염·류마티스·통풍에 좋다는 소식을 세계참피온 지도자 조희동(前 세계참피온 박종팔의 스승)씨 등 많은 권투인들로부터 전해 듣고 관절염과 통풍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좋은 약은 다 먹어 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해서 2달分을 구입하여 복용을 하기 시작하자 1달 후부터 조금씩 달라지더군요.
그래서 꾸준히 복용하여 6개월이 지나자 완쾌 되었습니다. 지금은 몸이 완전히 나아져 저 처럼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이 제품을 소개하여 드립니다.

삼 일 양 행

서울 : (代) 790-8200 (휴일도 근무함)
본사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108번지

지방에서 주문시 온라인 주문방법
예금주 : (주)한국복지공사
농 협 : 094-01-146584
우체국 : 010025-0126305-11
입금후 주소는 전화로 알려주세요(등기,소포우송)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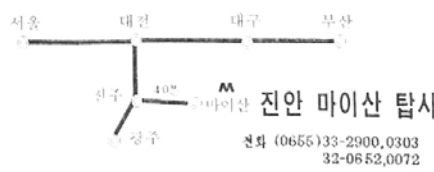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 기도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찾아오시는 길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 (0655)33-2900,0303
32-0652,0072

여러종교 융합…민중 깊이 침투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㉓

중국불교

중국의 불교사는 매우 복잡하다. 그 첫 전래시기도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전설에 의하면 기원후 1세기경 한(漢)나라 명제(明帝)가 꿈속에서 온몸이 황금색으로 빛나는 귀인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는데, 깨어나 알아보니 그 사람이 부처님이었다고 한다. 황제는 인도에 사절단을 보내 부처님 법을 가르쳐 줄 스님을 초빙해 왔다. 다른 설에 의하면 이미 기원전 3세기경에 인도북방 서역을 통해 불교가 중국에 전래되었다고도 하며 전한(前漢) 애제(哀帝) 1년을 초전(初傳)으로 보기도 한다. 대략 기원 전후 무렵 전해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불교가 전래될 무렵 중국은 벌써 고도의 문화를 확립하고 있었다. 한무제(漢武帝)는 공자의 가르침(儒敎)을 통치이념으로 삼아 사회를 안정시켰고, 민간에서는 노자의 사상(道敎)이 널리 퍼져 있었다. 공자와 노자는 기원전 6세기에 살았고 그리스의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리토스 등과 동시대 인물이었다. 유교는 초월적 세계보다는 사회질서 규범을 중시했고, 도교는 불교처럼 세계의 비현실성을 일깨웠다. 이를 호접몽(胡蝶夢)으로 표현한 장자의 유명한 비유가 있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기분 좋게 날아다녔다. 꿈이 깨자 자신이 나비꿈을 꾼 장자인지, 지금 장자가 된 꿈을 그는 나비인지 알 수 없었다."

초기의 불교전도시대에 인도와 중국의 학승들이 여러 경전을 번역하여 중국인에게 불교를 전하는 한편 그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러나 유교와 도교사상을 확립하고 있던 지식인들은 불교사상의 독자성을 올처럼 이해할 수 없어서 전설상의 황제(黃帝)나 노자의 가르침을 빌어 이해하고자 했다. 이렇게 중국 고유의 사상으로 불교를 이해하고자 한 격의불교(格義佛敎)가 한동안 성행하였다.

5세기 초 구마라습이 서역을 경유하여 장안(長安)에 도착한 후 여러 대승경전을 한역(漢譯)하여 불교 고유의 사상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번역된 경전이 정리되면서 논(論)의 연구가 진척되고 여러 학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526년에 보디다르마(達摩大師)가 중국에 들어왔다. 불교진흥에 힘쓰고 있던 양(梁) 무제(武帝)가 달마대사를 청해 가르침을 받고자 했으나, 대사는 화려한 사원과 수많은 승려 등 외모적인 겉치레보다 진리를 올바로 증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전에서 물러나와 수도에 힘썼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9년간 면벽(面壁)참선 정진을 했다고 한다. 그는 중국 선불교의 초조가 되었다. 선(禪)은 중국어로 찬(Ch'an)이라고 발음되는데, 근대에 와서 일본에 의해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서구에서는 일본식 발음인 젠(Zen)이 고유명사로 굳어졌다.

수·당(隋·唐)시대에 이르러 중국의 정치가 통합되면서 문화가 번영하였다.



◇ 중국에 전래된 불교는 달마대사의 '선' 불교 전파이후 수·당대에 이르러 크게 성행됐다. 사진은 달마도.

수·당대 교학 활짝…달마대사 선불교 발흥

6세기 삼론·천태등 각 종파 확립
송나라 이후 대장경 간행 널리 전파
제불보살중 관세음보살과 친숙
문학·조형미술등 중국문화 불교영향 지대

수·당대에 이르러 중국불교도 이때 황금시대를 구가했다. 이 시대는 불교 본래의 모습에 대한 중국인의 이해와 실천이 실현된 시기였다. 삼론(三論), 천태(天台), 화엄(華嚴), 법상(法相), 밀교(密敎), 율(律), 선(禪), 정토(淨土) 등의 종파가 확립되었다.

수·당(隋·唐)시대 이후 한때 폐불이 있어서 여러 경전이 소각되고 종파도 중절되었으나 실천에 전념하는 정토교와 선종 그리고 민간신앙에 동화된 밀교가 번창하였다. 그중에서도 선종은 중국 특유의 불교로 발달되고 탁월한 승려가 배출되어 그 가르침이 계승되어 감과 동시에 고승들의 어록이 편집되었다. 또 선종의 사원에서는 자급자족적인 생활규정이 생겨 그것을 청규(淸規)라고 했다. 송(宋)나라 이후 대장경이 출판되고 경전이 간행됨으로써 불교사상이 지속적으로 널리 전파되었다.

한편 불교는 중국인들의 조상숭배사상과 도교적 민간신앙과 타협하고 그것들을 흡수하였다. 가족의 중요성이 체질화된 중국인들에게 출가(出家) 독신생활은 그리 긍정적으로 비쳐지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지식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졌지만 직접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일은 드물었다. 따라서 일반 승려들은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농민 출신들이 많았다. 사원에서 교육을 실시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았다. 때때로 가난한 서민들이 어린 자식을 사원에 파는 경우도 있었다. 체계화된 유교식 교육을 받은 인재를 등용하는 관료체제가 확립된 중국사회에서 출세를 지향하는 지식인들에게 출가 수도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출가제도는 중국인들에게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또한 불교가 외래종교라는 사실도 자존심 높은 중국인들에겐 약점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불교의 초월적 인식은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유교의 혁신을 가져온 신유학(Neo-confucianism)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불교는 민간의 일상생활에 깊숙히 침투해 갔다. 중국의 문학과 조형미술은 불교를 모르면 이해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받았다. 대승불교의 제불(諸佛)과 여러 보살 중에서 민간에 가장 친숙한 인물은 관세음보살이었다. 여성화된 자애로운 모습을 띤 이 자비의 화신상을 중국 어디서나 만나볼 수 있다.

서구 유일신(唯一神) 신앙의 배타적 성격과는 달리, 중국에선 여러 종교가 쉽게 혼융되었다. 유·불·도의 3교 융화가 활발히 논의되었고, 실제로 사원내에 도교의 영향을 받은 산신각(山神閣)이 세워진 사원이 많았다.

가장 유명한 불교소설인 「서유기(西遊記)」는 손오공과 삼장법사 일행이 불경을 구하러 중국에서 서쪽으로 여행을 떠나 겪게되는 환상적인 모험 이야기이다. 소설이 쓰여진 연도는 정확치 않지만 대략 16세기경으로 추측된다. 삼장법사와 동행하는 원숭이와 말과 돼지는 법사의 분신들로 각각 지성, 영성, 감성을 상징한다. 그들은 천신만고 끝에 불경을 구해 돌아오지만 그 경전들은 모두 백지였다. 이것은 어쩌면 지고한 진리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사실(不立文字)을 상징하는지 모른다.

멀리 인도에서 이룩된 불교는 인도의 은갖 문화를 수용, 포용하면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였으며, 또 중국으로 전해진 다음에는 중국의 독특하고 우수한 문화와 접촉, 융화되어 풍부하고 다양한 중국적인 불교문화를 이룩하였다. 그 문화는 한국과 일본에도 전파되었다.

편 역 : 김 홍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김 연 호 〈제천진주동물병원장〉



우리 목청관(牧淸館) 뜨락에 여명이 찾아드는 새벽이면 서실에 모셔진 관세음보살님께 청수(淸水)를 올리고 삼배를 드리는 것으로 나의 하루는 시작된다.

17년 전 큰 아이의 첫돌기념으로 모셔온 탄허스님의 〈신화엄경합론〉을 아침마다 한 시간씩 읽기 시작한 것이 아침예불의 첫출발이 된 것이다.

당시 난 동물병원업과 함께 신생 불교청년회와 불교학생회를 지도하는 일로 항시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였다. 제천에서의 5년여 불교활동과 진주에서의 대학 4년까지를 합쳐 9년이란 세월을 진정한 나를 위한 불교보다는 막연히 불교를 위한 불교를 하는 듯한 오만도 있었던 듯하여 잠시 뒤돌아보게 되었다.

물론 불교운동에 앞장서는 지도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선 나 자신이 먼저 불법을 익히고 철저히 수행하는 자세가 배어나올 때 이것이 바탕이 되어 이웃과 친지들을 삼보에 귀의케 하는 동기유발이 되지 않으랴 싶었다.

그 첫 실천으로 아침예불과 불경읽기를 시작한 것이다. 아무리 고단하고 잠이 모자라는 아침이라도 예불을 모시지 않고는 개운치 않고 하루 생활리듬이 깨어지는 듯하여 지금까지 여간해 거르지 않고 있다. 나의 불자된 도리로 모든 이웃의 평안과 함께 우리 가정의 화목과 건강과 마음착함, 또 나에게 책임 지워진 동물들의 병고에서의 회생과, 스스로의 자비심 발현을 위하여.



이렇게 근 20년을 계속하자 이젠 여러 불자님 앞에 나섬에 덜 부끄럽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은 듯하다. 그리고 나 자신도 무언가 굳은 신념이 자리잡혀가는 듯하여 늘 불보살님께 감사하고 있다.

또한 애당초 나를 삼보전에 귀의케 하여 준 김상현 선배님께도 늘 감사하게 된다. 김선배님은 25년전 나를 대학생불교연합회에 입회케 이끌어 주었다. 불교는 믿음으로 자기를 일으키고, 사물에 대한 안목도 세우면서, 알뜰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으며 직접 진인다운 삶의 길을 하나하나 보여주신 분이 김선배였다. 이 고마운 뜻은 지금도 나의 생활에 나태로운 삶의 길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했었다.

이 일이 있은 후 여러 불자들이 뭔가 새로운 불교운동을 해보자는 뜻이 있는 것 같아 좋은 과보로 느끼게 되었다.

이때 고맙게도 일부러 우리 목청관을 찾아주신 남지심선생과 박광서교수님은 불교운동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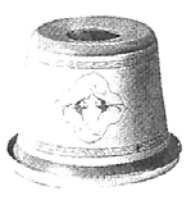
불교인의 새로운 신앙갖기, 승가에 도움을 주는 불자, 공부하는 불자, 이 세상 구석구석에 꼭 필요한 일을 찾아 나서는 불자가 되자는 결사운동의 새 장을 우리는 선우라는 단체를 통하여 하나하나 결쳐 보여주신 것이다. 난 이 신선한 결사운동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우리 제천에도 1백여 선우도반과 함께 지회를 결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 제천 선우들은 항시 보살심을 놓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은누리에 자비심이 하나하나 미치게 돔소 실천하고 있는 남지심·박광서 두 분 공동대표와 여러 선우도반들처럼 이렇게 희망을 주는 불자가 되자고 오늘도 그 원력을 위하여 정진하고 있다.

"꼭 필요한 불자되자" 선우운동 동참

아침예불 20년…문화재 3백여점 박물관 기증

"여성들의 건강을 위하여 황토로 만든"
가정용 전통 쑥좌욕기 "탄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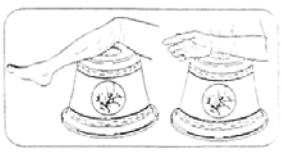
전통 쑥 좌욕기란?

하복장기의 질환인 자궁병, 냉·대하, 치질, 변비, 방광염, 전립선염등을 치유시키는데 그어떤 방법보다도 탁월한 치료효과를 나타내었던 옛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담은 전통적인 세가지 재래식 치료요법을 그대로 살려, 이 세가지 요법이 한곳에서 동시에 발휘되도록 집약시켜 이를 특정부위에 집중적으로 쬐므로서 질환의 치료 예방 효과가 크고 빠르게 개발된 가정용 좌욕 찜질 요법기 입니다.

당신의 건강진단서, 이상 없습니까?

냉이 심하다. 가끔 하혈을 한다. 월경불순과 월경통이 빈번하다.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하고 있다. 치질때문에 고통스럽다. 자궁에 가끔씩 기분 나쁜 증상이 일어난다. 혹시 자궁암에 걸린것은 아닐까? 이런 근심, 걱정, 전통 쑥 좌욕기를 만나는 즉시 말끔히 해소됩니다. 하루 30분씩 전통 쑥 좌욕기에 앉아만 있어도 하복 장기질환이나 모든 자궁병 질환은 저절로 치유되고 예방되기 때문입니다.





"전통 쑥 좌욕기의 요법으로 치유되는 질병 사례들"

전통 쑥 좌욕은 이런 병들을 치유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여성 : 무인병, 냉·대하, 빈비, 치질, 월경불순, 월경통, 질염, 요도염, 방광염, 자궁근종, 자궁암, 불임증, 산후풍, 산후조리, 질수축작용, 염증 및 혈액순환촉진, 배가 냉한사람, 설사가 심한사람, 노폐물제거, 기미·여드름 방지, 전신피로, 배·가슴 근삼제거, 갱년기장애 등

남성 : 치질, 전립선염, 비대증, 전립선암, 조루증, 정력감퇴, 발기부전, 빈뇨, 잔뇨, 소변곤란, 배뇨통 등

◎이상의 열거한 질병이 있는 분은 일단은 무조건 전통쑥좌욕기를 10~15일만 사용해 보십시요. 그리고 그 차가를 일일해 주십시요 어느분이고 이 좌욕기로 내몸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과 함께 그 효능을 확실히 느끼실 것이며 설령 좌욕기 가격이 몇 백만원이라고 해도 이미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이 안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치료에서도 일주일에 2~3번씩 거푼 사용하시면 뜻한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월경 시작일때 혹은 갑 승아 좌욕기는 체중을 수 없는 밀수분으로 꼭 넣어주십시요 자궁을 냉한 것으로 부터 항상 따뜻하게 보호해주면서 청결하게 소독해주고 살균시켜주어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임신했을때 유산되는 일이 드물며 집에서 산모 스스로 산후조리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기 때문입니다.

특 징

1 좌대 열을 받으면 휘토기운을 방출 수 있는 휘토 분청자기로 만들었습니다.
2 내열탕기 원적외선이 다량 방출되는 바이오 세라믹 도질로 만들었습니다.
3 강화약쑥 티백100봉지(100일분)와 100% 순정품 휘토가루 100일분이 포함되었습니다.
4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않고 누구나 손쉽게 30분~1시간 이상 좌욕할 수 있어 편리하며, 좌욕기 한대로 남녀노소 전가족이 공동으로 사용가능 합니다.
5 오래 앉아있어도 불편하지 않고 질병치유 효과가 크도록 구조 및 규격이 설계되었습니다.
6 보급가격이 효능 및 효율성, 품질의 우수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전통쑥좌욕기는 "움직이는 황토방"이며 "이동식쑥찜질방"입니다.



치료원리

• 1시간이상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뜨거운 수증기안에 약쑥의 탁월한 효능과 황토의 신비한 약성과 기적의 치유력을 나타내는 원적외선의 심달력이 상위일체로 합쳐져, 인체조직 파괴의 위험없이 신체심부까지 골고루 깊숙이 스며들어서 피부모공과 내분비선공을 열어 피부호흡 및 호르몬분비를 촉진함으로서 대사기능 증진과 혈액순환을 좋게하고 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고 병원균을 살균시켜 질병을 치유시킵니다.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 않는"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낫고자 별방법을 다 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예가 많기 때문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 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리마티스염,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신경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위궤,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갑상선기능항진, 당뇨병, 비만증, 심장, 폐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마비, 경련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뾰루지,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숙취, 단백 넘어 뜨시는 분, 정력강화, 각종 성인병예방 등



전국지회모집 (미개설지역)

전국 시·군·구지회 미개설지역·방문 및 전화상담

제조원 바라밀 건강연구회
• 본회 (지하철강문역)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북리 301-1
전화 (0335)34-9490, 39-1906 /야간(0342)706-3060
• 분원 (지하철역에서 엘제일 거리3분 5B버스(정신상가 3m승용)
대한불교조계종 보문목교원(원장 각광스님) 부설 불교바라밀건강연구원
전화 (051)864-3740

◎가능한 가까운 지회를 통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라며 단, 미개설 지역의 경우 지회가 개설될 때까지만 구입신청을 받습니다.

서울(02) 강남:553-0261~2 강북:994-3108 서초:508-3284~5 반포 597-7581 송파:417-8922 성북:942-6430 은평:305-2910 도봉:942-6430 종로:747-7033 노원:942-6430 미포 715-2062 부산(051) 부산진구:803-0108 연제구:864-3740 대구(053) 칠곡:323-2598 광주(062) 동구:228-6544 대전(042) 중구:222-4966 전주(0652) 덕진구:75-6733 경남지역 마산:(0551)23-9016 창원:(0551)62-0076 진주:(0596)73-0039 울산:(0522)74-7536 경북지역 경주:(0561)772-3255 구미·군위:(0578)63-5308 포항:(0562)82-3155~6 제주도(064) 제주시:22-3324 충북지역 제천·단양:(0443)46-3023 강원도지역 강릉:(0391)645-2117 경기지역 의정부:(0351)873-0532, 44-3114 수원:(0331)291-8549 분당:(0347)66-0049 용인:(0335)35-4298

다시 푸는 경서

虛雲和尙의 참선요지 ⑨

也不是從我 肉身起的
야불시종아 육신기적
若是從我身 或口起的
약시종아신 혹구기적
我若死了 我的身口牆在 何以不能念了呢
아약사료 아적신구유재 아이불능념료니
當知此一念是從我心起的
당지차일념시종아심기적
卽從心念起處 一點點定
즉종심념기처 일저저정

또한 내 육신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다.
만약 내 육신따라 혹은 입속에서 나왔다면
나 죽은 후에도 내 몸과 입은 오히려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한 생각 날 수 없는 것이랴.
마땅히 알지니 이 한생각은 나의 마음을 따라 일어났으매
곧 마음따라 생각이 일어난 자리를 뚫어지게 살필지어다.

篤直看去 如猛虎捕鼠
맥직간거 여묘포서
全副精神集中于此 沒有二念
전부정신집중우차 몰유이념
但要緩急適度 不可操之太急 發生病痺
단요완급적도 불가조지태급 발생병장

用功多年 經過了一番煅練
용공다년 경과료일번단련

이때가 되면 마치 물 마실때 차고 뜨거운지를 절로 아는것같이 곧 걸림없는 자리에 이를 것이니
교차로에서 친아버지 만난 것처럼 자유 자재한 편안함을 얻으리라.
노참자의 어렵고 쉬움이란 어떤 것인가.
이른바 노참이란 옛 선지식에 가까운 이를 가리킴이니
공부가 오래이고 한차례 단련을 거쳤으므로

身心純熟 理路淸楚 自在用功 不感辛苦
신심순숙 이로청초 자재용공 불감신고
老參上座的難處 就是在此自在明白
노참상좌적난처 취시재차자재명백
當中停住了 中止化成 不到牆所
당중정주료 중지화성 부도보소
能靜不能動 不能得眞實受用
능정불능동 불능득진실수용
甚至幻境 生情取捨如故 欣厭宛然
심지환경 생정취사여고 흔염완연

몸과 마음이 푹 익었고 이로가 맑아 있어 자유롭게 공부 할수 있으니 힘겹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이것이 노참의 쉬운 점이다)
노참의 어려운 자리란 자재롭고 명백한데 있으니
중간에 이르러 머물고 말아 보배창고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다.
또 능히 고요하여 움직이질 않으매 참다운 수용의 경지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경계에 부딪혀 취하고 버리는 뜻을 내는 까닭에 좋아하고 싫어함이 완연하여

"한 생각은 내 마음따라 일어났으니 생각 일어난 자리 뚫어지게 살펴라"

行住坐臥 都是如此 日久功深 瓜熟蒂落
행주좌와 도시여차 일구공심 과숙체락
因緣時空 具備措着 忽然大悟
인연시공 촉착조착 홀연대오

온 정신을 똑바로 말달리듯 몰아가되 마치 고양이가 쥐 잡듯이
집중하고 집중하면 딴 생각이 없어질 것이요.
다만 느려도 안되고 급해도 안되고 적당해야 하므로 너무 급히 굴면 안된다. 병과 장애가 생긴다.
행주좌와중에 모두를 이같이 하여 날이 더하고 공부가 깊어지면 오이가 익어 절로 꼭지가 떨어지듯이
시절인연 이르러 잡거나 놓고나 홀연히 크게 깨칠 것이다.

此時如人飮水 冷煖自知 直至無得之地
차시여인음수 랭난자지 직지무애지지
如十字街頭見親爺 得大安樂
여십자가두견친야 득대안락
老參的難易如何呢
노참적난이여하니
所謂老參 是指親近過善知識
소위로참 시지친근과선지식

粗細妄想 依然牢固
조세망상 의연뢰고
所用功夫 如冷水泡石頭 不起作用
소용공부 여랭수포석두 불기작용
久之也就破懈下去 終于不能得果起用
구지야취피해하거 종우불능득과기용

크고 작은 망상이 자연히 감옥처럼 굳어져
공부하는 바가 얼음물거품이 바위에 부딪치듯이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화두를 보기 어렵다)
그렇게 오래되면 피로하고 게을러지며 마침내는 결과를 얻을 수 없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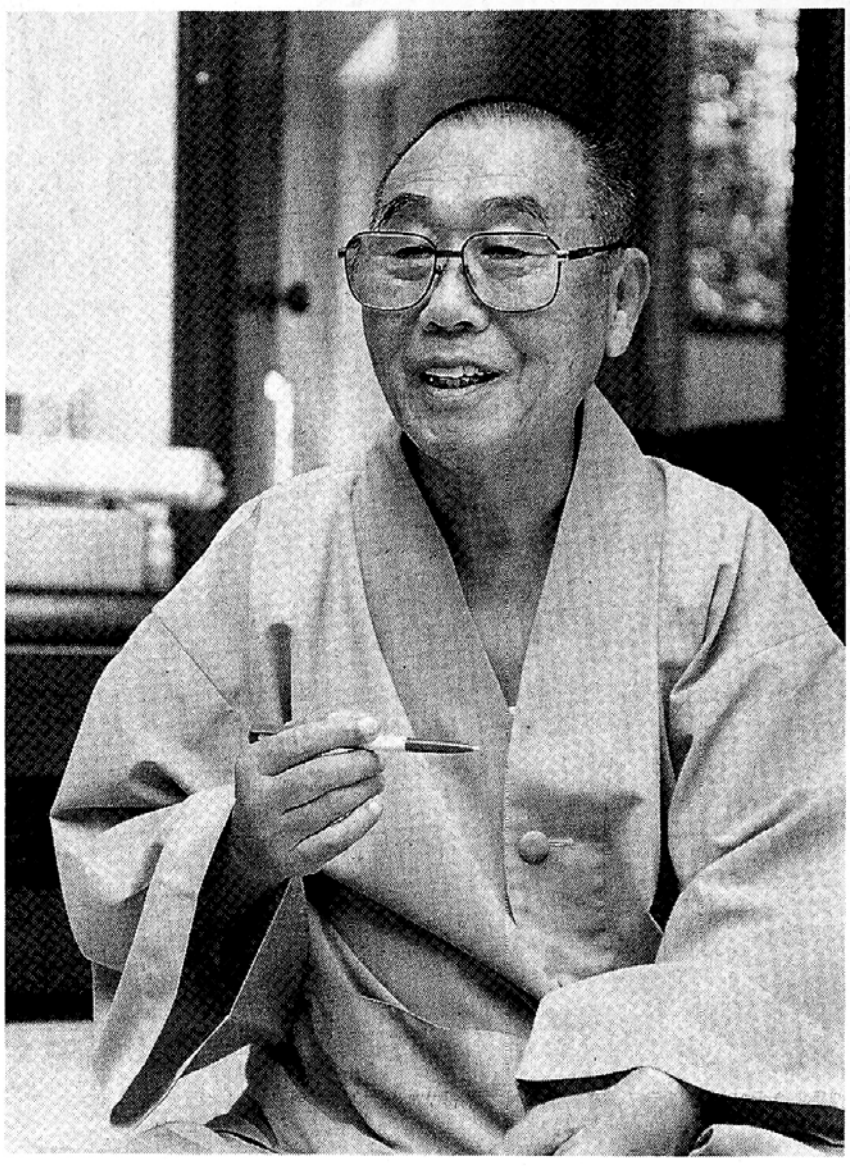
龍 眼

"한 생각은 내 마음따라 일어났으니 생각 일어난 자리 뚫어지게 살펴라"

★ 지상법석

"온화한 얼굴 부드러운 말

석천스님 〈법성사 주지〉



악력
- 1912년 강원도 삼척 生
- 20세에 수덕사에서 벽초스님 은사로 득도
- 65년부터 교도소 찾아다니며 재소자교화에 헌신, 현 안양 영등포 교도소 종교위원
- 해동불교 전문대학장 홍익인간학회 이사장등
- 수상집 〈깨달음의 이야기〉펴냄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생계라고 하는 이곳은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니고 온갖 동물과 미생물들 그리고 무생물까지 모두 얽히고 설히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느것 하나 별나게 드러나지 않고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곳이 이 중생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 있는 것은 두루두루 섞여 사는 이 중생계에도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이나 미생물들의 삶에도 질서가 있어서 그 집단을 이어 가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깨뜨리는 존재는 그 집단으로부터 질책을 받거나 추방을 당하는데 그것은 그 집단의 법이 정하는대로 시행하는 집단적 의사표현인 겁니다.

우리 인간은 민족 국가를 비롯 형성된 사회 단위별로도 깨우 미세하게 질서와 법을 구별해 두고 삽니다. 이것을 두고 만물의 영장다운 일이라고 자랑을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많은 법을 두고 살아야 하는 인간은 그만큼 더 어리석은 존재라는 말이 성립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발전이란 파괴와 혼돈의 결과를 늘려 온 역사일 뿐입니다. 자연 속에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자연스럽게 누리다

"부처님 가르침은 복잡한 세상에서도 항상 희망과 용기 북돋아 줍니다"

다음생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 것인데 우리는 자연을 연구분석해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이 갖는 질서를 변형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봤자 자연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지는 존재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며칠만 비가 내리면 물난리가 나고 몇달만 비가 안오면 한발에 속태웁니다. 산사태가 나고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어 해일이 이는데, 이 자연의 흐름 앞에 인간은 언제나 빈손 박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살아가는 법이 복잡하다는 것은 그 집단이 불행하다는 결론과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연과 동떨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로부터 제약 받으며 부자연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복잡한 사회 속에서 무수히 복잡한 일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질서와 규율 그리고 법을 생각치 않으면 안됩니다. 남에게 해를 입혀서도 안되고 자신이 손해를 봐서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복잡한 세상이 희망이 없는 곳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무리 복잡한 세상에서라도 항상 밝고 건강한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는 귀의해 실천할 위대한 법이 있음을 알기에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 세상을 희망으로 살수 있는 길을 얘기해 봅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 주변의 자연과 잘 어우러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 이웃과 잘 지내는데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나의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것, 다시말해 언행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약산의 유엄선사를 찾아가 평소 궁금해 하던 것을 물어 보았습니다.

"스님 〈법화경〉 관세음보살품에 보면 흑풍이 배를 밀어서 나찰 귀신의 나라에 떨어뜨린다 했는데 이 말의 뜻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고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엄선사는 다짜고짜 큰소리를 지르며 이고를 야단치는 것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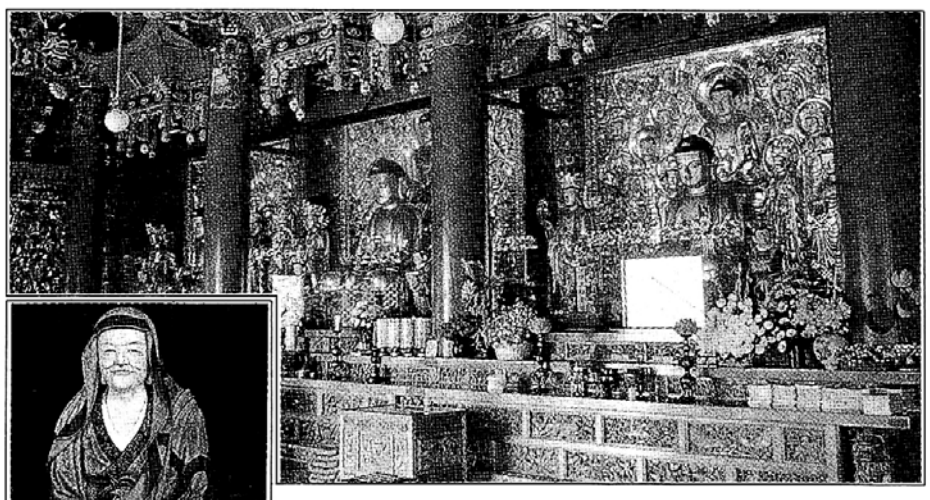
"너 이놈, 이고야. 그대 같이 어리석은 소인이 그런 것을 어찌 알아서 내게 묻는 것인가. 또 그 이치를 알아서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그대가 지금 모른다고 내게 물은 그것을 설령 내가 가르쳐 준다 해도 아마 그대는 잘 알지 못할 터인데."

이고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도가 높기로 소문이 난 스님이라지만 한 순간에 자신을 멸시해 버린 것이 못내 속이 상했던 것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감히 누구에게 그따위 말버릇이냐고 호통을 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상대가 유엄선사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속에서 불 같이 솟아 오르는 화를 어쩌지 못해 이고는 얼굴만 울그락 붉으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엄선사가 빙그레 웃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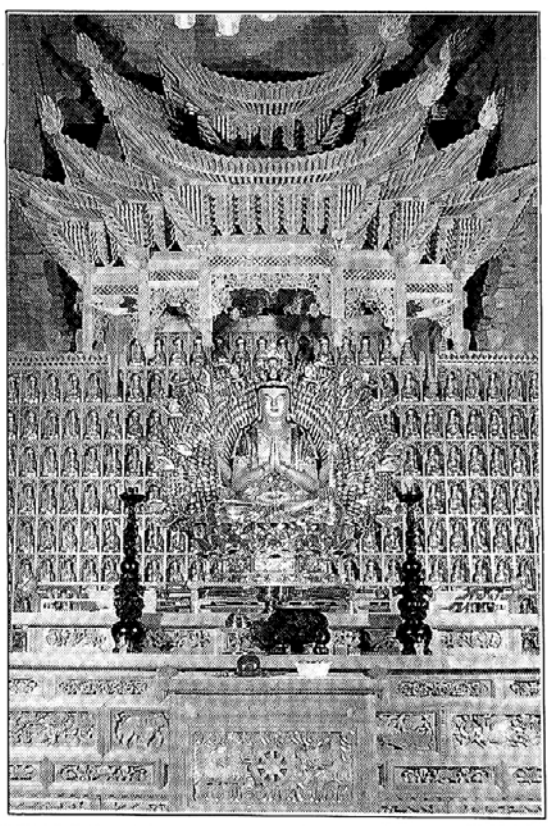
"너무 노여워 마십시오. 지금 선생께서는 저의 방자한 말 때문에 크게 화가 나셔서 진심(瞋心)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선생의 얼굴 표정이 마치 나찰 귀신 같고, 저를 원망하심이 바로 흑풍이 일어나서 배를 나찰 귀신에게 떨어뜨린다 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지상법석

사바세계 극락 만들어요”

“이웃은 또다른 나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기쁘게 해야지요”

유엄선사의 말을 듣고 나자 비로소 이고는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잡다한 말로써가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 가르침을 준 유엄선사에게 깊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나 증오는 곧 그 사람의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 오른다든지 호흡이 거칠어지는가 하면 눈도 충혈되고, 온몸을 부르르 떨기도 합니다. 이렇듯 변한 우리의 모습이 바로 나찰 귀신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일단 화가 나면 대부분의 경우 이성을 잃기 십상입니다. 평소와는 달리 거친 욕도 하고, 심한 경우 폭력을 휘두르는 이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나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나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나찰이나 야차 같은 귀신들이 결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분노로 일렁이고, 욕심으로 한없이 요동을 치고 있을 때 내가 바로 야차요, 나찰인 것입니다. 또한 이같은 분노와 욕심이 맘껏 채워지지 않아 속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얼굴이 달아 오르고 호흡이 거칠어져 괴로우니 그것이 바로 지옥의 상황과 꼭 같습니다. 말 한마디일지라도 평상시의 행동들도 항상 바르게 선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안애어(和顔愛語)란 말이 있습니다. 온화하고 자비로운 표정과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씨로 수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온화한 표정은 몸으로 짓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드러운 말씨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들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을 잘 다스림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첫걸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물결이 잔잔한 호수는 사물을 본래 모습 그대로 또렷이 비추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 삶도 평온하고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결이 일렁이듯 마음에 탐진치 삼독심이 생겨나면 더이상 삶은 행복스러울 수 없습니다.

“나쁜 말, 이간하는 말을 좋아 하여 남의 과실을 들추어내는 사람은 모든 악을 짓게 된다.”

〈화엄경〉의 한 귀절입니다. 농담이 진담된다고 합니다. 행여라도 나쁜 말을 하여 쓸데없이 악업을 지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더러 친한 친구 사이니까 이해를 하려니 여기고 심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얼마간은 장난으로 서로 거친 말을 주고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오해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긴 오해는 또 자신들도 모르는 새에 눈덩이 불어나듯 커져 끝내는 우정을 깨뜨릴지도 모릅니다.

더러 장난 삼아 욕지거리를 하는 이들도 봅니다. 다소의 위트를 섞어 짓궂게 해대는 그런 말들이 어느새 습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덕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릇이 없다거나 예의가 바르지 못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된다면 이 역시 크게 잘못된 일임에 분명합니다.

〈보살본업경〉에 보면 이런 귀절이 있습니다.

“차라리 진실한 말을 해서 적을 만들지언정
비위 맞추는 말을 해서 친구를 만들지는 말라.
차라리 바른 말을 해서 고통을 만들지언정
그릇된 말을 해서 즐거움을 얻지 말라.”

항상 명심해 들어야 할 가르침입니다. 무릇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우리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댓가는 언제고 반드시 치루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이치가 이럴진대 말 한마디인들 섣불리 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 했습니다. 이왕이면 아름다운 말, 좋은 말로 우선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혹 화가 나거나 짜증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순간을 잘 참아 스스로 나찰로 떨어지고, 지옥을 겪지 않도록 항상 애써야겠습니다. 화안애어(和顔愛語)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더 실천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찬탄(讚歎)’입니다. 몸가짐을 밝게하고 좋은 말을 하는 삶 가운데 항상 찬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찬탄은 맹목적인 추앙과 찬양이 아닙니다. 찬탄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경의와 기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사는 이웃과 모든 자연 환경에 대한 겸손과 감사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찬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만스럽고 자기본위의 삶을 살뿐 이웃과 자연을 생각할 줄 모릅니다. 그것은 중생계를 지옥계로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중생계를 극락으로 가꾸길 발원한 부처님의 제자들이니 늘 찬탄하며 사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찬탄도 생활 속의 수행일 수 있습니다. 찬탄하는 삶은 즐겁습니다. 나 혼자 즐거운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모든 중생이 함께 즐겁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찬탄해야 하겠습니까. 제불보살님을 찬탄하고 나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중생을 찬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인색합니다. 생각해 보면 살아가는 순간순간 감사해야 할 일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단지 감사해야 할 일만 많은 것이 아니라 찬탄으로 감사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온 몸이 원만하게 갖춰진 것도 사계절이 순조롭게 변화해 가는 것도 우리는 찬탄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리를 거스르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 첫마디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날마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좀 바꿔 봅시다. 찬탄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자는 겁니다. 어제의 피로를 말끔히 씻고 새로운 하루를 맞았으니 참으로 좋은 아침인데 어찌 감사의 말 한마디가 아깝겠습니까.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불보살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법(佛法) 지키며 선업만 짓겠습니다”라고 말해 봅시다. 불보살님을 찬탄하며 내 삶의 바른길을 뚫어나가는 이 한귀절의 말로 여러분의 삶은 무한히 즐거워 질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교도소를 찾아다니며 재소자 포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재소자들에게도 늘 ‘좋은 업은 좋은 업을 낳고 나쁜 업은 다시 나쁜 업을 낳는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나쁜 업 하나씩을 짓고 교도소라는 공간에 들어 온 사람들이지만 그중에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자신의 내일을 위해 찬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죄업을 씻어내는 선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만나 제불보살에게 찬탄의 감사를 아끼지 않는 그들은 이미 새 삶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도 찬탄해야 합니다. 내 이웃은 또다른 나입니다. 이웃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하고 이웃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에는 이웃의 삶이 어느정도 포함되어 있으니 그들을 찬탄하며 그들을 기쁘게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환하고 즐거운 빛으로 남을 대하고 정과 사랑이 담긴 말로 대화하고 찬탄으로 겸양을 드러내는 삶의 자세를 지니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바계는 즐거운 땅, 극락이 될 것입니다.

‘身口意 다스림’ 깨달음 얻기위한 수행 첫걸음
분노일어나 이성 잃은 모습 나찰 귀신과 같아

> “제불보살님 감사합니다
> 오늘도 선업만 짓겠습니다”
> 찬탄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 매일 새 삶의 주인공 됩니다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81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18)

시고공중무색…

거시세계 법칙 실제아닌 평균값 현상
보이는 세계 진리와 다른 환상에 불과

지금까지 현대물리학의 입장에서 반야심경이 설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물리학적 물질관이 심경을 그대로 뒷받침한다고 하였는데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가지 큰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현대물리학의 바탕이 되는 양자역학(量子力學)이 다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시적(微視的)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일상세계에서 경험하는 거시적(巨視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그것이다. 사실 경험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고양이를 상자속에 집어넣고 실험을 해봐도 삶과 죽음이 반씩 섞인 고양이를 본다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물리적 진공에서 입자와 반입자가 생성될 수 있고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립자 물리학에서 다루는 미시적 세계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거시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과는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다. 물론 거시적 세계에서는 태양이나 지구같은 별이 진공에서 생성되는 법도 없고 소멸되는 법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시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보다 더 본질적이다. 미시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이 현상을 설명하는 물리학적 법칙과 원리로써 미시적 세계도 설명할 수 있고 거시적 세계도 설명할 수 있는 반면에 거시적 세계를 잘 설명하는 고전역학으로는 원자의 세계나 소립자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단순논리로써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이중성이 미시적 세계에서는 나타나지만 거시적 세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정말 나타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오관으로 알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개의 파동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밝고 어두운 무늬가 거시적 세계에서도 나타나지만 밝고 어두운 무늬의 간격이 너무 좁아서 우리 눈으로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우리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점의 크기가 대략 0.1mm라고 할때 0.1mm의 폭은 밝고 다른 0.1mm의 폭은 어둡다는 식으로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반복되면 우리 눈으로 볼 때 명·암이 교차되는 띠로 보이지만 0.1mm의 폭에 100개의 밝은 무늬와 어두운 무늬가 교대로 반복되어 있다면 우리 눈은 이 중 하나하나를 볼 수는 없고 평균적인 값에 해당하는 희미하게 밝은 무늬를 보게된다. 그렇다. 미시적 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대로 거시적 세계에서도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평균값에 해당하는 현상만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부터 선승들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환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던 것이다. 평균값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 아니다. 학생들이 받은 성적의 평균을 말할 때 100명은 50점 나머지 100명이 70점이라면 평균점수는 60점이 되는데 이 60점이라는 점수는 누구도 받은 적이 없다. 학생들은 50점과 70점만 실제로 받았는데 외부에 발표할 때는 60점이라고 발표한다. 우리가 보는 거시적 세계란 이 거시적 세계의 바탕을 이루는 미시적 세계의 현상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타내 보이는 평균적인 모습에 불과하다. 거시적 세계란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재미있는 것은 미시적 세계의 현상을 합쳐서 평균치를 내면 이 평균치들은 일정한 법칙을 나타내 보이는데 이 평균치들이 보여주는 법칙이 바로 고전역학에서 말하는 고전역학의 법칙들이다. 여기에는 하나의 예외도 없다.

진리를 본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시고공중무색…”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즉시색이라고 할 것도 없이 색(色)이 없다고 경은 설하는 것이다. “시고공중무색(是故空中無色)…”이것은 거시적 세계가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시적 세계는 존재하는 것이고 그것은 색(色)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도 않다. 우주마저 진공에서 나왔다면 그대로 무색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대 원 불 교 대 학

학생모집

(2년제 야간 전문 과정)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가을학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 교계 최고의 강사진

■ 모집학과 : 불교학과 출강과정 ○○명
통신과정 ○○명
연구과정 ○○명

■ 지원자격 :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자
연구과정은 교양대학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되는자

■ 강의시간 : 출강/통신 - 주 5일 오후 7시~ 8시 30까지
연구과정 - 주 2일 오후 2시~4시까지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6년 8월 31일까지

■ 교 과 목

1학년	2학기	불교입문	화엄사상	밀교사상	선학입문	정토사상
2학년	2학기	의식실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및 종교학	원전강독 Ⅱ
연구과정	2학기	구사론, 법화경, 정토3부경, 금강경, 육조단경을 매학기 2과목씩 강의				

◇과목은 사정에 따라 약간씩 변경될 수 있음

■ 특 전 : 졸업후 ㄱ. 포교당 개설시 지원 가능
ㄴ.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ㄷ.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주소 : 140-190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귀의삼보하옵고
불교인의 인연을 원하시는 불자님!

모든생은 좋은 인연으로부터 행복이 시작 됩니다.

기다림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안타까운 불자님!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신심 깊으신 불자님들의 자녀를 위하여 훌륭한 배필을 만날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주선해 드리겠습니다.

소중하고 진솔한 삶을 영위하실 재혼도 환영합니다

♣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자임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 (02) 634-4910 ~ 2

서울불교산악회 동참안내

산행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불심을 키워가는 불자들의 모임이 「대한불교산악회」로 전국적인 연대조직을 구축함에 서울지역에 산재한 불교산악회 연합모임을 결성코저 하오니 뜻있는 단체와 일반 법우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참가자격 : 불교산행모임 및 개인
◇연 락 처 : 서울불교산악회(가칭)

금강메아리 : 554-4449 김대원
불이산우법회 : 556-0678 유재근

※ 부산불교산악회 : (051)464-2020
대구불교산악회 : (053)743-2554
성남불교산악회 : (0342)46-3871
광주불교산악회 : (062)375-7633

고은 불교대하소설

꿈속의 그들 ②



그

심술궂은 농부는 아주 구리빛 근육으로 다져진 40세가 넘는 사내였는데 삐쩍 말라붙은 본처 이외에도 두 여자를 소실로 삼아 낮에는 실컷 부려먹고 밤에는 번갈아 가며 색정의 노리개로 삼고 있었다.

그런데도 이번에 저 윗쪽 강 기슭에서 강물의 범람으로 부모와 집을 잃은 고아 출신의 소녀가 그곳에 이르러 농부네 오이 하나를 따 먹다가 붙잡혀와서 그 값으로 농부는 소녀의 첫 사내가 된 것이었다.

앞으로 하루에 밥 두 끼니를 먹여 준다는 조건으로 그 세번째 어린 소실도 낮에는 앞에 혹사당하고 밤에는 한동안 다른 소실의 방에 가지 않는 그 농부에게 늘어붙어 있어야 하였다.

바로 이 소녀의 뱃속에 만화는 농부의 씨로 들어간 것이다.

우녀의 꿈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불이와 합두가 돈황 막고굴에서 지내는 동안 그곳에 산해를 정한 사막의 패강도들에 의해서 노예나 다름없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 다행히 불이는 합두를 남장(男裝)으로 속여서 주방의 요리사로 일하게 만들었다.

만약 그곳에서 합두가 여자로 알려지는 날 그녀는 그 거칠기 짝이 없는 사내들의 색욕이나 풀어주는 대상 밖에 될 수 없었다.

우녀의 꿈 속에는 합두가 주방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번철(燔鐵)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하는 광경이 역력하게 보였다. 그런가 하면 불이는 그의 시(詩)의 속업과는 달리 병든 말을 치료하는 마굿간의 일을 돌보는데 우녀가 본 광경은 병든 말이 더 이상 회복할 가망이 없다는 마굿간 우두머리의 판정을 받은 말을 불이가 데리고 가서 사막 한 복판에 놓아두고 돌아서는 것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말이 혼자 죽어가야 하는 그 사막을 떠나면서 말의 신세나 그 자신의 신세를 함께 생각하며 눈물짓고 있다가 멀리서 한 떼의 말발굽소리와 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에 놀라 재빨리 그의 처소로 돌아가고 있었다.

슬픔이라는 것도 슬퍼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죄승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는 일도 그럴 시간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마굿간의 한 지저분한 일꾼이 된 불이는 그가 다른 생(生)에서 추구한 고상한 시나 정감있는 문장 따위와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검댕이 얼굴에 삼거지의 낡은 옷이었다. 그런 옷에 말똥이 묻어 있었다.

굳이 그런 옷차림의 나날을 바꿀 생각도 없었다. 어쩌다가 눈두덩이 퉁하게 개진 상태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주방에 들어가 합두를 슬쩍 만나 양의 고기 한점을 얻어먹고 나올 뿐이었다.

그들은 전생의 모든 품위있는 일들이 어떡자고 이 막고굴의 인연 끝에 그토록 처참하게 되었는가를 그들 스스로 새겨볼 수도 없었다.

우녀는 꿈 속에서 그런 도반들의 괴로운 모습을 보고 엉엉 울다가 꿈을 깬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남각은 어찌 되었을까.

무전과 파현은 또 어찌 되었을까.

수원은, 수월은 어찌 되었을까.

끝내 우녀는 인담에게 꿈 속의 일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욕도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받는 윤회의 사정이 그런 참담한 것이라면 굳이 이곳의 수행이 이대로 지속될 명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다른 세상에서 그런 대우로 살아가야 하는 과보라면 무욕도에서 떠난 뒤의 세상이 계율렀거나 어리석었거나 한 까닭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무욕도의 정진이 이루어 놓은 어떤 힘이 남아 있을 것이 아닌가.

우녀는 그녀 자신의 공부에 대해서 회의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그녀가 꿈 속에서 옛 도반들의 괴로움이나 볼 수 있는 수행 밖의 일에 놀아나는 것 자체가 바른 행(正行)이 아니었다.

인담이 그녀의 말을 듣고난 뒤 말하였다. 마치 소가 맛없는 풀을 억지로 먹는 것처럼.

"우선 그런 꿈같은 것을 없앨 일입니다. 어찌 도인이 꿈한테 좌우 된답니까?"

"내가 삿(邪)되어서 그럴까요?"

"정(正)이고 사(邪)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우녀도인의 마음이 좀 어지러워서일 것이오."

"어찌하면 좋아요."

"어디 육지에라도 한 바퀴 돌고 오겠오. 휠훨 나비시늉을 하면 그런 꿈조각이야 다 떨어져 나갈 것이오."

"함께 갈 수 없겠습니까?"

"……."

"내가 간다면…이번에는 혼자 다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녀도인도 꽤 달라졌구려."

"……."

"아무래도 새로 온 사람들도 더 이 도량에 길들여져야 하고…내가 그들에게 한 가지씩이라도 더 익혀두어야 할 때인지라…이곳을 떠나가에는 주저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고간 뒤에도 우녀는 제 시간에 가부좌로 앉아서 아무런 일도 없는 광상심 그대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두 사람의 얘기로 무엇 하나 해결된 일은 없으나 그 얘기 자체만으로 해결할 일이 흐지부지된 것 같았다.

인담도 인담대로 그의 팔과 다리처럼 익숙한 정진시간을 지킬 따름이었다. 이런 판이라 대해나 소석행자들도 점점 아픈 곳이 나아가는 환자처럼 이 무욕도의 생활에 갇히지 않은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처음으로 이 막막한 섬에 상륙했을 때의 본능적인 두려움은 이 섬의 모든 곳과 바다를 두리번거리며 확인하는 일이었으나 이제는 그들의 눈에 어떤 종류의 두려움도 없었다. 지난번의 천둥번개에도 정작 그들은 색다른 긴장 뿐이었지 그것이 어떤 공포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다만 대해가 바위로 울타리가 쳐진 곳에 가서 일 끝의 목욕을 할 때 거기에 갔다가 놀란 소석행자가 며칠동안이나 대해와 말을 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처지가 된 일 밖에는 이곳의 파도 소리는 어떤 사건도 일으키지 않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녀가 아무리 그녀 자신의 꿈을 사절하지만 그녀의 꿈은 다시 그녀의 발을 수놓고 있었다.

심자어는 꿈 속에서 꿈을 물리치는 그의 자신이 끝내는 꿈 속에서 물리치는 일을 포기하고 마는 것이었다. 꿈이란 무엇인가. 전생이나 내생의 거울 한 쪽인가. 아니면 아무런 소리도 없는 메아리인가. 아무런 실체도 없는 그림자인가.

꿈이란 말이 있을진대 꿈이 있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다.

어느날 꿈 속에서 우녀는 천제라(闡提羅)였다. 말하자면 여자의 성기가 없는 여자인 것이다. 그녀는 오줌을 참고 고개를 넘어가다가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고개너머 풀숲으로 들어가 오줌을 누려고 한쪽 그 오줌이 나올 구멍이 없었다.

그녀는 그 때문에 놀라서 마구 소리를 지르려 했으나 소리가 나올 입이 없었다.

이런 절망 끝에서 그 꿈을 깬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온몸이 진땀으로 덮여있었다. 방의 여기저기를 꿈 속에서 헤매었는지 문짝을 잡고지 않은채 닫은 것이 발길에 채여 찬바람과 파도소리가 방안을 채워 그녀는 끝내 감기가 들어버렸다.

감기는 며칠동안 계속되었다. 그 감기를 앓는 동안 낮에도 비몽사몽으로 옛 도반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무전은 바다에서 사는 짐승이 되었다가 다시 육지의 짐승이 되어 있었다. 그는 곰이었던 것이다. 아주 늙은 곰이었다.

그런데 다른 곰과의 영역(領域)을 다투는 일을 몇달동안 계속하고 있었다.

어떤 지역도 아무런 짐승이나 나타나 그곳을 차지하지 못한다. 같은 종류의 짐승일지라도 그럴 수 없다. 그런데 잔짐승이 많이 있고 나무도 빽빽한 그 영역은 오랫동안 늙은 곰 무전의 영역이어서 그 어떤 놈도 넘보지 못할 곳이었다.

한번 제 오줌이나 냄새를 묻혀 놓으면 그 경계를 넘어 침범하는 짐승은 있을 수 없다. 한번 큰소리로 울부짖어 놓으면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은 아무것도 다가올 수 없다.

그런데 이번에 나타난 불곰 한놈이 감히 무전에게 한두번 대들어 보았고 이어서 그런 시험 끝에 정식으로 무전의 경계를 넘어 들어왔다.

그리하여 두 곰은 사흘도 넘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어뜯고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마구 들어올려서 내던지는 격투를 이어갔다.

양쪽 다 피투성이가 되었고 지쳤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숨차서 조금이라도 약세를 보이면 상대방이 달겨들어 앞발로 쥐어박고 뒷발로 치는 것이었다. 벌써 새로 침범한 곰은 이빨 두어개가 몽땅 부러져 나갔다. 그것은 늙은 곰 무전이 훨씬 사납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사흘 낮밤이 지나자 끝내 늙은 무전은 뱃구리에 무지막지한 한대를 얻어맞은 뒤 벌렁 나자빠져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울음소리는 강한 자의 위엄이 아니라 패배자의 비통한 체념이었던가. 그는 한번 더 불곰의 공격을 받고 거의 죽어버린 상태로 네 다리를 쭉 뻗어 굳어졌다.

불곰이 지치기는 했지만 그 늙은 곰을 살피더니 저 산꼭대로 달려올라가 가장 큰소리를 질러 온 골짜기를 뒤흔들었다.

이를테면 새로운 나라를 세운 자의 선포였다. 모든 짐승이나 나무와 풀 그리고 흐르는 시냇물까지도 소리를 죽였다.

불곰의 우렁찬 절규는 몇번 더 계속되었다. 바로 그 소리에 정신이 살아난 늙은 곰 무전은 가까스로 제 죽어가던 몸을 추

> "강도들의 노예 늙은 곰… 무욕도 도반들의 윤회는 참담 하였다"

"도인이 어찌 꿈에 좌우됩니까" "내가 삿되어서 그럴까요"

스

미

산

89

그림 · 조향숙

壯元 생엿

새 영양물질 발명! 생엿, 그냥 엿이 아닙니다. 동양철학의 결정체입니다.

건강보조 식품계의 대혁명



바다의 나트륨성분과
육지의 칼륨성분을 추출한,
독특한 영양물질 탄생!

▶ 인체의 건강은 음성원소군(대표자 칼륨)과 양성원소군(대표자나트륨) K/Na의 조화에 의하여 유지됩니다.
▶ 인체의 질병은 체질의 산성화로 냉(冷)한데에 있습니다.
▶ 장원생엿은 두원소의 비율을 조절하는 영양식품으로 100%순수 식물로 구성된 한방식품입니다.

1개월분 표준가격 : 280,000원

壯元 생엿 장원 생엿!
이런분께 소개합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신경통으로 고생하시는 분!
⊙남녀 40세 후반부터 생기는 여러증상으로 고민하시는 분!
· 얼굴색이 누렇고 피부가 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다.
· 검버섯이 생기고 원인모를 두드러기가 자주 일어난다.
⊙뼈가 시리고 몸이 무겁고 손발이 차고 저린 분
⊙산후 비만으로 고민하시는 분!
⊙과다 체중으로 고민하시는 분!
⊙피로에 지친 수험생!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장인 여러분!

21세기 건강식품
☆장원……으뜸 일등 제일
☆생엿……생약 재료 엿처럼 만든것
☆건강……장원 ☆장수……장원
☆미용……장원 ☆행복……장원
☆공부……장원

연구개발원
인강당 생약 연구원
제조원 : 남광산업주식회사
판매원 : 불 교 건 강 원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2동 384의 10

상담실 (051) 465-5100

☎전화주문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배달하여 드립니다

천불천탑 만들기·문예 한마당·인연맺기·선재 모험놀이등

청소년 캠프 새 프로 다채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와 신심증장을 위한 '캠프 및 여름불교학교'에서 불교적 내용을 소재로한 전문 프로그램이 실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국의 각 사찰과 포교원을 비롯 청소년 단체에서 마련한 이번 여름프로그램의 특징은 천편일률적으로 실시됐던 예년과는 달리 불교전문프로그램들이 정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캠프 및 여름불교학교의 프로그램들이 불교사상만은 강조하는 주입식교육이나 일반프로그램을 그대로 답습했던 것에서 탈피, 불교적 내용을 소재로 흥미와 재미를 갖춘 프로그램으로 포교적 성과를 이끌고자 했다는 점이다.

금년 캠프에서 큰 관심을 모았던 프로그램은 천불천탑만들기, 불교문예한마당, 선재동자 모험놀이, 민속놀이, 풍물특강, 사찰순례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천불천탑만들기는 참가자들이 스스로 불교조각가가 되어 불상과 불탑 등을 직접 만들어 봄으로써 불교조형물의 우수성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프로그램이다.



◇불교적 내용을 소재로하는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파라미타 연합캠프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천불천탑을 만들며 불심을 다졌다.





「청년회 입문안내서」 발간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청년회원들의 신행진작과 불교에 처음으로 입문하는 청년들을 위한 〈불교청년회 입문안내서〉를 펴냈다.

이번에 발간된 불교청년회 입문안내서는 그동안 청년불자들에게 걸맞는 통일된 교재가 없었다는 점에서 청년포교불사에 한 몫을 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전국의 각 불교청년회에서 쓰이고 있는 교육교재, 불교교리, 의식, 불청활동사등을 토대로 발간된 이 입문안내서는 총10장 신국판 2백72쪽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이책은 대한불교청년회 소속 각 지구·지회 회원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02)720-7060~4

극기훈련·생태계조사등 체험위주 진행

"재미도 있고 불심도 함양" 신세대 '호응'

이 프로그램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찰흙을 소재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맘껏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 청소년들의 불심함양과 심성계발에도 좋은 기회가 됐다는 것이 지도자들의 평가다.

이는 그동안 교리나 염불, 절, 참선 등의 의식배우기만을 강조했던 것에서 흥미와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는 놀이문화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 따라서 청소년불자들이 흥미와 재미를 느끼면서 적극 참여하게되고 미침내 불교에 대한 관심을 이끌고자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학부모들의 반응 또한 매우 좋다는 것이 주최측의 얘기다.

이처럼 금년 캠프의 프로그램은 신세대들의 성향에 맞는 프로그램이 대폭 강화됐고, 실내라는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야영, 답사, 극기훈련, 생태계조사, 의상만들기, 음식문화배우기 등 현장체험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밖에도 인연맺기(야영매듭), 천수천안(응급처치), 선재동자놀이(OL게임), 불꽃놀이, 레크리에이션 등은 기존의 일반프로그램을 불교식으로 변형해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전국의 각 사찰에서 '캠프' '불교학교' '수련회' 등을 통해 방학을 새싹불자 포교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구체적인 원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소년불자연합 파라미타 연합캠프의 프로그램을 준비한 이병두씨(파라미타 사무국장)는 "캠프나 수련회에 참여하는 어린이들 대부분 '불교는 어려워' '재미없어'라는 대답이 많았던 것이 간과할 수 없는 교계의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금년에 실시된 프로그램은 초보적인 단계지만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한다는 새싹불자포교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다더 어린이들의 정서에 적합한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키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설립과 지원이 선행되야한다는 것이 청소년지도자들의 지적이다.

김중근 기자

여름캠프 참가 초등학생 소감문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의 각 사찰과 신행단체에서 주최한 여름캠프가 어린이·청소년들의 호응속에 다채롭게 실시됐다. 이가운데 본사에 보내온 초등학생 2명의 소감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유적답사·민속놀이 재미있어요"

저는 문화재에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경주에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배려로 이번 캠프에 참석할 수 있게 돼 매우 기뻤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 윤식이가 있는데요. 윤식이는 천주교회에 다니지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같이 왔는데 짜증을 내지도 않고 너무너무 즐거워해 윤식이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감싸 주셨나 봅니다.

이번 선재어린이 전래놀이 캠프는 내가 원하던 유적답사도 하고 민속놀이도 하고 생전 처음해보는 발우공양도 해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부여 역사캠프, 지난해 겨울 불교캠프도 가보았지만 이번처럼 재미있었던 캠프는 처음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친구들을 사귈수 있었습니다. 경주 기림사에서 했던 전래놀이를 개학하면 친구들에게 자랑할 생각입니다.

〈김성택·서현초등 5〉

"금강경 읽다보니 마음 편해요"

부처님께!

부처님! 요즘에도 바쁜 것 같군요. 저는 여름불교학교에 오기 전에는 많이 울었어요. 첫날 여름불교학교에 와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미륵존여래불'하면서 마음을 바치고 나니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울지 않겠습니다. 부처님 지켜봐 주실거죠?

집에서 보다 〈금강경〉을 더 열심히 읽었고, 올라오는 마음을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더 잘 했어요. 그런데 부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제가 생각하기론 〈금강경〉을 잘 읽고, 미륵존불 하고,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이번 2박3일동안 부처님 덕택에 잘 지냈어요. 집으로 가면 누나말 잘 듣고 부모님 잘 모실거예요. 그리고 보통때보다 금강경 더 많이 읽고 부처님이 세상 곳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리겠어요.

〈정 익·대도초등 3〉

만 화

法句經 법구경

* 애착의 장 *
지혜로운 이는
무겁고 풀기힘든
그런 속박을
강하다고 한다



이 항 원



현대불교신서5

반야심경 해설서의 새로운 地平
현대인을 위한

반야의 가르침

송지호 글 / 신국판 / 420쪽 / 6,000원

친근하면서도 어려운 반야심경.
260字가 품고 있는 비의를
현대인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만나 보십시오.
한 소식 들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경전해석을 축으로 하고 풍부한
예화(例話)와 적절한 인용을 곁들여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 엮은
반야심경 해설서.

저자 송지호씨는
군산수산대학 교수로 지내셨고
현재는 금당사 법사로
포교활동에 전념하시면서
경전을 쉽게 해석하여 널리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계신다.

현대불교신서
1. 운수사리소설 마하반야다라밀경
2. 대장부론
3. 법화경 강설
4. 육묘법문
5. 반야의 가르침
6. 반야경(가제) 〈근간〉

불서전문출판
대흥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18(수성B/D 101호)
TEL 738-6270, 735-7202 FAX 733-1016

-우학스님 수필집-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이 시 대 베스트셀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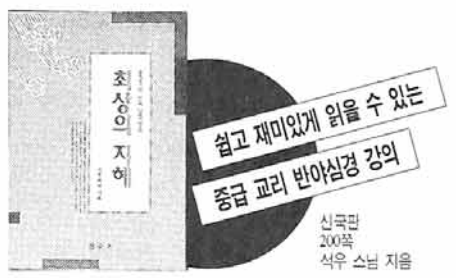
-나오는 내용-
동성연애자의고민
선방·강원·토굴이야기
귀신의 장난
가정우환 소멸법
영가천도
정력 … 비법
이성을 사로 잡는법
잉꼬부부
출가의 험한 길
정통불교 수행
산중의 스트립쇼
죽음이후의 세계
영원한 사랑을 하려면
큰 스님의 경책

-좋은인연의 책들-
1 새로운 불교 공부 (불교 기초교리 강의서)
2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 (어린이 및 초심자 교리 문답서)
3 불자수행지침서 (신도 신행 의식집)
4 불교한자공부·사경및 해설 (금강경·천수경·반야심경·법성게·화엄경약찬게·예불문·아미타경)
5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가까운 서점에서 찾으세요
도서출판 좋은인연(053)475-3706-7)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주·야간 9월 개강) (053)474-8228

관음손



최상의 지혜

진리를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낫고
아는 것보다 깨닫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혹시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책을 통하여 바르게 이해하길 바라며, 불자이면서도 아직 가슴 저 밑에서부터 들려 오는 깨침이 오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일어나길 바라고, 깨달은 경험은 있으나 깨달은 바대로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진정한 구도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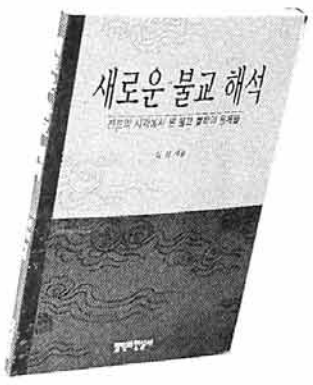
관음손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30번지 / 전화 : 720-1147~8

"칸트철학으로 불교접근 가능"

김진 울산대교수 '새로운 불교해석' 펴내

'자아통일·자유·보살도' 최고선 실현조건

무아설-윤회설 모순 '요청이론' 통해 해소



서양철학의 대명사인 칸트철학으로 불교를 해석할 수 있을까.

울산대 철학과 김진교수는 '칸트의 시각에서 본 불교철학의 문제들'이란 부제를 단 〈새로운 불교해석〉(철학과현실사 刊)이란 책을 통해 칸트의 '요청적 사유 방법론'이 부처님의 사상을 새롭게 해석하는데 대단히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진씨

이 책은 불교적 세계관에서 제기되는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가능성 조건이 무엇인지를 칸트의 '요청적 사유 방법론'을 통해 탐색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그렇다면 요청적 사유방법이란 무엇인가.

김교수는 칸트의 실천이성적 변증론의 과제는 '어떻게 최고선(最高善)의 실현이 가능한가'란 물음으로 집약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처럼 칸트철학에서 최고선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명제가 바로 '요청 명제'이며 칸트가 설정한 세가지 요청 명제는 '영혼의 불멸성', '자유', 그리고 '신'이라고 설명한다. 즉 칸트는 도덕법의 확실한 정초를 위해 최고선의 실현 가능성을 위한 조건들을 찾아보려고 시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요청 이론'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적 문제를 '무아설'과 '윤회설' 사이의 모순에서 찾는다. 이 모순은 무아설이 모든 가능한 '자아' 개념을 부정하고, 윤회설이 도덕적 실천과 종교적 구원의 '주체'를 전제하는 사실에서 발생한다고 파악한다. 이로부터 다시 무아설과 윤회설에서 '자유' 개념이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불교적 최고선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같은 세가지 난문을 해결하기 위해 김교수는 불교를 칸트의 요청적 사유 방법론으로 새롭게 해석할 것을 제안한다.

김교수는 이 요청 이론을 통해 불교의 세가지 모순을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 있다. 첫째, 다르마(法)이론과 카르마(業)이론에서 본 무아설로부터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모순은 항상 존립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자아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이론적 명제를 요청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둘째, '자유' 개념을 중심으로 다르마적 세계 해석과 실천적 구원론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순은 진지(眞知)로부터 자유롭게 결단할 수 있는 '진아(眞我)의 자유'가 요청된다. 셋째, 열반을 통해 도달한 신성성과 그에 부합되지 못한 행복사이에서 발생하는 번민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살들이 함께 고통에 참여하는 '보살도'에 의한 니르바나(涅槃)적 세계 질서의 무한한 확장이 요청된다는 주장이다.

김재경 기자

출판화제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편 3권

가산불교연구원 개관 5년 기념출판



◇지관스님

왕족으로 출가해 천태종을 개창한 의천스님의 비문 및 묘지명 3편과 금산사 혜덕왕사와 단속사 대감국사 비문과 풍수지리에 능했던 옥룡사 선각국사의 비문 등 고려중기의 문화와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성과물을 담은 책이 나왔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 이사장 지관스님은 연구원 개원 5주년에 맞춰 '한국불교금석문 교감역주(校勘譯註)' 시리즈 제4권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편 3권을 발간했다.

〈역대고승비문〉 신라편, 고려편 1, 2권에 이어 나온 이번 고려편 3권은 12세기에 만들어진 고려시대 고승들의 비문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고승들의 묘지명(墓誌銘)에 대한 주석작업도 사료적인 가치가 크다.

지난 91년 6월16일 개원 이후 교육 학술 출판 교화를 4대 주요사업으로 정해 눈부신 활동을 펼쳐 온 연구원은 학술과 출판을 연계해 지속적으로 출간하고 있는 금석문역주 시리즈로 고려 중·후기 고승들의 비문에 대한 교감역주 작업도 단행본으로 계속 발간할 예정이다. (02)765-9602

가정파탄 체험서 '물에 빠진…' 나와

아내가 종말론을 주장하는 광신적 기독교에 빠져 가정파탄을 맞은 한 가장이 쓰라린 체험을 바탕으로 '진정한 종교와 종교인의 생활'을 촉구한 자서전 형식의 책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박근창씨(44)의 〈물에 빠진 자 구하지 마라〉(한림刊)가 바로 그것.

아내의 잘못된 신앙생활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종교관에 의해 가정이 파괴되는 현실을 수없이 목격했다는 저자 박씨는 "더 이상 그릇된 종교관에 의해 불행한 가정들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는 신념에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말한다.

박씨는 또 인간과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종교의 탈을 쓴 범죄단체를 규제하는 '종교 규제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종교인들의 각성과 기독교의 거듭남을 촉구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저거는 맨날 고기 묵고	우 학	좋은인연
2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3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터사
4	마음을 숙이면 인생이 즐겁다	편집부	정 토
5	인간을 생각하는 다섯가지 주제	정승석	대원정사
6	한국사찰의 주련	권영한	전원문화사
7	사과꽃 떨어지면 사과 열리고	우봉규	우 리
8	영원한 대자유인	강정진	경서원
9	참선교육	현 담	수 선
10	그 마음을 바쳐라	김재웅	용 화

구입문의:(02)737-0695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펴낸 원학스님

"야부선사의 저어(著語; 경문의 내용에 선적 체험에 의한 견해를 몇 마디 덧붙인 글)와 송은 격외선구(格外禪句)로 이뤄져 있어 반야의 밝은 안목을 갖출때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금강경〉의 대표적인 주석서인 〈금강경오가해(五家解)〉 중

'금강경 야부송' 주석달아 첫 강설

야부(冶父)스님의 송을 역해·강설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을 꾸짖지 않는다〉(불지사 刊)를 펴낸 원학스님(조계사 부주지)은 선서화를 공부하면서 '금강경 야부송'에 더욱 애정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원학스님이 처음으로 주석을 달고 강설한 이 책은 야부선사의 저어와 송을 통해 〈금강경〉의 참지혜의 길을 시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불교학과 한학을 겸비한 수행자이자 선서화를 그리는 예술가로서의 섬세하고도 중후한 감성이 '금강경 야부송'을 더욱 아름답게 느끼게 한다.

성철스님의 상징처럼 널리 애송된 '산은 산, 물은 물'의 출처로 친근감을 더 느끼게 하는 '금강경 야부송'은 중국 선종의 황금시대인 송대에 나온 금강경 해설서의 백미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금강경 야부송'은 직역 위주의 번역서만 나와 있어 해독이 어려웠었다.

원학스님은 송나라 대혜 종고스님이 제상 장관 등의 사대부들에게 서신왕래를 통해 참선방법을 소상히 밝힌 '서장'을 번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재〉

선어록 읽으며 마지막 더위 '싹!'

'… 읽는방법' · 나옹 백운스님 어록등 잇달아 발간

최근 운주사(대표 임희근)가 〈무문관으로 배우는 선어록 읽는 방법〉을 펴낸데 이어 민족사(대표 윤창화)가 〈나옹스님 어록〉〈 백운스님 어록〉(무비 역주) 2권을 동시에 출간해 선어록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선어록 읽는 방법〉(추월용민·추월진인 저, 혜원 역)이 구어체 위주의 〈무문관〉 해석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어록 해석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면, 민족사 발간의 두 어록은 두 스님의 어록 중에서 참선수행에 긴요한 법문을 가려뽑아 설법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현대적인 선어록 읽기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

〈…선어록 읽는 방법〉은 〈무문관〉을 원전으로 해 직접 읽어가면서 당시의 구어와 은어 및 주해로써 문법 설명을 면밀하게 해 놓아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제시한다.

〈나옹스님 어록〉은 〈나옹화상 어록〉 가운데서 선 수행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31편의 법문을 가려 뽑고 스님의 일생을 간추린 행장을 덧붙였다. 무비스님은 "나옹화상은 이른바 '삼한의 조실'로 받들어 온 종사로 무학스님의 스승이요 서산스님의 법원(法源)으로서 스님의 법어는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눈부신 빗장"이라고 해제를 달고 있다.

〈백운스님 어록〉은 조사선의 본디 뜻을 밝힌 '조사선'과 선교·교가 다르지 않음을 밝힌 '선교통론(禪敎通論)'을 통해 스님의 독특한 선관을 보여준다. 백운스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인 〈직지심경〉의 저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임제선 연구 | 증호스님 지음

중국 임제종 사상·수행특징등 조명

화제의 책



임제의현(臨濟義玄)을 종조로 하는 임제종은 송대 이후 조동종과 함께 중국 선사상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으며, 한·중·일 동양 3국의 가장 현저한 불교사상의 한 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고려 이후 임제 문하의 종고로부터 비롯된 간화선 위주의 임제선이 사상과 수행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동국대 강사인 증호스님이 박사학위('94년) 논문을 수정 보완해 단행본으로 출간한 〈임제선 연구〉는 중국 선종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임제의현의 선사상을 본격적으로 조명한 이 분야 최고의 기본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증호스님은 "임제는 달마 육조 마조 등 위대한 선사들의 사상을 모두 섭렵하면서도 이를 초월한 지극의 경지와 활조(活祖)로서의 생의 모습을 보여준 탁월한 선사였다"고 강조한다.

〈경서원 2만원〉



◇'책방 여시아문'이 교계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통신판매에 대한 호응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전국어디든 책배달 '고객 호응'

책방 여시아문 개점2년 통신판매 총매출 20%

불교계를 대표하는 불서전문서점으로 자리매김한 책방 여시아문이 23일로 개점 2주년을 맞는다.

그간 도서회원제를 통한 통신판매와 소식지발간 무료 배포, 편리하고 쾌적한 매장 조성과 불교관련 서지정보 제공,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부다피아'를 통한 다양한 불서정보 제공 등으로 불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여시아문은 개점 2주년을 전기로 원격판매 서비스인 통신판매를 더욱 활성화 하는등 독자위주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여시아문이 불교계 최초로 도입해 실시하고 있는 통신판매 서비스제도는 우편 발송료를 전액 자체 부담하며 전국 어디든 통신으로 책을 판매해 큰 호응을 얻고있다. 처음부터 이익금보다 발송료가 더 드는 경우를 무릅쓰고 서비스를 지속해 이미 책방 총매출액의 20%를 넘어설 정도로 이용자가 늘고 있다.

매번 통신판매로 2~3백권의 불서를 다량 주문해 이미 1천여권 이상의 불서를 구입한 진우스님(전남 완도 신흥사 주지)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불서들로 조그마한 사찰도서관을 꾸미고 있다"면서 "우리처럼 산간오지에 위치한 사찰의 경우 통신판매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구매방법"이라고 말했다.

◇기사넘쳐 '명사추천 불서백선' 쉽니다.

김재웅 법사와 함께하는 금강경독송회 ! 이들의 현대적 수행담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1부 : 금강경독송회 평신도님들의
신앙체험담
생활속에서 바치는 법을 실행하며 밝은
생활을 누리시는 따스한 이야기가
봄햇살처럼 가득합니다
2부 :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
지극한 부처님 시봉과 불같은 정진에 몰두
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는 푸른 공기
처럼 우리의 가슴을 적셔 줍니다.

금강경독송회 엮음

김재웅 법사의 세번째 책

그 마음을 바쳐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네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 아닌가.
〈 백 선생님 법문에 〉

신국판 267쪽/ 값 7,500원

도서출판 용화/ 경북 영일군 흥해읍 성곡2동 1269/전화 (0562)61-2231/ 서울 연락처(02)742-0172
판매보급처/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 720-9372,9373/ 팩스 (02) 723-0646
금강경독송회/ 서울 혜화법당(02)742-0172/ 포항 우현동 법당 (0562)47-0323/ 포항 금강정사(0562)61-2231

사진으로 보는 법보시용 경전

칼라판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1
5백대원불 석가모니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2
지장경

쉽고 재미있는 생활불교 3
장수멸죄경

어떤 중생이 최 중에서 가장 무거운 오역죄를 범하였어도.
이 경을 자신이 쓰고 읽고 외우고 지니거나, 남을 시켜 쓰게만 하여도.
그 죄업에서 벗어나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살아서 선업을 맺지 못하고 악업만 잔뜩 지었다 해도.
명을 마친 뒤에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이 경으로 복을 닦으면, 업장이 소멸되어
죽은 뒤에 바로 인간세상이나 천상에 태어나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학림 엮음/신국판 칼리회보/값 각권4500원

법보시용으로 좋습니다

운주사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전화:720-9372~3 팩스:723-0646



◇치악산 구룡사 솔밭에서 열린 불교문학과 문학동호인의 만남은 불교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한 자리였다.

구룡사 '깨달음과 문학' 토론회 지상중계

상투적 불교찬사 언어보다 인류공감 '空의 문학' 되어야

「심청전」 불교사유 돋보인 뛰어난 작품

"왜 불교문학인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불교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지혜를 통해 추구되는 최상의 가치이며 궁극적인 진리 사상이라 할 때 거기에 살아 숨쉬는 호흡이 되는 것이 문학의 언어라는 것이다. 생명이며 힘의 원천인 언어가 무상의 지혜와 궁극적인 진리를 수용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어디에 서도록 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는 전적으로 불교적인 것을 받아들인 작가의 몫이다." 지난 5월 조계종 주최 불교문화세미나에서 홍기삼교수(동국대 국문과)의 '불교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발표 요지.

이러한 불교문학의 개념정립과 불교의 깨달음이 문학을 통해 어떻게 표현될 것인지를 깊이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지난 9·10일 원주 치악산 구룡사에 마련됐다.

'깨달음과 문학'이란 큰 주제를 가지고 개최된 이 행사는 오는 10월말로 마감되는 불교문학현상공모에 일반의 관심을 한층 환기시키고 현상공모가 원만히 추진되어 좋은 작품들이 많이 창작, 응모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마감 두달여를 앞두고 종단주최로는 처음으로 열려 관심을 모았다.

불교문학현상공모운영위원장 고은씨(시인)는 '깨달음과 문학' 주제의 강연에서 "종교와 문학은 불가분이며 본질적인 관계"라며 "상투적인 불교찬사나 종교적 귀의자로서의 문학보다는 '나'라는 프리즘을 통해 인류전체의 의식과 삶을 담아내는 공생의 문학, 나아가 空의 문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세기의 종교문학'을 발표한 도정일교수(경희대 영문과)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이 시대는 사상의 혼란과 몰가치의 시대"라 정의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왜 모든 중생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화두로 삼고 끊임없이 고민하면 문학의 주제로 던질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많을 것"이라 말했다.

최원식씨(창작과 비평 주간)는 '민족문학과 불교문학' 발표에서 "신라때 월명스님의 '제망매가', 조선 관소리 소설 '심청전'과 민중시인 백무산씨의 시들은 '불교문학'이란 명칭이 더없이 어울리는 훌륭한 작품"이라 주장하고 "이 작품들은 불교적인 어휘가 들어가지 않아도 완성도 높은, 불교의 깊은 사유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설명했다. 특히 효를 강조해 유교적 소설로 알려진 심청전을 잘 살피면 아미타 서방정토에 태어나길 염원하는 은유적 표현과 심봉사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맹인들의 눈뜸을 통해 중생전체의 해방(깨달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탁월한 불교문학이라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현응스님(조계종 기획실장) 설성경(연세대 국문과 교수) 노부호(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노귀남(경희대 국문학과 강사) 박일문(작가) 이문재(시인) 이호신(화가) 연기영(동국대 법학과 교수)씨 등 80여명의 문인과 문학동호인들이 참가했다.

구룡사=이경숙 기자

불교연극 '뜰앞에 잣나무'

무대에 올려진 10·27법난 인연과보 얽힌 세속 '엿보기'



◇원담스님



◇가을의 초입을 의미깊게 장식할 정통불교연극 '뜰앞에 잣나무'. 제20회 서울연극제 자유참가작이다.

9월14일부터 동숭아트센터서 공연
출연자들 연습전 1시간씩 선체조
원담스님 희곡 "시대아픔 동참계기로"

오랜 침체에 빠져있던 불교연극계에 감로수처럼 갈증을 적셔줄 정통불교연극이 오는 9월 선보인다.

지난해 '늙은 창녀의 노래'라는 연극으로 큰 화제를 모으며 관객몰이에 성공한 극단 '완자무늬'(단장 김태수)에 의해 9월 14일부터 10월 20일까지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뜰앞에 잣나무'가 그것. 화두공안중 하나인 '뜰앞에 잣나무'를 제목으로 한 이 연극은 현대 한국불교사의 최대사건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10·27법난을 소재로 해 스님이 희곡을 썼다는 점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뜰앞에…'는 10·27법난으로 인해 피폐된 어느 가정을 배경으로 종교와 권력의 관계속에서 인간과 인간, 남과 여, 상식과 비상식이 부딪치는 삶의 모습을 그린 상징적인 '심우도'.

"10·27법난의 소용돌이 속에 부서지고 황폐화되어 질 수 밖에 없는 가인과 가정의 아픔을 그리려 했습니다. 모든 인연과 행위의 시점인 욕망과 갈애는 또 다른 과보와 인연을 만들고 그 현상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 개인과 역사에서 누구도 방관자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일깨우고 싶습니다."

연출가 김태수씨는 이번 작품으로 한층 동양 특히 불가(佛家)의 사유에 빠져들었다고. 등장하는 배우들 대부분이 정통연극무대에만 서온 베테랑급들이다. 기획 초기단계부터 전 스탭과 배우가 모여 작품분석을 함께 하며 불교연극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있으며 연기 연습하기전 매일 1시간씩 선체조를 하며 마음을 가다듬고 있다. 총기획자이며 극중에서 10·27법난의 희생자 목우스님역으로 나오는 조종원씨는 8만4천배를 목표로 8월 10일 현재 5만 6천배를 돌파하며 연극의 원만회향을 서원하고 있다. 이달말 스님들로 나오는 배우들의 삭발식도 가질 예정이다.

"어느 누구도 인연과보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부처님의 사상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연극을 봄으로써 우리의 왜곡된 본성을 환원시키고 우주와 자연, 생명과 인간의 삶이 혼연일체임을 깨닫고 우리시대의 아픔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담스님(전 법주사 교무)은 출가 20년만에 부처님에게 진빚을 다소나마 갚은 것 같다며 앞으로 극단 '완자무늬'와 함께 '철학의 문고리잡기' 등 심우도 연작시리즈를 계속 무대에 올리겠다고 밝힌다.

이경숙 기자

운주문화대축제 11월 개최

화순 운주사(주지 법진)는 화순군청과 함께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운주문화대축제를 개최한다. 31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운주사 경내와 화순군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문화제에는 '불교, 인간과 예술의 만남'이란 주제의 야외설치미술전, 운주사의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학술심포지엄, 운주사 와불을 세움으로써 통일을 염원하는 의식인 와불세우기, 천불천탑세우기 등 다양한 불교관련 문화행사가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 의해 꾸며진다.



◇손연칠교수가 그린 가지산문을 개창한 초조 도의(왼쪽) 2조 염거(가운데) 3조 보조체증스님 진영.

가지산문 개창 세 선사 진영
손연칠씨 완성 보림사 '봉안'

신라 구산선문중 가지산문을 개창한 초조·2·3조인 세 선사(道義 廉居 普照)의 진영이 동국대 손연칠교수(동국대 경주캠퍼스 미술학과)에 의해 완성, 지난 9일 장흥 보림사(주지 현광)에 봉안됐다. 완성에 4개월이 걸렸다는 손연칠교수는 "통도사 금란가사를 참조하는등 고증에 철저를 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옹스님을 비롯 교계·문화재인사등 5백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대웅전 복원불사를 위한 철조비로자나불(국보 제117호) 이운식도 함께 봉행됐다.

불심시심 〈59〉

마음의 때를 씻자

暮暮朝朝不盡期 (모모조조부진기)	저녁 저녁 아침 아침 다함이 없는 시간
年光暗向此間移 (연광암향차간이)	세월은 몰래 이 틈을 타 옮겨가다
囊中縱有長生藥 (낭중종유쟁생약)	주머니속에 장생의 좋은 약이 있다 해도
鏡裏其如兩鬢絲 (경리기여양빈사)	거울 속에서 두 귀밑머리 가늘어 가는데 어쩌나
世事無窮何了日 (세사무궁하요일)	세상 일 끝없으니 어느 날에 마치며
人生有限幾多時 (인생유한기다시)	사람살이 한계가 있으니 얼마나 많은 시간인가
急須洗滌諸心垢 (급수세척제심구)	급히 모든 마음의 때 씻어 버리라
惟我彌陀百爾思 (유아미타백이사)	오직 우리 아미타불을 항시 생각하소

시간의 흐름이란 쉼이 없다. 이 쉼없는 시간의 연속을 사람들이 삶의 마디로 표시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붙여놓은 이름이 아침이니 저녁이니 하는 명사들이다. 이 아침저녁을 무한히 흐르는 시간단위 속에다 대입시킨다면 무슨 시간단위의 거리가 생기는가. 아무 의미없는 짓이다. 그저 지나가는 한 순간의 빛일 뿐이다. 암암리에 이동되고 있는 시간의 빛일 따름이다. 이 시에서 남몰래 어디론가 향한다(暗向)는 표현은 이런 면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하겠다. 누구도 모르게 이동하고 있는 해의 빛(年光)이다.

이 이동되는 해의 빛에 의하여 생로병사라는 삶의 마디가 옮겨지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외부적 물질작용으로 병들고 죽는 것으로 오판하기에 장생불사의 약이 있을 것이라 하여 그것을 구하기위해 신명을 바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약을 구했다하여 호주머니 깊이 귀히 간직하고저 거울을 들여다 보는 순간 귀밑에 늘어진 실실의 흰 올에 또다시 한탄하게 된다.

이 끝없음이라는 무한과 맞서 있는 것이 바로 끝이 있음이라는 유한의 인생이다. 우리가 이 유한의 삶을 무궁의 값어치로 대치시킬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아름다움은 없다. 그러기 위한 몸가짐이 바로 수행의 길이요, 이 수행의 길잡이가 바른 가르침을 믿는 마음자세인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마음의 진리를 찾기 위하여 허다한 선각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는 것이다.

정토의 구현을 위해 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바로 내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라 하였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아미타불을 항시 염하라는 것이다. 오늘도 마음의 때를 씻기 위하여 아미타불을 염하자.

이종찬 〈동국대 교수〉



중견화가 강행원씨(민족환경운동불교예술인연합회장)가 최근 첫 시집 〈금바라꽃 그 고향〉을 펴냈다. 지난 85년 민족미술협의회 창립멤버로 그동안 8회의 개인전을 갖는등 왕성한 활동을 해온 강씨는 이번 시집에서 '고향달' '업보' '진면목은 어디던고' 등 틈틈히 써온 시 가운데 51편을 모았다.

화가 강행원씨 첫시집 출간

'금바라꽃 그 고향' 틈틈히 써온 51편 모아

강씨는 "그림으로 다할 수 없는 회화적 조형 생명을 언어적 문자조형으로 조율하는 시도를 늘 꿈꿔 왔다"면서 "이 시들은 존재의 실상인 불성, 우주의 대 생명을 님으로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명상을 통해 거르고 걸러진 언어들"이라 말한다. 강행원씨는 오는 22일 오후2시 자택내 '윤산화선재'에서 시집출간 기념법회를 갖는다.

(02)372-4848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절터 최적지
장소 : 경남 하동군 횡천면(하동 진주 사이) 지리산 줄기,양질의 지하수 도로, 토목공사 완료
평수 : 11,460평 (평당 10,000원)
연락처 : 0346) 594-4974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소재 : 경기도 용인
사찰명: 광제사
—. 40-50대 보살님으로 사찰에서 함께 하실 분을 모십니다.
연락처 : 0335) 34-0664

보육사 모집
불우한 어린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이들을 돌봐줄 여성불자님을 찾습니다
♦고졸이상 학력자
연락처 : 0345)498-5326
송 암 동 산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단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단집, 범상등외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단집외 등
구로동 원음사 : 불단, 문짝
불교여래원 : 불단, 운각, 경탁외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단집, 천불외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 011-266-6485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 (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 (갈리짐 변색)
■ 木材방충·방부제
■ 木材탈취제 (청변균제거)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B/D (을지로 2가)
전화 : 02)266-2629
팩스 : 02)266-2679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포교당 안내
포교원을 운영하다 지방에 사찰관계로 포교하실분을 찾습니다.
▪법당:40평(3존불탱화, 방사, 주방시설완비)
▪전세 3,000 (5년간 운영)
연락처 : 0331-41-4315 0331-252-5659

기도·회향 보시 방법지도 지장경독송방법
참회·업장소멸과 자녀교육에 도움 가족법회, 건강문제
꿈비위사회교육문제연구소 종로구 인사동 179 - 2 (02)739-5007-8

보시하실 분
산중토굴에서 벙마와 싸우며 정진하는 스님입니다 공양미와 짚차(중고)를 보시하실 인연을 찾습니다.
연락처 : 0415)63-4477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 불사 업적
• 합천(해인사):대적광전·법상·경상
• 의왕시(대원사):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법당 수미단 중각 복전함
• 울청(삼보사):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대웅전 명부전 문짝
• 성남(범룡사):극락전 문짝 닫집
• 충무(삼덕사):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극락전 수미단 중각
• 포천(약천사):극락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회중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 택 02-248-4609
공 장 0346-571-9538
호 출 012-210-1401
趙貴玉 합장

학생모집
♦포교교육과 … 동양종교, 종교음악
♦유아교육과 … 유아놀이, 아동미술
♦종무행정과 … 상담실무, 상담행정
1. 수료후 수료증 수여 및 자격증(포교사·법사·유아놀이사·상담사)취득가능
2. 소형 버스 통학 가능
3. 충북 괴산에서 월2회 강의 (교육청인가 57호)
TEL.02)931-6075~6
만대교학대학원

광고·출판 대행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스님과 불자 여러분의 문의와 상담을 전국 어디든지 환영합니다.
◈ 광고대행 ◈ 신문대행
◈ 기획출판 ◈ 고급인쇄
사찰에서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전문적으로 기획,편집,제작도 대행해 드립니다.
한국비전 전화(02)737-8891~3 팩스(02)737-8894

승복점
장소: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평수 15평
보증금 2500만원
월세 12만원
*승복·한복 겸하여 운영중
연락처: 0331)254-1263, 015-125-1263

神祕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부전스님 모십니다
기도 영가 천도제에 능숙한 스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산)
포교원 (051)465-1009
◎ 전화문의는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직지사 주지시절의 포월당 김봉률스님(왼쪽 끝).

해인사 3·1항일만세 주도

8·15 건국훈장 받은 前직지사주지 김봉률스님

독립선언서 1만장 인쇄 배포
군자금모금 체포 수차례 옥고

지난 15일 대구광역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5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국내 항일계열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은 김봉률스님(법명 포월당, 1897~1949)이 前 직지사 주지로 일제시대 항일운동에 적극 앞장섰던 행적이 밝혀졌다.

보훈처 광복절포상 독립유공자 공적서에 따르면 스님은 22세 되던 1919년 3월 해인사 홍하문밖에서 군중과 더불어 만세시위를 주도하고 4월에는 강재호 박달준등과 독립선언서 1만여장을 인쇄하여 경남북일대에 배포하는등 독립만세 시위운동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1운동 이후 만주로 건너가 봉천성 유하현 고산자에 세워진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한 뒤 국내로 돌아와 문경군 김용사등의 사찰을 중심으로 군자금 모금활동을 전개하다 체포되는등 수차례 옥고를 치른 것으로 밝혀졌다.

양아들로 알려진 일당스님(직지사 중암)이 저술한 〈라홀라의 사모곡〉이나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가 발간한 〈독립운동사 8, 9〉권에 의하면 스님은 직지사 주지로 재임하던 당시 거액의 군자금을 모금하여 만해 한용운스님등에 전달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일로 인해 사찰로부터 공금횡령이라는 오명을 쓰게됐으며 더욱이 해방후 김구선생측에서 활동했던 스님은 국내정치 혼란의 와중에서 정적들의 모함에 의해 경찰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당하고 얼마후 입적했다.

이승만 정권이후 봉률스님의 항일운동의 공적이 계속 묻혀져 오다 속가 딸인 김죽자씨의 8년여 노력으로 진상이 밝혀져 이번에 훈장을 추서받게 됐다.

불국사 CD등 타임캡슐 제작
경북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

경상북도는 개도 10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경북인의 삶의 모습을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타임캡슐을 제작했다.

직경 1m, 높이 1.5m 크기로 첨성대 모형을 본따 만든 이 타임캡슐 안에는 불국사, 백암온천, 문경팔경 등 각종 문화재와 명승지가 컴팩트디스크에 담겨졌으며 유행복장과 경찰관, 소방관의 실물복장 등 1백 품목이 보관된다.

경상북도는 이 타임캡슐을 멸균·진공처리한 뒤 아르곤가스를 넣어 오랜기간 보관해도 변화되지 않도록 만들어 △문경새재 △구미 금오산 △경주통일전 등 3곳 가운데 1곳을 골라 오는 10월말께 묻기로 했다.

이 타임캡슐은 경상북도가 개도 5백주년을 맞는 서기 2396년에 4백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공개된다.

대구경북 BBS 운영위 구성

대구경북 불교방송 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설조스님)는 지난 12일 지방국 운영위원 16명을 1차로 확정발표했다.

이날 위촉된 운영위원은 대구경북 5개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태고종 관암사 주지스님등 설립추진위원 7명을 비롯해 해인사(1명), 대구사원주지 연합회(1명)가 각각 확정됐다.

또 선본사 1명과 은해사 2명을 비롯 4개교구본사스님 각 1명을 추가 위촉키로 했다.

"컴퓨터로 보는 빼아픈 역사"

나눔의집, 정신대 홈페이지 개설

코리아링크 제공

나눔의 집(원장 혜진스님)이 '정신대, 잊고싶은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역사'라는 홈페이지를 지난 13일 개설했다.

정신대 홈페이지는 일장기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정신대 할머니를 등장시켜 위안부로 끌려간 20만 한국여성의 한많은 세월과 빼아픈 역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홈페이지는 △나눔의 집 △일제종군위안부는 무엇이었나 △정신대 할머니들의 이야기 △사진으로 보는 그날 △정신대 할머니들의 그림 △나의 생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중에서 나눔의 집에 삶의 터전을 잡은 정신대 할머니들의 그림 8점과 한국일보사가 제공한 사진 17점이 치욕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있어 방문자의 눈시울을 젖게한다.

한국일보사의 도움을 받아 제작, 인터넷 신문 코리아 링크에서 제공하는 이 홈페이지는 나눔의 집 소식과 정신대 연구회(회장 정진성)의 협조를 얻어 매달 새로운 자료를 한글·영문버전으로 새롭게 단장하게다는 계획이다.

'나눔의 집'의 홈페이지는 http://www.korealink.co.kr/jeonshin/w4/w4.htm로 접속하면 볼 수 있다.



김죽자씨가 회고하는 아버지 봉률스님

"사찰공금 유용 누명쓰고 입적 47년만에 명예회복 됐어요"



"모진 고문을 받은 얼마후 돌아가신 아버님은 임종시에도 나라를 저버리지 말라는 당부를 남기셨습니다."

입적한 지 47년만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은 봉률스님의 속가 딸인 김죽자 보살(사진·55, 법명 법성화)은 훈장 추서 자체도 감개가 무량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버지 봉률스님이 사찰의 공금을 유용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벗게된 점을 기뻐했다. 직지사 주지로 자임하던 당시 봉률스님은 절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쓰게 됐는데 이것이 광복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군자금으로 쓰여진 것으로 공식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죽자보살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이 끝나자 마자 부모님 위패가 모셔진 통천사로 달려갔다. 같이 간 언니 김송자보살내외와 함께 부처님과 스님앞에 훈장을 바치고 합장한 얼굴에서는 만감이 서린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스님의 항일 행적을 찾기 위해 광복회관을 내 집 드나들 듯 하며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는 김보살은 "어머니 말씀으로는 아버지께서 집에서 사흘을 계시지 못할 정도로 늘 독립운동에 열중하셨고 집에 오셨더라도 탈출구로 뒷문을 늘 열어놓으셨다는 군요"라며 8살때 돌아가셔서 생전의 기억나는 모습이 별로 없지만 강직하면서도 다정다감한 성품이었다고 아버지 봉률스님을 회고했다.

대구=이윤호 기자

불교TV 가을개편

'…불교아카데미' '알고 믿읍시다' 신설
'김병조 이야기쇼' 등 4개프로 시간 변경

불교TV가 오는 9월 2일부터 가을 개편을 단행한다.

불교TV는 '동국TV 불교아카데미'와 '알고 믿읍시다' 등 2개 프로를 신설하고 구도드라마 '제공스님'과 '알기쉬운 교리강좌' 등 2개 프로를 폐지하며 '김병조의 이야기쇼' 등 4개 프로는 방송시간대를 변경한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에 방송되는 '동국TV 불교아카데미'는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의 교육프로그램으로 불교교리와 불교학문을 체계적으로 강의하게 되며, '알고 믿읍시다'는 매주 수요일 낮 12시 10분에 안방을 찾아 불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불교상식을 올바로 전해 바른 신행생활의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매일 저녁 6시 35분에 방송되는 '저녁예불'은 종전 방송시간보다 10분이 늘어 25분간 방송되며 '김병조의 이야기쇼'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낮 12시 10분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같은 프로그램 변경에 따라 종전 주당 99시간 20분에서 106시간 15분으로 총 6시간 55분이 늘어난다. 따라서 평일 오전 9시에 방송을 개시해 한시간 앞당겨 방송이 시작되고 마감시간도 평일에는 밤 12시 10분에 토요일에는 밤 12시25분, 일요일에는 자정에 각각 종료된다.

안테나설치 명당자리 절근처

통신업체, 사찰 껴안기 '진땀'

한국이동통신 신세기통신등 기존 통신업체는 물론 새르 사업권을 받은 한솔PCS등이 통신망 구성을 위한 안테나 설치 선점 지역확보를 위해 사찰 주지와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진땀을 흘리고 있다.

이같은 경쟁아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유는 사찰들이 거의 풍수지리에 따라 산을 등지고 앞의 시야가 탁트여있고 좌청룡 우백호가 호위하는 명당자리에 있어 바로 안체나 설치의 최적위치이기 때문. 안테나는 전파끼리 겹치지 않도록 세워야 하며 산을 등지면 뒤쪽 안테나에서 오는 전파를 막을 수 있고 좌청룡 우백호도 양옆 안테나의 혼신을 예방한다고.

그러나 안테나 철탑이 세워지면 산의 정기를 누른다는 믿음 때문에 사찰 근처에 안테나를 설치하기란 그다지 쉬운 일만은 아니다.

실제로 경북 상주시 동해사는 한국이동통신의 안테나 설치제안을 반대했고, 또 경북의성 비봉산 대곡사는 신도들의 반대로 안테나설치를 포기해야만 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안테나 시설을 맡은 담당자들은 평소 사찰과 보다 밀접한 접촉을 가지며 주지스님과 신도들의 마음 사로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은〉

해외불교

그리이스 정부 불교센터 이단판결
기독교 위주 종교법 '위헌논쟁'

최근 그리이스 정부는 '그리이스 불교협회'가 마운트아토스시에 불교센터를 건립한 것에 대해 '승인없이 사설 기도원을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불교협회장인 해라 카로미리씨에게 3개월 실형을 선고해 심각한 종교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카로미리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종교법은 1930년에 파시스트 독재자였던 돈니스 메타시스가 국교인 전통 기독교 이외에 다른 종교를 금지시키기 위해 마련한 종교법.

이에대해 카로미리씨는 "불교센터에서는 불교교리를 배우기 보다는 불교신자들이 명상수행에 정진하는 곳"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할 예정이며, 이것이 기각될 경우 유럽재판소를 통해 그리이스 정부의 종교탄압을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재판소는 이미 그리이스 종교법이 위법임을 통보한 바 있다.

목탁소리

김 재 경 〈취재2부 기자〉

'저작권 주의보' 발효

불교계에도 '저작권 주의보'가 발효됐다. 이제는 일부 책이나 잡지, 신문들에서 사진과 미술도판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던 관행의 시정이 시급하게 됐다.

최근 ㅇ출판사가 성철스님의 얼굴사진을 작가의 사전허락없이 광고에 게재했다가 작가의 항의를 받고 고소까지 당할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ㅎ출판부도 89년에 펴낸 〈유마경강설〉에 불화 두 컷을 무단 게재했다는 이유로 몇달전 ㅂ스님으로부터 고소당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같은 종단에 몸담았던 스님으로서 창작품인지도 모호한 데다 몇년전에 이미 양해를 하고 마무리지은 사안을 이란 점에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예전부터 불교집안에서는 남의 책이나 사진·도판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사용하는 측이나 원작자나 '불사에 사용한다는 공유개념'으로, 이를 크게 문제삼지 않고 비교적 너그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7월1일부터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출판물뿐 아니라 사진과 미술품(도판) 음악작품 등의 사용에 대한 작가들의 권리도 보호하고 있어 사진과 도판 사용에 대한 주의 및 대책마련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특히 사진분야에 대한 저작권법 발효는 불교계의 각종 언론매체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국내외의 각종 보도연감은 물론 출판·저널물에서 허가없이 사진자료를 인용해 써 온 교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언론사간의 자료공유 및 사진자료실 확장을 통한 자체 자료 확보에 힘쓰지 않는 한 이번 사건과 같은 비슷한 사건의 재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도 없다.

회전식(법륜)

(銀)염주지압반지 탄생 !

- 건강과 기도수행하며 소원을 이루는 반지 -

염불하는 공덕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성불하는 인연되어지이다.



염주 지압반지 특허출원

특 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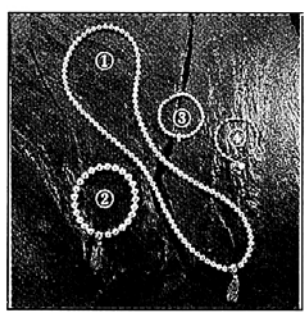
銀은 예로부터 世界 역사를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밀접한 관계속에서 오늘날까지 지혜롭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銀은 우리 인체의 해로운 성분과 만나면 금방 색깔이 반응한다는 것과 인체의 해로운 650여종에 살균효과 또 임금님의 수라상에 은수저가 올라갔던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의 일상에서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입니다. 출발나마스떼에서는 불자님들의 건강와 기도하실 수 있도록 銀(92.5%)으로 만든 회전식 법륜 염주지압반지, 은단주, 합장주, 호신불 팔찌, 목걸이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륜 회전식 염주 지압반지의 좋은점

(銀)은 92.5%로 된 회전식 법륜염주 지압반지는 지압효과를 볼수있는 침구가 안쪽에 있으며 바깥돌아가는 면에는 옴마니반메훔, 지장, 관세음 보살이 양각되어 전철, 버스, 목욕탕등 언제 어디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단주, 염주처럼 하나씩 돌리면서 수행 정진할 수 있습니다. 법보시 용이나 수계식때 불사보시용으로도 좋은 반지고 건강과 기도를 함께 수행하며 자신의 근기에 따라 소원을 이루는 반지 입니다. 영불하며 성불하겠다는 원력을 세우신 불자님에게 꼭 필요한 수행기구 입니다. 14k, 18k는 별도 주문 제작하여 드립니다.

자매품

① 은염주 은(銀)92.5% 규격: 8mm ₩96,000
② 은성불 단주 은(銀)92.5% 규격: 10mm ₩50,000
③ 합장주 은(銀)92.5% 규격: 5.6mm ₩17,000
④ 호신불팔찌 은(銀)92.5% 규격: 5.6mm ₩15,800



▪판매원 : 출발나마스떼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5번지 삼익패션타운4층 153호 TEL:779-1932 · 779-1938 FAX:779-1932
사무실 : 대표전화 318-3522 · 318-3523 FAX:779-1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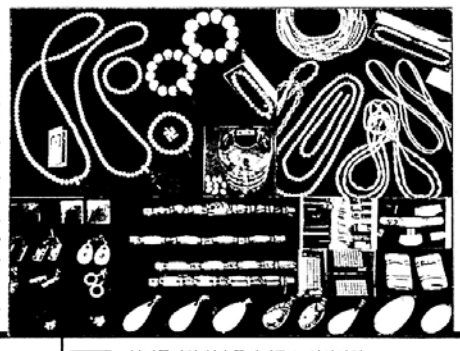
▪지역대리점: 서울 (종로)제일사274-0797 (종로) 진은사 273-4864 광주성민유통 062-222-5537 대구제일사 053-252-4370 부산세진051-644-7151 은혜공방 051-241-2135 부산불교전시관 051-647-7393 제주 한라불교신문사 064-55-2203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치유하고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률을 증대하며 선(禪)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 상식의 테두리에 사로잡히는 편협한 사고방식은 진리의 관문을 넘어선 참 진리의 힘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춘천 옥산가 백옥입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풍만증 90.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풍만증, 풍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공전인옥제품을 사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옻반지 84%, 옻목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히냈다 ('93 2 17)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렝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吳是空 合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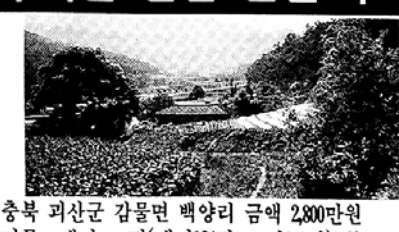
천혜의 전원주택



주택정면

- 충남 예산군 대흥면 (전방150m 예당 저수지 33만평)
- 지목 : 대지 + 전 (76 + 204 = 280평)
- 가옥상태 A급 (정원 잔디 + 조경 + 인공저수지2평)
- (현대식) 돌담집 : 집앞 채전과 차고 있음.
- 집앞에 시원한 광활한 저수지(예산읍에서 15분거리)
- 현재 사람 살고 있음. 최고 A급 전원 주택
- 금액 : 4,800만원

투자할 만한 전원 주택



- 충북 괴산군 감물면 백양리 금액 2,800만원
- 지목 : 대지 + 전(대지164평 + 전218평) 計 382평
- 서울에서 약 1시간 30분거리
- 2차선 포장 도로에서 100m 위치
- 집앞에 200m지점 큰 저수지가 있고, 집 뒤에는 산이 있음
- 주위 경관수려, 달래강 근접

연락처 TEL : (02) 420-5474~5 FAX : (02) 413-7295 B. B : 012-272-0025 불자 안태진 합장

현불뉴스

일각·경보스님 49재

조계총림방장 회광당일각스님 49재가 지난 10일 송광사대웅전에서 사부대중 3천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또 서경보스님 49재가 지난 12일 경남 의령 일붕사와 서울 법왕청에서 동시에 열렸다.

조계종종회 來2일부터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는 제122회 임시중앙종회를 오는 9월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개회한다.

법왕사 백고좌법회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는 지난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1백일동안 제6회 법화산림백고좌법회를 봉행한다.

이번 백고좌법회는 매일 오전 10시 참회정진기도(108배)를 시작으로 진행된다.

백중맞이 경로잔치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오는 28일 제9회 백중맞이 경로잔치를 봉행한다. 이번 경로잔치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효자효부시상식, 장기자랑, 연예인 초청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8·15특사 재검토 주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지선)는 지난 14일 '정부의 8·15 특별사면조치를 보며'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8·15를 맞아 특별사면 및 복원키로 한 김종휘(율곡비리) 조기현(상무) 이형구(대출비리)등 10여명은 엄청난 권력형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로 화합이라는 명분아래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불교유아교사 수련회

불교유아원교사연합회(회장 영담스님)는 지난 3~5일까지 김천 직지사에서 '제23회 유아교사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에서는 유아예절교육, 불교구연동화, 불교인형극 등이 진행됐다.

불기협 하반기 연수회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하춘생)는 9월 7~8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하반기 기자연수를 실시한다. '취재보도와 인권침해' 강의(강사 임병국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실장)와 분과토론 등으로 진행한다.

일연·원효·만해·춘원 기념관 세운다

정신문화 불사 '새바람'

은해사·백담사·봉선사등 추진

사찰의 건축불사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최근들어 고승들의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계승하는 뜻을 담은 불사가 은해사 봉선사 등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어 단순한 사찰건축불사가 아니라 '정신문화불사'라는 새 전형을 제시하고 있다.

은해사(주지 법타)는 일연스님이 주석하며 〈삼국유사〉를 집필했던 인각사의 옛모습을 되살리고, 이곳에 일연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은해사는 10월 10일 일연학연구원을 발족하고, 인각사 10년 복원불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1차로 내년에는 부지확보와 함께 보각국사비를 복원한다.

법타스님은 "일연스님은 〈삼국유사〉를 통해 후손들에게 자주적 민족·역사의식을 일깨운 위대한 선각자"라고 강조하고 "이번 불사는 일연스님의 자주의식을 이어받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은해사는 이와함께 원효스님의 탄생지인 제석사와 설총의 성장지 반룡사도 중창해 외래사상인 불교를 토착화 대중화한 원효스님의 자취를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종 수사찰(首寺刹)의 전통을 잇고있는 봉선사(주지 운경)는 조선시대 승과시험을 관장하던 교종판사의 집무실이었던 관무헌(觀務軒)을 옛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불사를 진행, 9월말 완공할 예정이다. 관무헌은 또 우리나라 근대문학을 일군 춘원 이광수선생이 납북되기 직전 기거하던 곳으로 한국문학사의 중요한 현장이기도 하다.

만해스님의 〈님의 침묵〉의 산실인 백담사(주지 마근)도 만해사상실천선양회(상임대표 김재홍)를 지난 6월29일 구성하고 만해기념관과 만해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마근스님은 "백담사는 더 이상 전두환씨의 유배지가 아니다"라며 "만해스님의 얼을 이어받는 정신적 자양분을 얻어가는 역사·문화공간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봉원사(주지 대운)도 개화기 외교활동을 펼쳤던 개화승 동인스님의 기념표석을 경내에 세우는 한편 기념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이같은 불사에 대해 김동현 문화재연구소장은 "불교가 비로소 각박한 세상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반기며 "이곳 뿐만아니라 전국의 주요사찰이 박물관 건립 등을 통해 정신문화의 도량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수해회생자 합동위령제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14일 봉선사 청평루에서 경기 강원북부지역 수해회생자 합동위령제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월주스님 및 각 부장, 이인제 경기도지사, 이한동 이상헌 흥문종국회의원, 김종해 경찰서장, 전상배 군수합참의장 등 각 기관장을 비롯한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이날 합동위령제에는 경기도 강원도청, 연천·파주군청 군부대 및 기타 수해지역기관 10곳이 참여했다.

'통일기원법회' 전국서 열려

광복51돌 호국영령추모등…北·美서도

8·15광복 51주년을 맞아 조국광복의 참뜻을 되새기고 호국영령을 위로하는 통일기원법회가 전국에서 봉행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지선)가 지난 11일 용산가족공원에서 통일기원법회를 봉행한데 이어 전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이 지난 14~15일 양일간 조계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등에서 남북한수재민돕기 거리실천행사, 통일기원법회 등을 개최했다.

또 대성사(주지 도문)는 지난 15일 3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영령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8·15남북통일발원 영가천도법회를 봉행했다.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미주본부(회장 도안)도 지난 15일 조선불교도연맹과 함께 북한과 미국 LA관음사에서 각각 동시법회를 봉행했다.

한편 통일광복민족회의(공동대표의장 월주)는 지난 7일 △문화 사상등 각분야 전문가의 상호협력과 공동학술회의를 통한 동질성 회복 △남북한 경제 및 기술교류를 통한 민족경제와 국제경쟁력 제고 등 6개항의 통일방안을 제시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동쪽나라' 복간 본격 논의

조계종포교원 종회에 계획서 제출키로

월간 〈동쪽나라〉(불지사 발행) 복간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 〈본지 89호 참조〉

조계종포교원은 지난12일 〈법회와설법〉 편집위원회의에서 〈동쪽나라〉 복간과 관련 "포교원이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고 어린이단체와 불지사 등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동쪽나라〉 복간계획안을 수립해 빠르면 9월초 개최되는 중앙종회에 제출키로 했다.

〈동쪽나라〉 복간과 관련 불지사는 △종단 등 유력한 곳에서 인수해서 발행 △종단 등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안 △종단 어린이단체 불지사가 공동으로 법인을 결성해 발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 철오스님은 어린이지도자연합회에서 지도자용으로 발행하는 〈동련〉을 〈법회와 설법〉에 통합하고, 〈연꽃〉을 〈동쪽나라〉와 통합하여 종단의 예산협조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만성신부전증 법종스님 도웁시다"

생명나눔실천회, A형신장기증자 급구

생명나눔실천회(회장 법장스님)는 수행에만 전념해오다 지난달 만성신부전증으로 갑자기 쓰러져 투병중인 법종스님(56, 보덕암주지)에게 새생명을 줄 혈액형 A^+ 신장기증자를 찾고 있다.

생명나눔실천회는 지난 6일 스님의 도반들로부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법종스님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장기증자 및 후원자를 찾고 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현재 동국대 경주병원 6306호에서 입원해 복막과 혈액투석중이다.

생명나눔실천회 (02)734-8050

불교문화제전·영산재 일정 확정

한중일 불교우호서울대회 준비 마무리 '순조'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월주)가 오는 9월9일부터 12일까지 개최하는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서울대회' 기간동안 영산대재와 불교문화대제전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어 한국불교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가 주관하는 영산대재는 9월11일 동국대학교 대운동장에서 5천년 한민족의 역사이래 희생된 유주무주의 고혼을 천도하고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축원하는 전통의식으로 펼쳐진다.

불교문화를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게될 불교문화대전은 불교TV 주관으로 9월5일부터 14일까지 여의도광장에서 열린다.

이번 불교문화대제전에는 한중일 삼국의 불교문화를 시대별로 정리한 역사관, 불교미술인 40명이 참가하는 현대미술관, 각 종단의 역사현황자료를 전시하는 종단관, 불교영화 btn 제작프로그램을 상영하는 영상관을 비롯 공예품관, 사찰음식 전시관, 생활관이 운영된다.

한편 이번 서울대회는 '21세기에 있어서 한중일불교의 사명'이란 주제로 동북아평화와 세계난민구제, 환경보전, 학술문화정보 교류 등을 위한 추진방안을 논의한다. 대회기간에는 한국대표 4백여명, 중국대표 1백80여명, 일본대표 2백여명등 1천여명의 불교지도자가 참석하며 한반도통일과 세계평화정착을 위한 3국불교계의 공동의지를 천명하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ASEM 회의장 건립부지 놓고 봉은사-무역협회 마찰 장기화 조짐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개최와 관련 컨벤션센터건립 부지가 삼성동 무역센터내로 선정됨에 따라 봉은사와 무역협회간의 마찰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봉은사는 지난 14일 강남구청 회의실에서 개최한 간담회를 통해 절대건립불가의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무역협회간의 마찰이 본격화됐다.

이날 무역협회측은 "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은 확고부동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봉은사측은 신도회를 주측으로 컨벤션센터 건립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해인골프장 반대 고령군민 '한목소리'

3개 대책위 결의대회 700여명 동참

해인골프장 건설저지를 위한 백만인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 13일 해인골프장 건설반대 고령군민 결의대회가 고령 국악당광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집회에는 해인총림대책위, 대구경북대책위, 고령군대책위 등에서 7백여명이 참가하여 투쟁결의를 다졌다.

이날 참가자들은 가야산 해인골프장 승인지역의 자연보존지구 지정과 가야산 국립공원 보존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는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한 뒤 '골프장반대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고령경찰서앞 네거리까지 가두시위를 벌였다.

한편 해인총림선원에서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80여명의 비구스님이 참여한 가운데 해인골프장 전면백지화를 위한 장좌불와 철야용맹정진을 벌였으며 이 기간동안 해인사대책위는 각 본사에 대책위원들을 파견하여 10만명 서명운동 돌파를 독려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2일경 해인골프장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종합보고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합동징수 강력 요구"

월정·삼화사 선언문

동해 삼화사(주지 원행)와 동해시가 문화재관람료 징수로 갈등을 빚고있는 가운데 13일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와 삼화사가 공동선언문을 내고 동해시에 합동징수를 요구했다.

삼화사는 "문화재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7월18일 관람료사찰로 지정되어 8월1일부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있다"며 "관람료징수에 앞서 동해시가 무릉계곡 입장료를 1백% 인상해 참배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삼화사 경내의 불법시설물 철거 △사찰참배객의 신앙활동을 위해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철회 △문화재관람료와 입장료 합동징수 등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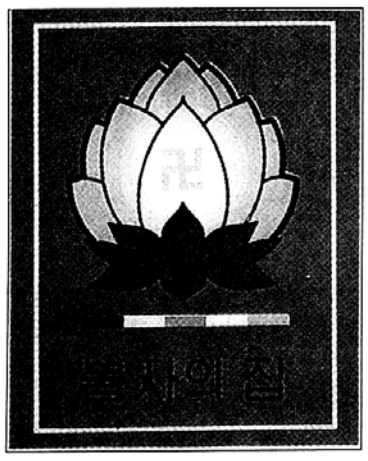
마음 에너지의 원천

주인공, 신봉이어해도 좋고 선장이어해도 좋습니다만 신봉은 일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힘을 배출해 줍니다. 에너지를 넣어주지요. 신봉은 에너지의 원천이어 할수 있죠.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불자의 집」 교패붙이기 운동을 전개합시다



▲ 크기 : 6cm×7.5cm

특 징

1. 원색칼라로 제작하였습니다.
2. 표면에 에폭시 처리하여 탈색의 염려가 없습니다.
3. 반영구적입니다.

※ 300개 이상 제작시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2천만 불자란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2천만의 불자 모두가 스스로 불자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스스로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자로서의 긍지를 갖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자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나와 이웃이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을 부처님 세상으로 가꾸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 감로기획에서는 법보신문, 현대불교신문의 후원으로 「불자의 집」 교패 붙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 운동은 불자 스스로가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는 서원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크기 3.5cm×10.5cm

차량용도 있습니다. (유리후면에 부착)

■ 보급방법 : ●신도님이 사찰에 보시하시면 좋습니다.
●사찰, 불교 단체에 보급합니다.

■ 보 급 가 : 1개당 1,000원

감로기획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란분절 법회·설법자료 및 법보시 책자 보급 안내①

우란분재의 연원, 우란분재의 의미,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칠월 칠석의 유래 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우란분절 법회, 칠석법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법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칠월칠석과 우란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발원문
1. 우란분절 발원문
2. 우란분절 봉축법회 식순

제2부 믿음의 근본, 효 : 우란분재
1. 우란분재의 연원
2. 우란분재란
3. 우란분재의 의미
4. 우란분절과 백중

제3부 우란분재에 얽힌 이야기
1. 나복의 출가
2. 어머니를 찾아 지옥으로간 목련존자
3. 우란분재를 올리다
4. 부처님께서 우란분재를 베풀라 하신 참뜻은?

제4부 칠월칠석
1. 칠석의 유래
2. 수명장수를 기원하는 칠석재
3. 칠원성군 진언과 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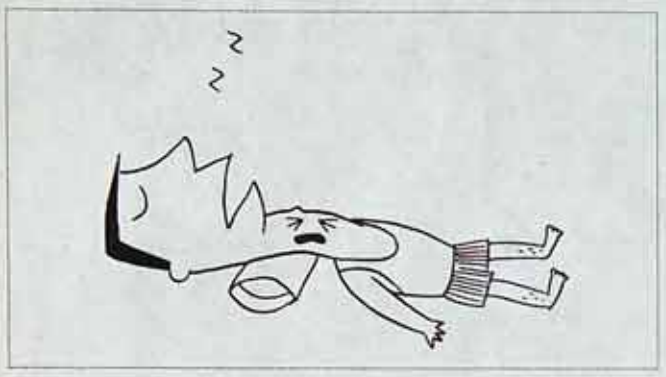
▲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 드립니다.

■ 200권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리고, 법회안내, 법보시자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보시 가격/1권당 1,300원
■ 크기/신국판(15.2cm×22.3cm) 72페이지
■ 맨 뒷장에 법보시자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온라인 번호〕
농 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 체 국 010579-0028865
예금주 선 문 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

건강백세 ㉑



목 ①

자세 바르면 디스크 예방 가능
뒷덜미 잦은통증 고혈압 의심

목부분은 머리부와 몸통을 연결해 주는 부분으로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할 이유가 특별히 많은 곳이다. 어느 곳 한군데도 없이 다 중요 하지만 특히 이부분은 자칫 소홀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얼핏 생각해서는 단순한 연결부로만 보기 쉬우나 마치 서울의 광화문 같은 곳이라고 연상하면 그 역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대뇌, 소뇌 등으로 알려진 뇌는 전뇌(前腦), 중뇌(中腦), 능뇌(菱腦)등 대뇌반구(大腦半球)와 척수(脊髓)를 결합하여 중추신경계로 기능을 하고 있는데 후두부는 바로 이들의 연결부인 뇌간(腦幹)이 있는 부분이다. 뇌간은 뇌교(腦橋), 연수(延髓=숨골), 간뇌(間腦)로 이루어져 있다. 뇌수와 척수는 뇌척수액(腦脊髓液)이 순환 되면서 우리 신체의 중추적 기능을 관장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식도, 기도, 동정맥(動靜脈)혈관, 신경등 많은 줄기들이 다발처럼 묶여서 이곳을 통과한다. 그래서 이부분을 경총부(頸叢部)라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뇌반구로 들어가는 부분은 대후두공이라는 일정한 관문을 통과한다. 이것은 신축성이 없어서 통과량이 늘어날 적에는 압력으로 나타나서 통증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것이다.

목부분은 딱딱한 두개골로 보호되고 있는 뇌와는 달리 밖으로 노출되어 있고, 꺾이거나 부자연스런 위치나 형태가 되면 생각보다 심한 고통과 장애가 따른다. 먼저 목부분은 두개골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이에 따른 반응이 나타난다. 평소에 약간의 의학적 상식을 갖고 또한 주의 깊게 자신의 생리현상을 파악하고 지내면 의외로 중요한 병증을 사전에 알아낼 수 있고 빠른 대처는 큰 어려움을 사전에 막아 주기도 한다. 요즈음 많은 환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성인병의 대표격인 고혈압의 경우 혈압이 많이 오르거나 변동이 심할 때에는 뒷덜미가 무거워지고 심한경우에는 통증까지 나타난다.

또한 우리 주위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증상중의 하나가 디스크 질환이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안 보이지만 겪는 통증이나 불편함은 참 표현하기 힘들다. 척추(脊椎)는 벽돌과 같은 블록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기둥을 이루는데 이 블록들의 사이에 끼어있는 끼우의 역할을 하는것이 바로 디스크이다. 이것은 상하완충역할과 전후좌우로 굴신역할(屈伸役割)을 하는 연골조직인데 외력에 의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변형 탈출되어 옆을 지나고 있는 신경을 압박해서 통증이 일어나는 것이다.

윤 을 상 〈한의학 박사〉

양수리의 법당 ②

주부신행담

법당 부처님 뵙는순간 눈물이…
"이젠 강하게 살아야지"
사업가로 변신은 쉽지 않았다



그림 · 이준석

산 길을 걷자고 일부러 마을에 차를 세워두고 오른 운길산. 처음 와 보는 산인데 얼마나 올라가야 하는지도 모른채 좁은 산길을 따라 올랐다. 등산을 좋아하지 않아 금방 다리가 아파 왔지만 가을 정취가 그득한 산길은 마음을 조금씩 밝혀 주고 있었다.

"힘들지? 여기쯤에서 쉬어가자."

아, 나는 뜻밖의 아름다운 경치에 놀랐다. 저 아래로 펼쳐진 그 수채화같은 풍경. 극도와 기차길 다리 강물 버드나무 나보다 키가 작은 것같이 보이는 먼 산, 이들이 어우러져 있는 광경은 그림 같았고 나는 그 그림을 감상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올라 온 만큼을 더 올라간 곳에서 절을 만났다. 수종사의 대웅전 앞에서는 양수리의 풍경이 더 아름다웠다. 잠시 땀을 식히고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께 절을 했다. 친구는 가끔 절을 다니는 '보살'이었지만 나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길 비는 의미에서 1년에 한번 초파일에나 절을 찾아 등을 다는 정도였으니 불교신자 중에서도 낙제신도였었다.

"부처님께 절하면서 이제 더 강하게 살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빌어 봐. 떠나신 분의 극락왕생도 빌고……."

친구의 말에 왈칵 눈물이 치밀어 올랐고 나는 몇번인지도 모르고 계속 절을 했다. 친구의 말대로 남편의 극락왕생을 빌다가 내가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빌다가 아이들의 건강과 성적을 빌다가 그렇게 부처님께 나의 모든것을 맡기면서 나는 그쳐지지 않는 눈물을 애써 그치려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절을 하고 나니 다리가 뻣뻣해져 왔고 땀이 온 몸을 적셨다. 내 기도를 들으라 친구도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절을 했다.

그날 나는 법당에서 몇시간을 보냈다. 절을 마치고 앉아 있는 시간에도 부처님께 나의 소원들을 빌었었다. 그리고 법당을 나왔을때 여전히 아름답게 펼쳐진 양수리의 경치를 보며 온 몸의 피로를 잊을 수 있었다. 우리는 처음 찾은 절이라 아는 스님도 없었다. 이리저리 다니며 크지 않은 경내를 구경하고 산길을 내려 왔다.

그 날밤 남편에게 편지를 썼다.

"여보 당신이 가신지 어느새 한 달이 다되어 가는군요.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어디서든 당신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거라 믿어요. 그리고 그곳이 행복한 곳일 것도 의심치 않아요. 오늘은 준이 엄마와 어느 절엘 다녀 왔는데 그 절 법당에서 부처님을 뵙는 순간 나는 가슴이 아려왔어요. 그리고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건 슬픔의 눈물도 고통의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쏟아지는 것이었는데 친구는 마음 속의 고통이 씻어지는 눈물일 것이라 말했어요. 당신의 편안한 잠을 위해 나의 건강한 삶과 아이들의 밝은 성장을 위해 기도 했는데 부처님은 꼭 들어 주실 것 같아요. 이제 더이상 힘 없이 살 수 없으며 그건 당신이 원하는 것도 아니란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여보, 당신과 이렇게 편지를 나눈 것이 얼마나 오랜 일인지 모르겠군요. 이제 당신의 빈 자리까지 살아 갈 것을 생각하니 두려움도 큽니다. 그러나 늘 내 곁에 계실 당신과 오늘 본 그 아름다운 마음의 풍경과 부처님의 따사로운 미소를 생각하며 살께요…."

다음날 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아이들 공부도 챙기며 분주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아니 그런 분주함을 만들기 위해 일을 찾아 했다. 집안일이야 해오던 것이니 힘들 것도 문제가 될 것도 없었다. 가게를 나가면서 나는 세상이 정말 만만한 곳이 아님을 실감할 수 밖에 없었다. 주부에서 사업가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남편 몫의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변신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이다.

정 보 리 심
〈서울 성북구 성북동〉

♦ Standing, walking or sitting or lying, as long as he be awake, let him devote himself to this mind; this (way of) living they say is the best in this world.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서 잠들지 않는한, 이 자비심을 굳게 가지라.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신성한 경지라 부른다.

♦ He who, not having embraced philosophical views, is virtuous, endowed with perfect vision, after subduing greediness for sensual pleasures, will never again go to a mother's womb.

온갖 삿된 소견에 팔리지 말고, 계행(戒行)을 지키고 지견(知見)을 갖추어 모든 욕망에 대한 탐착을 버린 사람은 결코 다시는 모태(母胎)에 드는 일이 없을 것이다.

HEMAVATASUTTA

*HEMAVATA 금계(金鷄)경전 (hema 금, vata 계열)

♦ Today is the fifteenth, a fast day; a lovely night has come - so said the Yakkha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㊷

Satagira—let us go and see the renowned Master Gotama.

오늘은 보름, 포살일이다. 순결한 밤이 가까워졌다. 자, 우리들은 세상에서 명성이 자자한 *스승 고타마를 뵈러 가자, 칠악야차가 말했다.

* devote oneself to ~에 일신을 바치다, 에 전념하다
* embraced (v) 집착하다
* virtuous (a) 고결한, 덕 있는
* endowed (v) 타고나다, 부여되다
* womb (n) 자궁, 생명이 발생하는 곳
* fast day 포살(布薩)일, 원래는 금식일, 기독교 문화권에서 금식일은 자신을 참회하고 종교의식을 지내는 날을 지칭한다.
* lovely 순결한
* Satagira (빠알리어) 칠악야차
* renowned 명성있는
* yakkha (빠알리어) 야차, 귀신 (인간의 정신적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서양의 악마와는 다르다)

오종욱 기자

1996 문학의 해 | 해외불교문학 다이제스트

히말라야의 새 ③
루디아드 키플링 ⑪

'붉은 황소' 부대에 잡힌 킴은 학교에 가게됐다



그림 · 심민섭

"군인들, 백인 군인들이예요."

곡초지를 걷던 킴이 소리쳤다. 군인은 네사람이었다.

킴과 라마승은 망고나무 숲의 그늘 속으로 몸을 숨겼다.

걸어 오던 네 사람중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춰 섰고 두 사람은 계속 전진해 왔다.그들은 야영지를 정하기 위해 파견된 연대의 참병 분대였다.

"이 근처의 나무 아래다 장교막사를 치고 나머지는 숲 바깥에 머물면 되겠군. 장비마차들을 세워 놓을 장소는 표시해 두었겠지."

그들은 한참을 큰 소리로 의견을 나누며 깃발을 꽂더니 다시 사라졌다.

"스님." 킴은 헐떡이며 말했다.

"나의 별자리, 물병라에서 마을의 성직자가 이야기한 나의 별자리 점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것은 예언이 아니다. 그것은 이 세계의 환상,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언의 시작이 그러하듯 먼저 두사람의 밀사가 모든 것을 준비하기 위해 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붉은 황소가 초원 위로 온다고 했는데 보세요. 저기, 황소가……."

킴은 다섯 걸음도 안되는 곳에서 저녁미풍을 받으며 펄럭이는 깃발을 가리켰다. 그것은 흔한 군대 주둔지 깃발에 불과 했지만 이 연대는 우연히도 붉은 황소 한 마리를 연대의 상징문양으로 새겨 넣고 있었다. 그것은 킴의 아버지가 속해 있던 메버릭 연대의 장식이었다.

킴은 다시 걸음을 재촉하며 마을을 향해 갔다. 그러나 그 마을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 킴은 그 마을 주민들이 모두 죽었거나 도망쳤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마을에는 아직 시체가 썩어 가고 있었다. 킴은 그 마을을 지나 다시 산길을 올라 갔다.

킴은 산길을 올라 가다 산중턱에 있는 한 막사에서 나온 목사에게 잡히고 말았다. 그리고 막사 안으로 끌려 들어갔다. 막사안에서 킴은 그동안 목에 걸고 다녔던 부적주머니를 빼앗겼고 목사는 그것을 펼쳐 보았다. 그리고 이내 킴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도둑으로 누명을 쓰지 않기 위해 킴은 자신에대해 아는 대로 다 말했다. 빨리 노스님에게로 가기위한 생각도 있었다. 그러나 군목과 신부는 달랐다. 그들은 소년이 영국인이란 점과 메버릭 연대 소속 상사의 아들이란 점 그리고 그가 지닌 프리메이슨회원증 등에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

결국 라마승을 불러와 이 영국인 소년의 장래문제를 의논하기까지 그들은 적극적이었고 킴은 대충 그들의 뜻을 따르는척 하다가 도망쳐 노스님과 다시 여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킴이 영국인이라는 점을 매우 중시하며 이 어린 소년을 학교로 보내 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라마승도 소년의 스승으로서 학비를 대겠다고 신부와 굳게 약속 했다. 라마승은 계속 여행했으며 킴은 연대에서 나갈 수 없었고 럭나우의 사비에르 학교로 가게 되었다. 물론 라마승이 1년치 학비를 신부에게 보내준 뒤의 결정사항이었다.

한 · 중 · 일 삼국불교 교류대회 기념 불교문화대제전

연꽃향기 누리가득히



여의도가 부처님의 큰 향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 민족정신에 큰 뿌리로 자리해 온 불교문화!
큰 잔치-불교문화대제전에서 그 숨결을 느껴 보십시오

•행사내용

문화관 (불교 문화의 역사 체험의 장)		생활관 (사생활에 관심으로 참관할수 있는 공동체의 장)		이벤트 (불교의식 · 예술 · 문화행사)
역사관	한 · 중 · 일 삼국의 불교문화 한 눈에서 전시	섬유산업관	섬유 가공분야 섬유 소재분야	• 종단의 날 • 사찰 음식체험 • 참선 지도 법회 • 사찰 의식체험 • 명상의 • 세계 각국인 불자 초청법회 • 불교 합창단 합창제 • 한국 불교 신앙 수필 공모 • 신앙 간증대회 • 금서단체 공연 • 스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시장 • 2000 송 행렬등 • 2000 송 행렬등 • 불교 청기보존 음악회 • 전통 민속예술 공연 • 불화그리기 • 연등 만들기 • 민속신 체험장 • 3분 생활법문
현대미술관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불교 사회단체의 전시관	농수산물관	각지방 특산물 전시 위해	
종단관	각 종단의 역사 현황자료 전시	일반산업관	식품 및 건강산업관 / 식품관련분야, 관광기구관련분야	
영상관	불교입문 video제작프로그램 방영		레저 스포츠 용품관 / 스포츠 관련용품, 레저용품	
공예품관	사찰의 불교공예품 전시		자동차관 / 첨단기술관, 미래자동차	
사찰음식전시관	사찰고유의 전통음식을 전시			

• 생활관 입주업체를 모집 합니다. 관심 있으신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사명
한 · 중 · 일 삼국불교 교류대회 기념
불교문화대제전

•일 시
1996년 9월 5일(목) ~ 9월 14일(토)

•장 소
여의도광장

•주 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 관
불교TV, 경성기획

불교문화대제전 추진위원회
Tel:(02)3270-3349/50